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가치를 만드는 마을
기회를 만드는 마을
모두를 위한 마을
아이를 돌보는 마을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경기마을
공동체 **01** 경기도 주민 스스로 살피며 만들어가는
서로 돕고 돌보는 마을공동체의 이야기

경기청년
기회지원 **02** 경기도 청년의 기회
사다리, 깡이어, 역량강화기회지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마을하자 댄스, 다다다
마을공동체 소식에
태그달기 #마을하자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서로 이해하
고 살피고 소통하며 스스로의 삶터
와 일터를 가꾸는 마을공동체 소개
태그달기 #마을하자

아동돌봄 기회소득
7월부터 돌봄의 사회
적 가치 인정과 보상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를 돌보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
회소득 지급,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며 사회적가치를 창
출하는 마을공동체 사례 소개

발행일 / 2024. 12.

발행처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발간등록번호 / 71-6410000-001222-01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호혜적 관계망에 기반한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의 경기도 마을공동체만들기

OBS 경인TV 1쪽

프로그램 : OBS 매거진 토크
방송시간 : 금요일 오후 5시 50분
작 가 : 김남희
현장 PD : 김진수 박수빈 하성주



OBS 라디오 218쪽

프로그램 : 오늘의 기후
(기후위기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
방송시간 : 오후 5시 ~ 7시30분
채 널 : FM 99.9MHZ
진 행 : 김희숙
작가/연출 : 허윤선 / 노광준

경인방송 라디오 367쪽

프로그램 : 언제나 좋은 날 채리입니다.
방송시간 :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채 널 : IFM 90.7MHZ
진 행 : 채리
취재기사: 이실아(아나운서)



OBS경인TV

OBS매거진톡톡, 금요일 18:00



매월 1회 현장의 마을공동체 목소리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누리는 편안한 삶터, 안전한 삶터, 평등한 삶터인 마을에서 일어나는 경제, 교육, 환경, 돌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필요의 활동을 담습니다.

매거진톡톡 OBS TV 마을콘텐츠 제공

경기지역 유일한 지상파 TV방송사 정보프로그램 '매거진톡톡'에 마을공동체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OBS 경인TV 01

프로그램 : OBS 매거진 토크
 방송시간 : 금요일 오후 5시 50분
 작 가 : 김남희
 현장 PD : 김진수 박수빈 하성주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광명, 시흥)	01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언즈와 작은연구	17
경기도 청년공동체 출범식	34
여주시 주록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54
포천시 영중 38선마을이야기	74
의정부시 아동돌봄공동체 ATM(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102
시흥시 달빛포구 마을학교	121
남양주시 에듀케어 인 수동	136
화성시 꿈길작은도서관	156
수원시 칠보산 자유공동체	177
여주시 국경없는 청소년교실	198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방송일시 : 2024. 3. 15.(금)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HFp_pkdhko

■ 인터뷰



김지유



박순만



김옥이



이인화



최효근



박미라



최진영



박현모



윤금화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해보겠다는 제안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제안 공모 사업 지금 만나볼까요?



▲ 인터뷰 / 김정순 동네주민



▲ 인터뷰 / 김옥이 동네주민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와 보시고 노인네들 지혜로운 솜씨도 좀 보시고 와서 이 전시회를 다 보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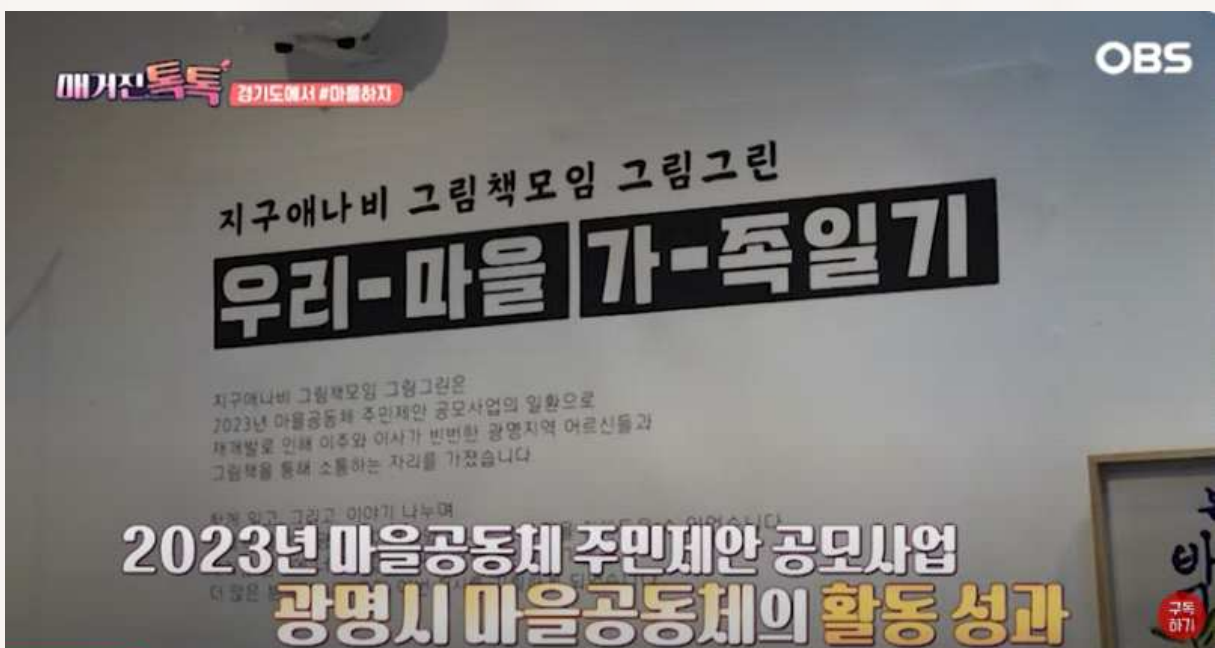
■ 내레이션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 반가운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초대를 받아 찾아간 곳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이곳에서 특별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주민제안 공모 사업에 참여한 광명시 마을공동체의 활동 성과를 만날 수 있다고요.



▲ 광명시 평생학습원 1층 전시실 ‘우리마을 가족일기 그림 전시’ (2024. 2. 15)





▲ 인터뷰 / 김지유 지구애나비 공동체 대표

광명 6동이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읽고, 아, 우리가 마을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까 하다가 마을 주민 제안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과 소통을 하면 좋을까 하는데, 광명이 지금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림책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다보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룹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죠.

■ 내레이션

지난해 6월 우리 마을 가족이라는 타이틀 아래 재개발로 인해 이주와 이사가 빈번한 광명 지역 어르신들과 그림책을 통해 소통하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남동생 나으라고 순만이라고 짓고.
 그래갖고 4남매인데 2남 2녀예요.
 이제, 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성공은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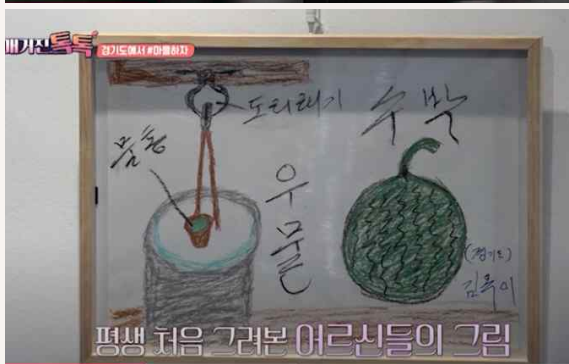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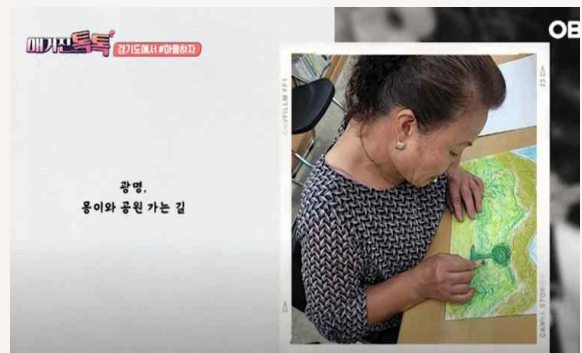


▲ 인터뷰 / 박순만 동네주민



■ 내레이션

어르신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미처 몰랐던 광명의 이야기와 빛나는 순간들을 알게 됐고,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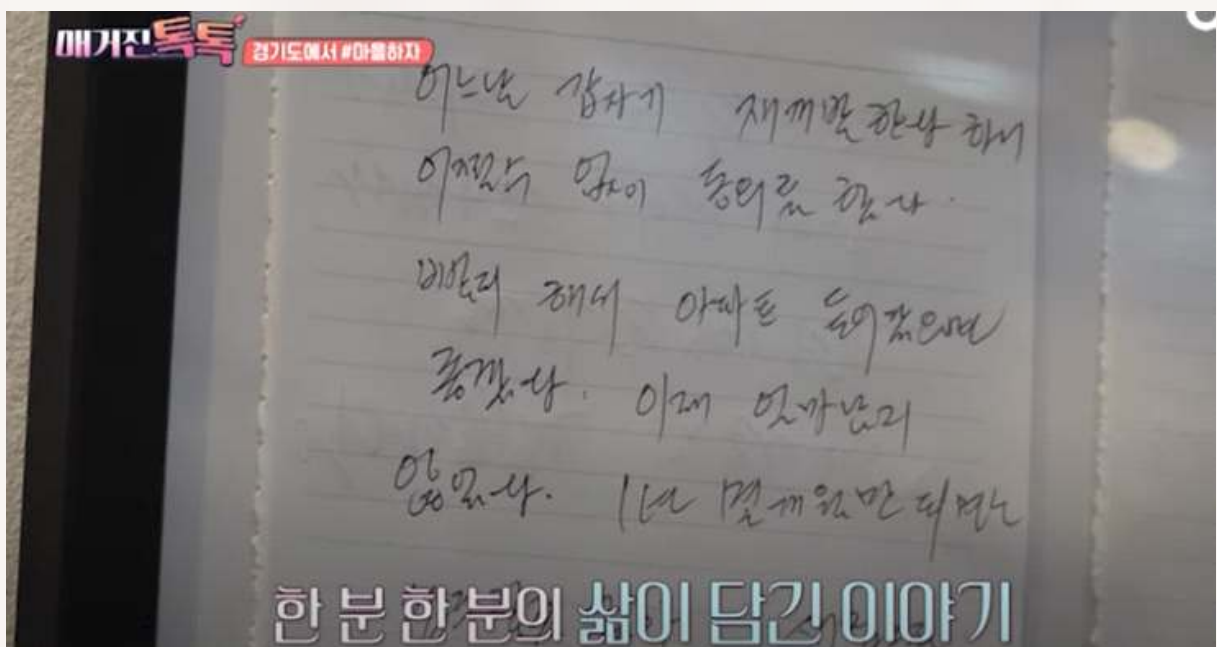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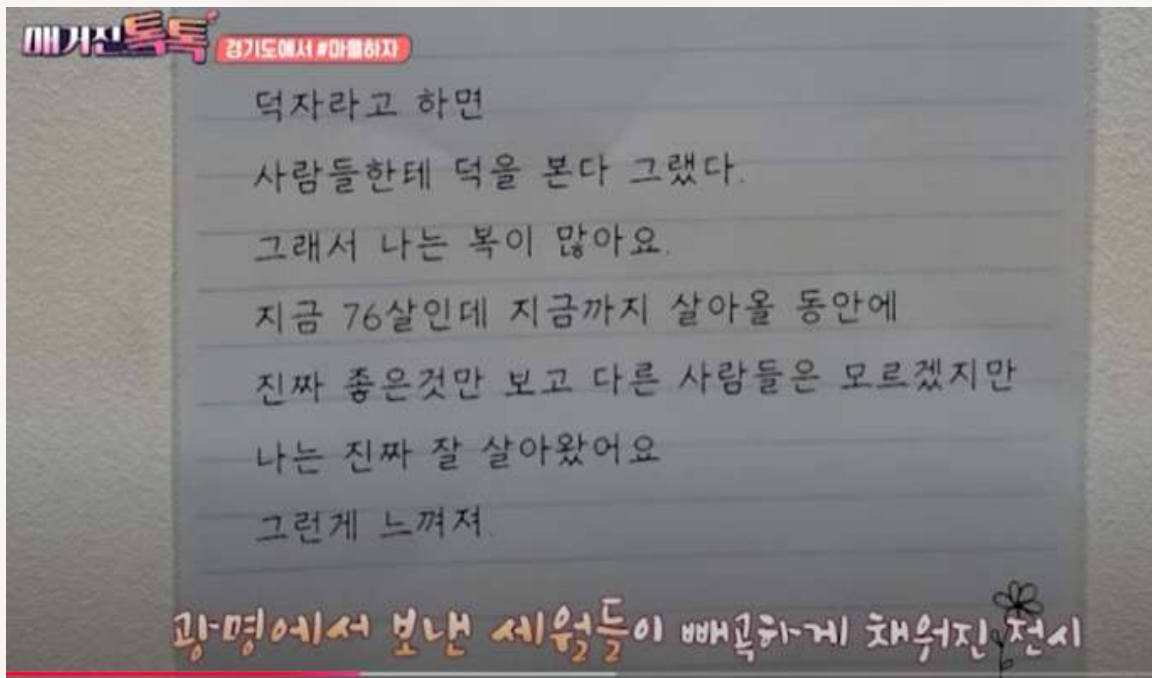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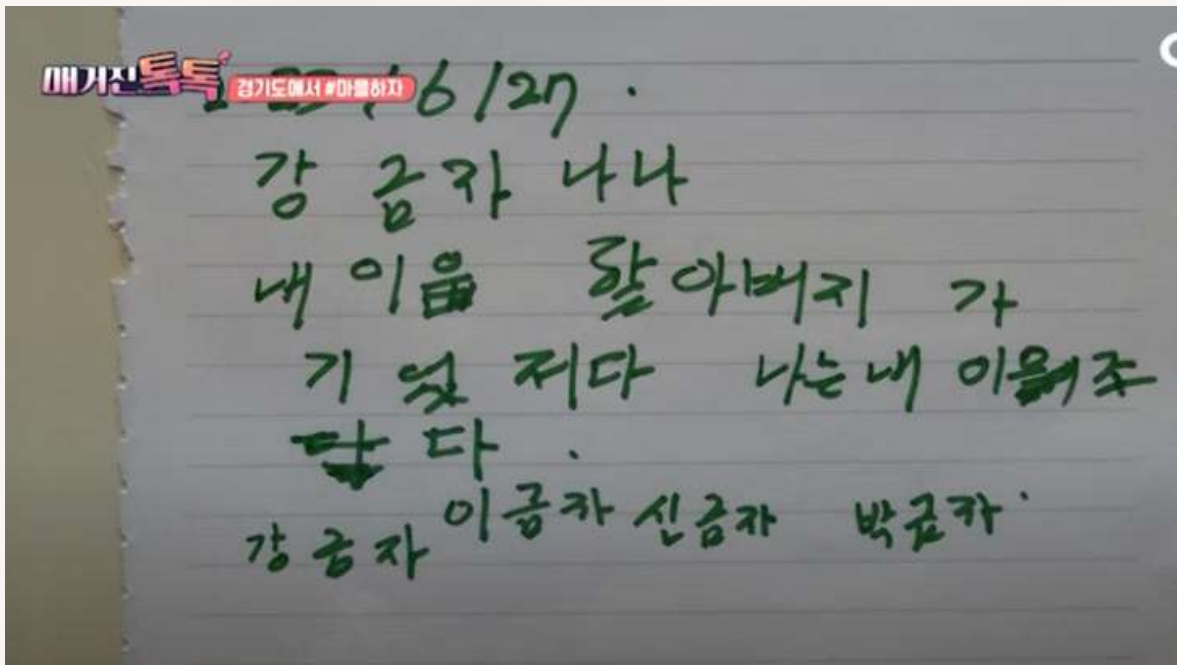
■ 내레이션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 없다는 어르신들의 작품이 맞나요?

진심이 담긴 그림에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내 이름부터 우리 집 우리 동네 풍경, 그리고 힘들었지만 가장 아름다웠을 유년 시절까지 광명동에서 보낸 어르신들의 세월이 그림과 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림을 못 그려요.
 대충 저희 동네 그냥 골목 보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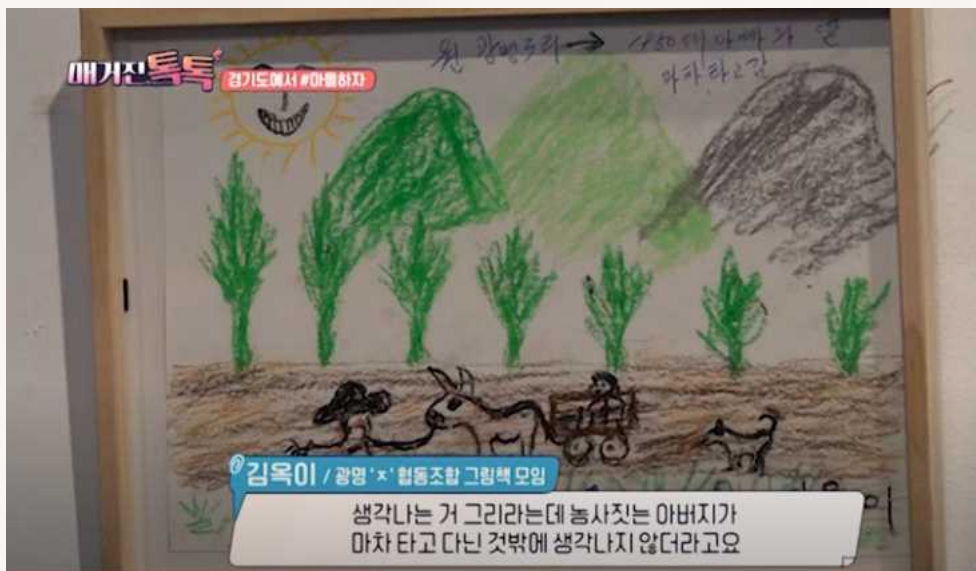
▲ 인터뷰 / 이인화 동네주민



제가 지금 81살이거든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컸어요.
 생각나는 거는 농사짓는 아버지 마차
 타고 다닌 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모자 쓰고 소
 몰고 다니시는 재밌던 거 제가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 인터뷰 / 김옥이 동네주민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저희 때는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요.
 딸은 옛날에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북카페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즐거워서 이제 다니고 그랬죠.

▲ 인터뷰 / 박순만 동네주민

■ 내레이션

어르신들의 삶과 광명의 지난 역사 이야기는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재개발로 인해 마을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요?

예쁘게 자기 글을 자기 이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쓰시면서 자기 얘기
 에 대한 것들을 쓰신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어머니 글씨, 그 대표적인 어머니 글씨 같은 게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생존해 계시다면 이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
 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 인터뷰 / 최효근 전시회 관람객

■ 내레이션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그림책 모임을 갖고 전시회까지 열게 된 광명시 마을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의 삶을 목표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또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구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지유)

작년에 사업은 끝이 났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만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에 오지 않는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확장하고 싶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희가 또 성장 단계에 지원을 할 거고요.

책의 형태 그러니까 정말 인쇄가 안 되면 전자책으로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에도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은 계속됩니다.

(화면전환)



▲ 시흥시청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2024. 2. 19)

◇ 박미라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의 사전 설명회입니다.

■ 내레이션

시흥시는 더 많은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최진영 주민

이제 시흥에서 거의 유일한 섬이었던, 그런 좀 동떨어진 지역에서, 저희는 관광지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 인터뷰 박현모 주민

저희가 지금 공간이 지금 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저희 지원을 받아서, 마을을 좀 형성해서 공유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내레이션

지난해 경기도 전역에서는 천 개가 넘는 마을 공동체가 활동했는데요.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마을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 사업설명회 진행자 박미라

마을 공동체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는 희망마을 공모 사업 공모 사업은 조금 어려워
그거는 제가 오늘, 일타강사처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희망마을 공모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 보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또 내 이름을 밝히기에 조금 어색하고 어쩔 때는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익명으로 받는 방법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하니깐요.

오늘은 아주 작은 거라도 소소한 거라도 함께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내레이션

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피고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제안하는 사업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손 맞잡고 지원하는 것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인 만큼 마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지와 응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 인터뷰 윤금화 주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
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
면 합니다.



◀ 인터뷰 / 최진영 주민



생각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에 의하면 너무 많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좋은점도 있고 스스로 정리해야 될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젠다를 설정하는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내레이션

수많은 생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듯한데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갈 수 있다니 벌써부터 설레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박미라 마을활동가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지만, 사람과 만나서 하는 재미난 일들을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조금 찾아보면 집 값이 올라도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팀끼리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뭔가 마을에서 이렇게 좀 더 다른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전해 보라고 얘기해 보고 도전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 보람이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고, 뭔가 더 뜻깊은 어떤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길이지만 그 길이 설렘을 안겨줄 수 있어 있겠구나,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인터뷰 / 김지유 지구애나비

그래서 도전해보길 응원합니다.

■ 내레이션

지금 행복한 마을에 살고 계시나요?

우리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민이 직접 마을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제안하는 일,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응원합니다.(끝)





반려동물 배변 안 치워 걱정이라면? '도미니'로 고민 해결하세요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3. 29.(금)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기록하였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XkTSJ5aq-E>

■ 인터뷰



한효주



박성진



최정순



황현숙



이승수



김새별



임혜희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
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사는 마을이
또 우리가 사는 경기도가
좀 더 나아지기를 고민해 본 적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마을에 필요한 정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함께 결정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 도미니입니다.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 도미니에는 어떤 마을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2월 25일 올해도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 도위 위에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활성화를 위한 2024 도미니언즈 워크숍(2024. 2. 25)



▲인터뷰 / 한효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도미니는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다른 지역은 어떤지 서로 공유하는데, 그것을 온라인에서 광장처럼 펼쳐 질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내레이션

대학 신인생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워크샵에 참석한 분들은 바로 도미니언즈입니다. 그런데 도미니언즈가 대체 뭐냐고요?

인터뷰 한효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도미니라고 하는 게 아까 마을 정책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책에 관한 얘기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도미니언즈라고 하는 도미니 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뽑았구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도미니언즈들이 올 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논의하는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내레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미니언들은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를 통해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미니의 마스코트입니다.

(도미니언즈 위촉장 수여 장면)

■ 내레이션

올해는 경기도 시군에서 40명의 마을 활동가들을 도미니언즈로 선발했는데요. 도미니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로서 온라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끌고 마을 활동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 인터뷰 / 인터뷰 박성진 도미니언즈

마을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을 규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마을 규약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었습니다.

(도미니 이용 경험은 있었나)
 사회적 경제 조직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규약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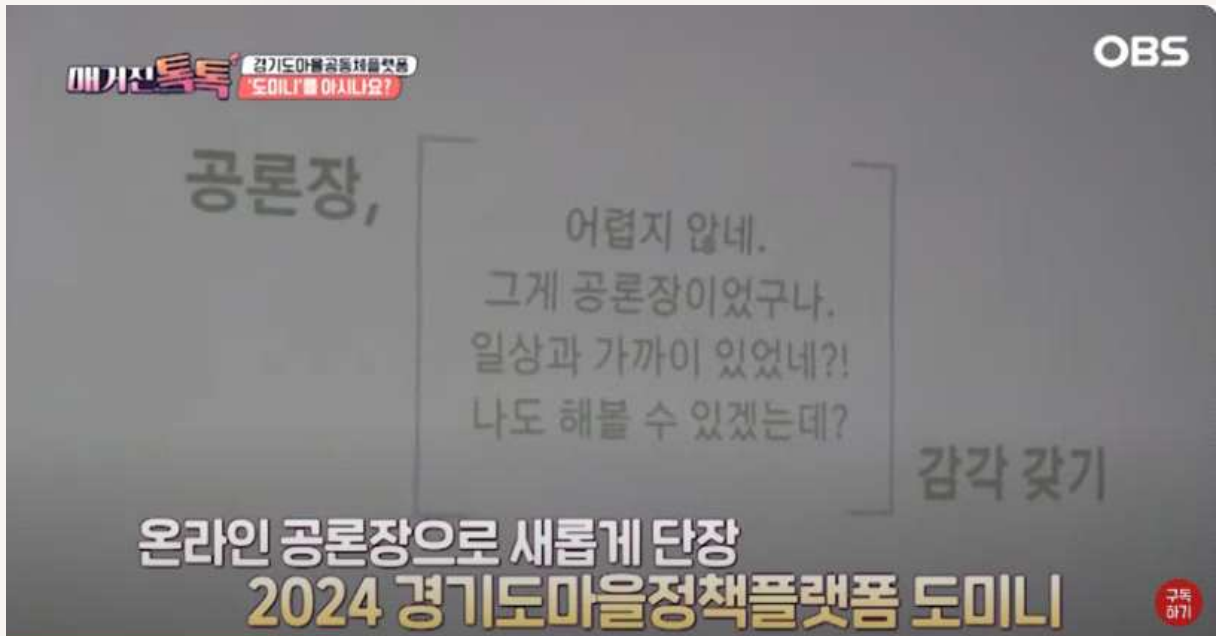
▲ 인터뷰 / 인터뷰 최정순 도미니언즈

근데 저희 마을에서는 인구가 3만 5천이나 되지만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공유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도미니에서)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상상은 무엇인가요)
 정책 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어서 이것을 해결을 해 보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정책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어요

■ 내레이션

올해는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가 더욱 새로워진다는데요. 바로 온라인 공론장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 워크숍 진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좀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협동조합과 함께 온라인 마을 공론장으로 만들어가는데요.

도민들이 의논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의제를 도미니에 게시하면 댓글, 공감, 온라인 토론장, 오프라인 토론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의 상상을 돕고 발전시키는 디지털 민주주의 공간이 탄생합니다.



▲ 인터뷰 / 황현숙 워크숍 진행자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좀 생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들과 도민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공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드는 것들을 좀 도미니에서 같이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공론장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우리 마을에는 어떤 의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지 자유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도미니언즈의 뜨거운 열정만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으로 도미니언즈가 뭐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군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모아서 이것이 경기도의 마을 공동
 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운 대로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 이승수 도미니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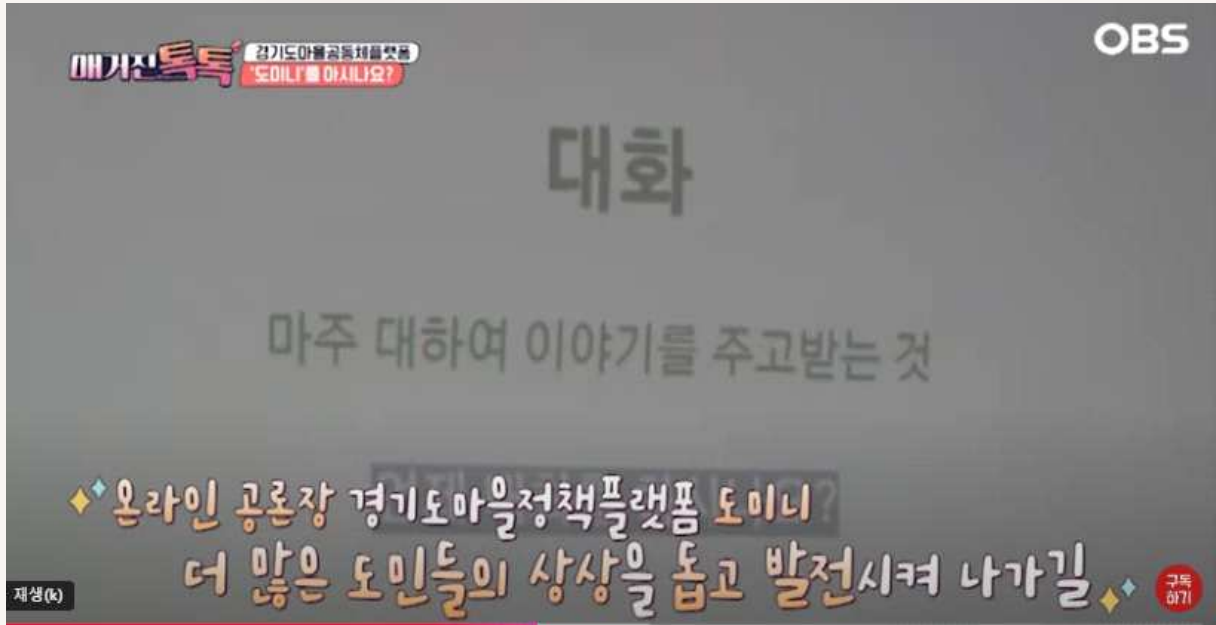
▲ 인터뷰 / 김삿별 도미니언즈

제가 작년부터 도미니언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는 다른 올해는 색다른 워크숍을 하는거 같고.. 이제 공론장에 관련된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사회생활에 나와서도 조금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공론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융화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 내레이션

온라인 공론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더 많은 도민들의 상상을 돕고 발전시키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도미니 안에는 삼삼오오, 정책상상, 작은 연구, 우리마을실험실 4개의 사업이 탑재되어 있고, 삼삼오오 사업의 경우는 사람 3명, 경기도민 3명 이상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정책상상은 앞에 논의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볼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 작은연구의 경우는 조금 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태가 무엇인지를 조금 연구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나온 실험의 결과를 한번 지역 안에서 직접 실행해 보는 게 우리마을실험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 한효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마을정책플랫폼 작은연구 사례로 화면 전환)



■ 내레이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젠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어딜 가나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교감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하죠.



(보리야) 아니야, 천천히



▲ 인터뷰 / 반려인 임혜희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6살 된 반려견을 기르는 반려인 임혜희입니다.

■ 내레이션

귀여운 반려견과 응원 산책을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잔뜩 챙겨오셨네요.



그러니까 팩과 함께하는 플로깅이죠.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배설물도 수거를 하고 좀 작은 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팩과 함께하는 플로깅을 팩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 내레이션

펫 플로깅의 필수 준비물은 친환경 봉투와 집게 그리고 물도 꼭 챙겨야 한다고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펫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대소변 모두 깨끗하게 처리하기 꼭 지켜야 할 펫티켓이죠.

이제 제가 반려인이다 보니까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요지가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뭔가 봤을 때 ‘산책 시에 치워지지 않는 그런 배설물’이었어요. 방치되고 있는 배설물로 인해서 비반려인들과 갈등도,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도 반려인이지만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 좋기도 해서 왜 반려인들이 이렇게 배설물을 잘 방치하고 치우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렇게 토양에 있는 배설물들이 이런 토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 연구 플랫폼에서 하는 그런 연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반려인 임혜희



■ 내레이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는데요.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보고자 찾은 곳이 바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플랫폼 ‘도미니’ 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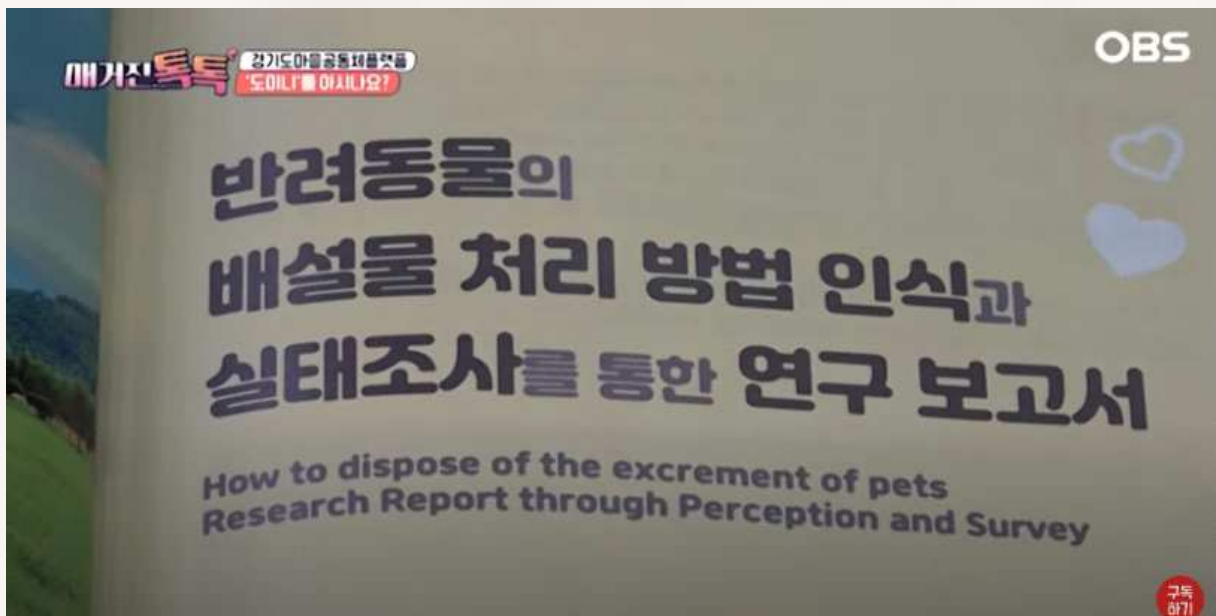
■ 내레이션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는 나의 삶과 마을의 문제를 공감하는 이웃들이 모여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상상해서 조사, 연구, 실험에 구체적인 정책 제안 또는 공공 서비스 제안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임혜희 씨는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려인의 교육을 통한 관리, 개물림 사고 예방, 유기견 감소를 통해 물리적 비용 손실을 절감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토미이의 작은 연구 제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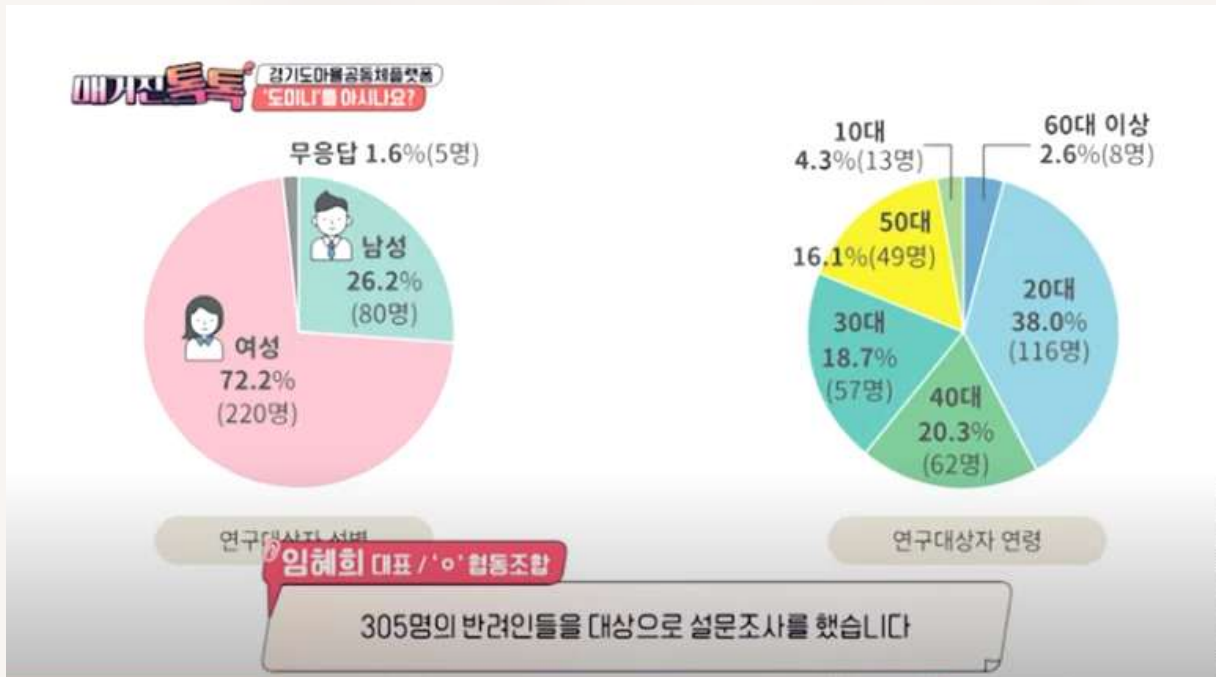


인터뷰 / 반려인 임혜희

이제 305명의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려인과 산책 시에 배설물을 잘 수거하십니까? 여쭙봤고 만약에 수거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봉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아니면 치우기 번거로워서 이렇게 치워지잖아 이런 배설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환경에 좋을 것이다, 토양에 퇴비가 돼서 (좋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배설물이나 소 배설물을 퇴비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 배설물도 그렇게 퇴비로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도 있었지만 반려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사료를 먹은 강아지의 배설물이 토양에 방치됐을 때는 굉장히 질산염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은 계속해서 오염이 될 것이고 비 오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먹는 또 식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를 제가 문헌 조사나 이런 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 내레이션

이렇게 작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연구를 토대로 지자체와 반려인들에게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임혜희)

반려견의 배설물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라는 이런 작은 책을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작은 책을 이제 냈고요.

환경보건학회 학술대회 제가 포스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반려견 배설물이 이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서도 흥미로워했고 이걸 통해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반려인들의 인식이 더 나아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나라의 펫 문화의 하나의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더욱더 봉사 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내레이션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던 문제를 실제로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소중한 경험 이라는데요.

(인터뷰 / 반려인 임혜희)

연구까지 제가 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마침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작은 연구 플랫폼에서 공모 사업에 있어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인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작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셨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제가 시간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 내레이션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와 함께한 작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행복한 마을에 살고 계시나요?

우리 마을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사는 마을을 우리가 사는 경기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상상 지금 시작해 볼까요? (끝)

"황혼이란 도전이죠" 청년들이 경기도로 모인 이유



"청춘이란 도전이죠"

청년들이 경기도로 모인 이유!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4. 26.(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MqZY404X9L4&t=26s>

■ 인터뷰



모래 오지은



커뮤니티 혼 이종현



청울림 신현정



행복방위대 박민욱



끼니봉사단 이지혜



청년농부사담 김소리



아리모리 양상블 김수민



춤추는인생 장효강



위드어스 협동조합 신유라



한국로컬청년협의회 최민서



북커넥트어스 문지현



청울림 전하리



보행공간 권지현



정다움클래식 정소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성장기회
경기도 청년공동체**

■ 내레이션

지난 13일 경기도민의 소통과 만남의 공간 ‘도담소’에서 2024년 청년공동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 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청년공동체 25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
▶ 청년활동가 양성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
▶ 청년활동가 양성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
▶ 청년활동가 양성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
▶ 청년활동가 양성



저희는 경기도 안산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 인터뷰 / 오지은 안산청년공동체 모래



저희는 '커뮤니티 혼'이라는 공동체이고 영화나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오산 지역 내 커뮤니티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현 오산청년공동체 커뮤니티 혼



저희는 경기도 양평 청운면에서 귀농한 친구들과 지역 거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합니다.

◀ 인터뷰 / 신현정 양평청년공동체 청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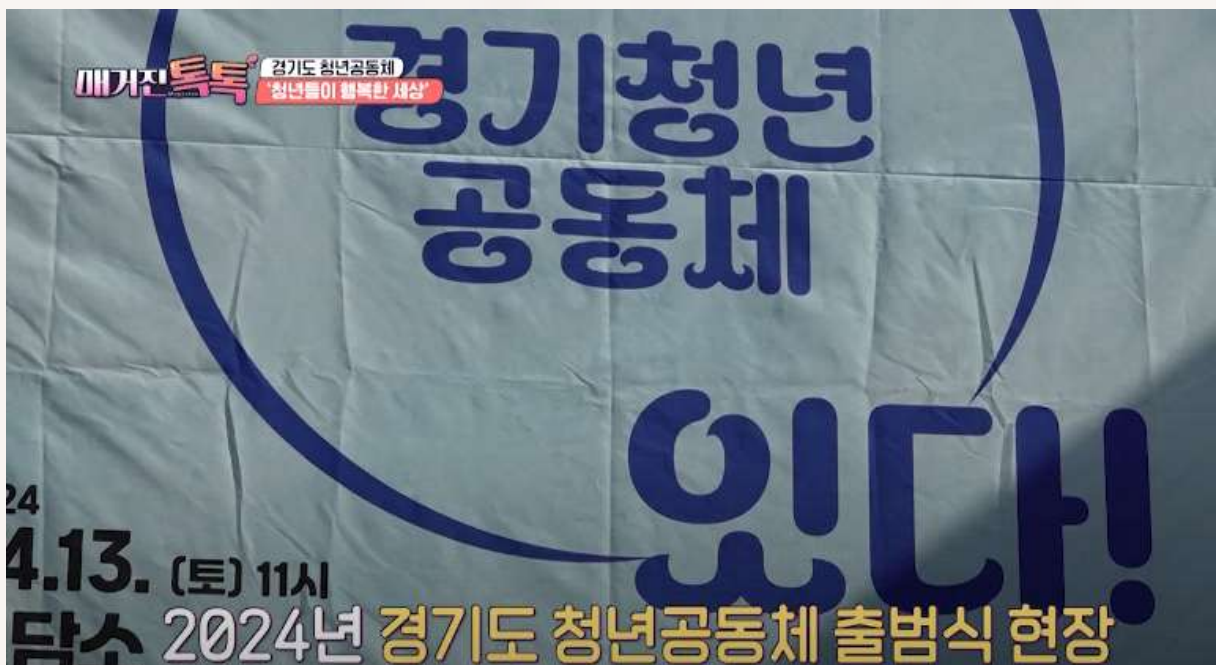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복방위대라고 하고요.
 1년 전부터 버스킹 활동을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음악으로 행복을
 나눠주는 단체입니다.

▲ 인터뷰 / 박민욱 의왕청년공동체 행복방위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시에서 온 끼니봉사단
 입니다.
 평택시에 있는 소외계층 이웃분들
 에게 요리를 선사해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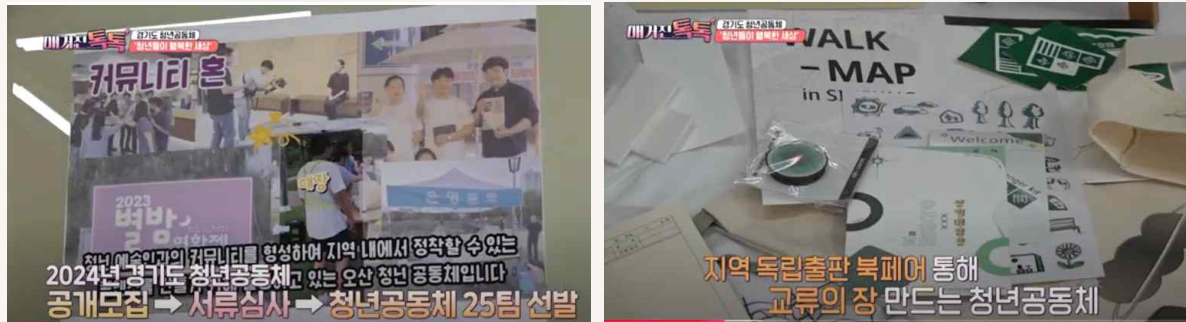
▲ 인터뷰 / 이지혜 평택청년공동체 끼니봉사단



■ 내레이션

지난 1월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를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 25팀이 선발됐는데요.

청년공동체들은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출범식 행사에 앞서 17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청년공동체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니트족 청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자립을 돕는 청년공동체,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춤을 알려주며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청년공동체,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지역 창작자와 주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청년공동체. 그런데 눈길을 사로잡는 먹음직스러운 딸기와 농산물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성시에 있는 청년 농부들이 모인 사담입니다. 사담은 사계절을 담다의 줄임말로 안성시에 있는 농산물의 사계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청년 단체입니다.

저희가 사계절을 담은 장터를 처음 열었어요. 그 사계절을 담은 장터를 올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컨셉으로

▲ 인터뷰 / 김소리 안성청년공동체 청년농부사담
4번 진행하고, 저희의 농장을 체험 시키고 있는데 성공리에 끝내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 내레이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공동체.

2024년 출범식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공동체로 활동한 퓨전 국악그룹 아리모리양상블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리모리양상블은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동가와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지역민들과 색다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조금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분들이랑 많이 네트워킹 하면서 정보를 알아가는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열심히 참여하시라. 꿀팁은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아리모리양상블



◇행사 진행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년공동체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은 ‘경기청년공동체 있다! 있다!’입니다.

청년공동체를 알리는 ‘있다!’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의미의 ‘있다!’의 콘셉트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모인 우리 청년공동체,
 팀별 미션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미션 봉투 안에는 ‘있다’와 ‘잇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자의 미션봉투와 랜덤박스의 재료로 종이 테이블을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인 ‘있다’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는 버스킹이 있다! 라고 했을때 버스킹을 테이블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인 ‘잇다’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는 무대와 객석을 잇다 라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을 테이블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 내레이션

경기도 청년공동체들의 첫 만남의 자리,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소개하는 종이 테이블 꾸미기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10분. 과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까요?



▲ 인터뷰 / 이지혜 평택청년공동체 끼니봉사단

‘우리 공동체는 ○○○이 있다’ 미션 카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끼니봉사단이라서 요리를 표현해보고 싶으나 멤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인터뷰 / 박민욱 의왕청년공동체 행복방위대

저희 컨셉트는 B급 감성입니다.
오늘은 B급도 아니고 C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연할 때 놀러 오세요라는 멘트를 넣고 싶고요.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고 C급 감성으로 한번 잘 구현해 보겠습니다.

■ 내레이션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되는데요. 뭔가 막막해 보이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에 든 건 색종이와 풀이니 일단 컬러풀하게 색종이를 붙여보는데요.



저희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깔들이 이어져서 연결됨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여서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장효강 하남청년공동체 춤추는인생



종이테이블에 펼쳐보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

■ 내레이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큼 자신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인터뷰 신유라 화성청년공동체 워드어스 협동조합)

강아지 같나요? 우리 공동체는 청년과 반려 문화를 잇다를 표현해봤습니다. 지금 몇 개는 안 되지만 경기도의 각 시를 연결해서 반려문화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 내레이션

지금부터 팀별 31초 뽑내기 타임!!! 스타트!!!

(발표 / 문지현 성남청년공동체 북커넥트어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력 보유 여성으로서 독서 동아리를 비롯해 시작한 '북커넥트어스' 입니다. 저희는 '책으로 청년과 세상을 잇다' 라는 모토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표현한 방식인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 박종석 이천청년공동체 이청춘)

저희는 이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청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동물들처럼 각자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는 저희 공동체에는 너의 자리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you“를 가운데 넣었습니다.



■ 내레이션

경기도 청년공동체는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교류·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다문화 1인 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 지역으로의 청년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첫 번째 프로젝트로 화성시의 발안만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의 움직임을 많이 이동시켜서 부응시키고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인사/최민서 화성청년공동체 한국로컬청년연합회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 문지현 성남청년공동체 북카넥트어스





■ 내레이션

청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활발한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다짐하면서 접시 가득 음식을 담는데요.

많이 먹고 힘내세요.

청년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동체 간의 교류와 협력인 만큼 다양한 청년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 전하리 양평청년공동체 청울림

저희는 청년 농부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되게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서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SNS 상에서 알고 있었던 남양주 소소라는 청년공동체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어떤 활동으로 사업을 신청 하였고 어떻게 단체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이야기 나누면서 협업할 방법을 여쭙봤습니다.



▲인터뷰 / 관지현 시흥청년공동체 보행공간

일단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더 많이 활력도 되고 자극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같이 모여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 정소희 용인청년공동체 정다움클래식

■ 내레이션

오늘 모인 25팀의 경기도 청년공동체들이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청춘이란?)

청춘이란 도전이 아닐까요?



▲ 인터뷰 / 박종석 이천청년공동체 이청춘

청춘이란 끊임없이 시도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실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신현정 양평청년공동체 청울림

청춘이란 내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지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게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인터뷰 / 장효강 하남청년공동체 춤추는인생

청춘은 이 순간이다



▲ 인터뷰 / 이현호 평택청년공동체 청아

청춘이란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른다

청춘에 대해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돌아보면 청춘이었구나라고 조금 조금씩 와닿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가치들이 좀 더 재미있게 보일 것 같네요



■ 내레이션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 더 옹근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이루어내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끝)

참여한 2024년 경기청년공동체

연번	시군명	청년공동체명	분야	활동내용
1	고양시	슬론(SLON)	느린학습자	느린학습자 대상 특화 상품 개발 및 런칭 페스티벌
2	고양시	소리피움	문화공연	음악, 사진 콘텐츠 매개 문화예술공연
3	남양주시	소소	로컬투어	동네 투어 프로그램, 후기집 제작
4	남양주시	행하자청년공동체	청년 자립	청년 삶담소, 지역활동, 전시 및 발표회
5	동두천시	옥탑방 청년들	댄스	지역 댄스대회 개최, 영상 제작 등
6	성남시	북커넥트어스	독서	경력보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독서 동아리
7	수원시	수원 청년공동체 '함께'	청년 참여	청년 리더십 배양 교육, 도시락 나눔, 광고호수 및 광고산 정화
8	수원시	열림협동조합	여행	로컬 및 ESG 여행, 청년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소개집 제작 등
9	수원시	드림머스 사회적협동조합	심리, 독서	심리학 기반 취미 모임, 프로그램, 웹진 발간 등
10	시흥시	보행공간	독립출판	지역 독립출판 북페어 개최 및 교류의 장 마련
11	안산시	모래	문화기획	독서모임, 북토크, 문화예술인 네트워킹 등
12	안성시	청년농부 사담	청년 농부	청년농업인 모임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13	양주시	청년망고협동조합	문화기획	청년 예술인 네트워킹, 문화행사 등
14	양평군	청울림	인구소멸 대응	농가체험 및 견학,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15	오산시	커뮤니티 혼	문화기획	지역 커뮤니티 홍보,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 등
16	용인시	기흥 청년 연합회	청년 참여	성 정체성 교육, 청년 리더십, 도시락 나눔
17	용인시	정다움클래식	음악	공연 개최, 클래식 원데이 클래스
18	용인시	협동조합 운김	여성, 가족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19	의왕시	행복방위대	네트워크	버스킹 홍보, 청년 네트워킹 모임, 소셜 다이닝 등
20	이천시	이청춘	창업	창업 교육, 창업 네트워크 활동 등
21	평택시	끼니봉사단	요리	요리 및 식사 프로그램, 음식 기부
22	평택시	청아	네트워크	청년운동회, 청년포차 등
23	하남시	춤추는 인생	댄스	댄스, 글쓰기 워크숍, 전시회 등
24	화성시	위드어스협동조합	반려동물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한 반려문화 콘텐츠 운영
25	화성시	한국로컬청년협의회	로컬 창업	로컬 지원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육성

▲ 출처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gg/join/youth-community.do>

여주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K트로트와 신명나는 난타복소리?



여주시 산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K트로트와 신명나는 난타복소리?!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5. 24.(금)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sbS_z9jn0E&t=8s

■ 인터뷰



이혜옥



심재식



홍순애



우윤숙



정선순



이태숙



이경옥



함인성



권지현



민혁기



신남군



이지영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함께 돌보고 신명나게 즐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 내레이션

여주에서도 30분은 족히 들어가는 금사면 주록리.

주록리는 원적산으로 둘러싸인 험한 산골 마을입니다.

사슴이 마을을 달렸던 곳이라는 뜻의 주록리에 아름다운 마당을 품은 공간이 있는데요.

시니어 공유 공간인 노루목 향기입니다. 향긋한 봄꽃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처럼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노루목 향기로 모여드는데요.

잔치라도 열리는 모양인가 했더니 난데없이 커다란 북이 등장합니다.





■ 내레이션

순식간에 우와 열을 맞추는 난타북. 대체 뭐 하는 분들이신가요?



▲ 인터뷰 / 이혜옥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네
여기는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마을에서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난타~
신나는 난타북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난타, 우리가 이것을 한 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 내레이션

무려 10년 경력의 난타북 동호회의 실력 직접 확인해 볼까요?



■ 내레이션

K트로트와 난타북의 환상적인 만남, 흥겨운 트로트에 어르신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흥이 더해져 신명나는 난타 공연이 펼쳐집니다.



▲ 김진옥 동네주민

엄청 재미있어요.

저는 여기 살기 때문에
맨날 맨날 구경해요.

요번이 처음이 아니예요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 김정순 동네주민

■ 내레이션

으리으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룩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보시는 것처럼 주룩리 팬 클럽은 이미 인원 초과고요.

이제 여주시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랍니다.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에서 어떤 거를 맞고 계세요?>

나는 뭐 그냥,
허접구리?
분위기맨이라네!!
그냥 뭐랄까~ 좀 주책스럽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게
아무것도 안해도, 저렇게 웃었잖아
저런거



▲ 인터뷰 / 심재식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지화자 두드림 총무예요
나 이제 막내 지금 탈출했어.
이제 둘이나 생겼어
(우리가 활동한지) 거의 9년 만에
처음 들어온거야.

▲ 인터뷰 / 홍순애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저는 이번에 처음 가입했어요.
(어떠세요? 오시니까)
너무 좋죠.
주민들이 어울려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
나 선후배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신나게, 재미나게 노니까,
(난타북을)치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가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우윤숙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아직 이제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잘 할 줄은 모르고
 오늘은 회원들 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윤숙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저는 농약은 오래했는데
 난타는 작년부터 처음 했거든요.
 근데 언니들하고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고요. 시간도 잘 가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선순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이 분이 우리 난타를 하게 한
 주인공이야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거 난타
 없었어요.
 주인공이야



▲ 인터뷰 / 심재식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인터뷰 / 이태숙 주록리지화자두드림 동호회

(주인공은) 아니에요.

(저의) 동생이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난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저 대장님이 놀자 해가지고서
 (2016년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 공간조성) 보조 받아서
 회관도 다시 단장해서
 멋진 음향 기기 다 갖춰서
 처음에는 석유난로 피워놓고
 우리(동호회) 너무 가난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부자 됐죠.





■ 내레이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노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처음에는 농한기에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지만 함께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고민 하다 풍물과 난타를 배워보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공동체 활동이 벌써 10년, 많은 게 달라졌겠죠.



나이가 달라졌지

내가 60대였는데, 지금 72살이야.
 지금은 연습을 안 해도 이렇게 어느 날
 무슨 공연이 딱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금방 제자리에 찾
 아 간다는 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달라진거지
 이렇게 연륜이 쌓였다고 볼 수 있지



▲ 인터뷰 / 심재식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 인터뷰 / 홍순애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외지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고
친화력이 많이 생겨서
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 내레이션

마을에서 그저 여가를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엿한 난타 공연팀으로 이곳저곳에서 초대를 받는다는데요.

전국 마을 대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3월에는 목포에서 했고 4월에는 해남에서 했고 5월에는 여기 경기도 여주 예요 여주 노루목 향기에서 대화 모임을 전국 마을 활동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동아리가 거기서 축하 공연을 합니다.



▲ 이혜옥 주록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대표



■ 내레이션

지난 5월 10일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이 열리는 여주시 금사면 주룩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역별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전국의 마을 만들기 주체 간의 연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대화 모임인데요.

이번 모임은 노루목 향기의 푸르른 마당에서 열리는 만큼 손님들 맛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룩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어르신들은 난타 연습보다 음식 준비에 더 열심인데요.

점심은

상추로 쌈밥을 준비했어요.

저녁은 육계장으로 하고.

메뉴가 (점심,저녁이) 다릅니다.

-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드시니까. (웃음)



▲ 인터뷰 / 이태숙 주룩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공연 준비는 잘 하셨어요?
 공연 준비는
 기본입니다.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식 주룩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그냥 그냥 재밌게 재밌게,
 하는거야
 안 틀리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재미나게
 그냥 두드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 인터뷰 / 이경옥
 주룩리지화자두드림동호회



▲ 인터뷰 / 이혜옥 주룩리
 지화자두드림동호회 대표

날씨도 좋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보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외에서.
 그래서 아마 다들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되세요?)

젊은 청춘~!
 젊은 청춘 컨셉입니다.

- 청바지에 흰티, 잘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 내레이션

더 없이 좋은 날씨인 눈부시게 푸르른 5월 더 없이 좋은 장소인 여주시 시니어 공유공간 노루목 향기,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함인성 의정부마을넷 대표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의정부 마을만들기 대표 함인성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네트워킹 하는 단체입니다. 각 각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대해서 서로 서로 네트워킹해서 서로 좀 힘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뭉쳐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권지현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대구에서 왔어요.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지금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요. 대구 전역에서 공동체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맡아서 하
 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혁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예 저는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인천에도 마을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민 공동체나 주민 모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입니다.

■ 내레이션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룩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난타 공연



■ 내레이션

마을 만들기에 진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 ‘주록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의 난타로 하나가 됐는데요.

이렇게 신명나는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 좋겠죠.

그래서 더 큰 무대로 향합니다.

1년에 한 번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만나는 바로 그곳 ‘2024 경기 마을 주간’ 수상한 마을이 온다.





▲ 인터뷰 /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경기마을주간은 이 마을 주간은 6월 27일, 28일, 29일로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27일, 28일은 각종 포럼들 이슈들을 다루는 포럼으로 진행되고요. 29일은 마을 활동가들이 전체 모여서 명랑운동회처럼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열정적인 난타 공연을 마친 이해옥 대장님, 이번엔 특별한 챌린지를 선보이시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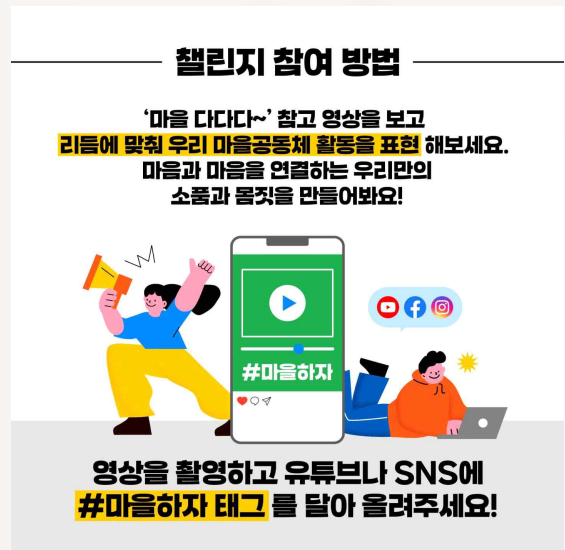




▲ 인터뷰 / 이지영 용인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활동가분들의 활동을 포함한 챌린지 영상을 찍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 다하자 '다다다'를 촬영을 해서 캠페인을 하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마을 주간에서 함께 오셔서 같이 동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노래 가사



가치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다다
기회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다다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이지, 다다다
모이면 가능해 무슨 일이든, 다다다

살피고 찾아가서 인사해, 다다다
어울리고 오가며 나눈다면, 다다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다다다
다 같이 마을하자 가능해'

너도 #마을하자 우리가 주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하자
다 같이 마을 다 모여 하자
우리 다 함께 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다다, 다다다,

다 할 수 있어, 다다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다 함께 #마을하자, 다다다, 다다다





역사문화유산을 잇는다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역사와문화를 잇는다 '영중 38선이야기마을' 공동체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6. 21.(금)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zNIRBoTgQr8&t=26s>

■ 인터뷰

<p>신유호 38로드마켓 참가자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나오셨어요?) 채소 가지고 나왔어요</p>	<p>손현미 38로드마켓 참가자 저희 38마켓은 농수산물도 그렇고 직접 재배한 게 많아서 오시면</p>	<p>유재춘 38로드마켓 대표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깐 다들 시골에서 일만 하고 하는 문화가 없었어요</p>
<p>박신혜 38로드마켓 참가자 이런 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p>	<p>정수경 대표 /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저희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는 영중면 주민자치회 위원들로 처음에 구성이 됐어요</p>	<p>33년생이니까</p>
<p>박민영 포천시 영중면 영중면의 자랑은 별사를 많이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흥겨운 동네랍니다</p>	<p>조형옥 포천시 영중면 협동이 잘 돼요 뭐라도 한다고 하면 다 잘 모이고 협조를 잘 해주세요</p>	<p>김민서 포천시 영중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거 같아요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p>
<p>박민영</p>	<p>조형옥</p>	<p>김민서</p>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역사와 문화를 잇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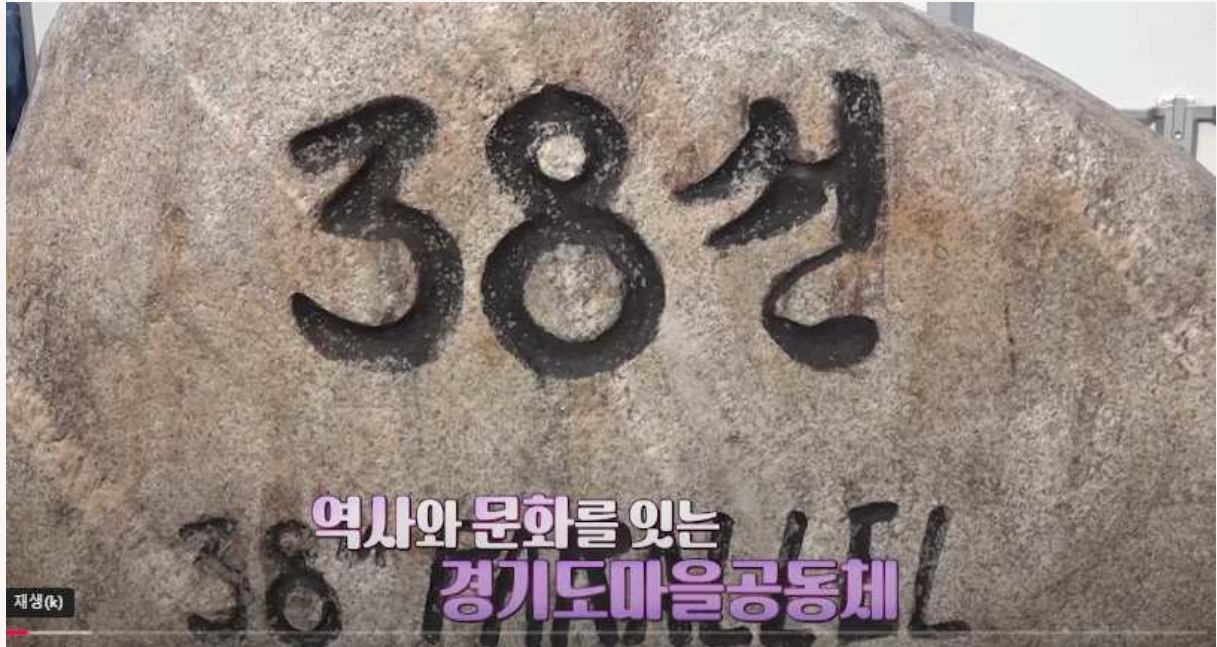


■ 내레이션

오늘 마을 공동체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포천시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포천시의 중심 영증면은 해방 이후 남북을 나누는 38선이 지나던 곳입니다.





추억의 38선 휴게소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여전히 강원도 철원 지역을 여행하는 방문객들이 들러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이곳이 떠들썩해지는데요.

영종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38로드마켓'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출출할 시간 휴게소에 들러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먹거리부터 마을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과 직접 재배한 다양한 농산물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시골 장터입니다.

-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채소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 요거,
이것은 어저께 작업해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심은 거예요.



▲ 인터뷰 / / 신유호 38로드마켓 주민



저희 여기 3.8로드마켓은 농수산물도 그렇고 또 직접 재배해서 갖고 오시는 것도 많아서 오시면 신선하고 좋은 물건들이나 좋은 가방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 인터뷰 / 손현미 38로드마켓 주민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다들 시골에서 일들만 하고 이런 쉬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마켓도 열고 또 공연도 좀 보고, 하루 즐기자라는 개념으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 / 유재춘 38로드마켓 주민



■ 내레이션

3년 전에 처음 문을 연 38 로드마켓은 잠깐 쉬어갈 겸 삼팔선 휴게소에 들른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 내레이션

38 로드마켓의 아티스트 레진아트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정말 물고기가 살아 헤엄치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네요.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작품들
인데요. 늙어서 일꺼리를 찾다 보니까
레진아트를 찾게 되었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안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물고기예요

▲ 인터뷰 / 박신혜 38로드마켓 주민

■ 내레이션

영업이 중단되면서 폐허가 된 38선 휴게소는 38 로드마켓이 열리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
고 있습니다.



5000원 주고 내가 샀어요

보리수 예요

▲ 양세하, 박정순 / 38로드마켓 관광객





▲ 인터뷰 / 박신혜 38로드마켓 주민

아무래도 여기는 38선 분계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념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을 따지기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삶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재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켓도 열고 역사적인 취지도 조금씩 둘러보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 흐름에 그 중심에 우리가 좀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내레이션

평화로 여는 38 로드마켓은 38선 휴게소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8선 이야기를 품고 있는 포천시 영중면 영중 삼팔선 이야기 마을공동체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 인터뷰 / 정수경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저희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는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최초로 구성이 됐어요.

영중면이 '지나가는 마을이 아닌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아주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줍기, 꽃 심기, 그다음에는 마을 안내, 마을 유래를 알 수 있는 안내판으로 해서 3년 차 지원을 다 마무리하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중면을 살기 좋은 마을로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영중 삼팔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는 임진강 38선 역사 체험길 알리기에에도 열심히데요. 포천시 영중면에 오시면 꼭 한 번 걸어보아야 하는 길입니다.





▲ 인터뷰 / 정수경 영동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저희 임진강 삼팔선 역사 체험길은 창수면 옥병교에서 일동까지 이어지는 한 17Km에 달하는 코스예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 관광객 이 걸기 좋은 코스는 여기 38선 휴게소에서 사은교까지 되는 한 1Km 남짓 되는 거리고요.

왕복 30분 안에는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요. 그래서 그 구간에는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예쁜 꽃도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38선의 역사를 느끼시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내레이션

38선이라는 접경 지역이 갖는 문화적 상징성과 영평천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 체험의 장, 임진강 38선 역사 체험길 함께 살펴보실까요?



■ 내레이션

산책로가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역사 체험길.

하지만 역사 체험길 곳곳에는 38선이 있었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수경 영종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이것이 여기 38선 역사 체험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존을 하고 영평천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가 중요한 이제 요새가 됐던 거죠.



■ 내레이션

철모 조형물을 비롯해 6.25 전쟁 당시 이곳이 얼마나 경전지였는지 보여주는 기록물도 전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 정수경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임진강 38선 역사 체험길은 코스코스 마다 이런 조형물도 있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해 놓은 그런 또 내용들이 있어요.

사진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읽어보면서 자녀와 같이 부담 없이 걷기에 좋은 코스 인 것 같아요.

■ 내레이션

임진강 삼팔선 역사 체험길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걷기 좋은 길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역사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영종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곳이 또 있는데요.

38정이라고도 불리는 38선 휴게소 전망대 오각정입니다.



◀ 인터뷰 / 정수경 영종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네 여기는 38정이라고 하고, 1978년에 건립된 공간인데요.

이 곳이 영평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종면에 지도를 한눈에 그려놓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벽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이제 리빙랩 사업으로 주민자치회하고 공동체랑 그래서 역사 사진을 발굴을 해서 모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추억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38선 휴게소가 한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돼 있고 군인들이 휴가 가거나 일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저 공간이 굉장히 유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휴게소가 폐관이 되면서 방치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심을 했어요. 영중면에 이 공간은 거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도 너무 아끼는 장소고, 또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이 공간이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보자 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하였고, 또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좀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포천 38선 휴게소. 이곳에는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석환 6.25 전쟁 참전용사

연세는 33년생이니까 한 90 쯤 넘었다.

내가 옆에 가서 보니까 저번에 왔었는데 아주 버신 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잘 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6.25 참전으로서의 또 책임자로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우리 기념비, 6.25 참전 와서 한번 쓱 돌아봐. 그럼 돌아보는데 지저분하면 안되잖아,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 내레이션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사는 어르신, 하지만 역사를 잊지 않고 38선 이야기를 품은 마을을 잘 가꿔 나가는 주민들이 그저 고맙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정수경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 공동체 대표

영중 38선 마을은 역사적인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과거의 어두운 면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좀 희망차고 밝은 그런 이미지의 영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또 자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을 관리 협동조합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중면의 자랑

봉사를 많이 하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행복한 동네입니다.



▲ 인터뷰 / 박민영 영중면 주민



▲ 인터뷰 / 조형욱 영중면 주민

협동이 잘 돼요.

뭐 한다 그러면

다 잘 모이고 잘해주셔요

함께하는 즐거움
 여기 나오면 제가 젊어집니다.
 함께해 주기 때문에



▲ 인터뷰 / 박신혜 38로드마켓 주인

그냥 사람들 너무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 인터뷰 / 김민서 38로드마켓 주인



▲ 인터뷰 / 김민서 38로드마켓 주인

저희가 뭔가 하고자 하면은 단합도 잘 되고
 아이디어도 좋고
 또 모이는 것도 잘하고
 열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석자 1

■ 내레이션

38 로드마켓이 끝나갈 무렵 영중 38선 이야기 마을을 놀라게 할 아주 수상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1년에 한 번 경기도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만나는 경기 마을 주간이 시작됩니다.





▲ 인터뷰 /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이번 경기 마을 주간은 ‘수상한 마을’과 ‘놀러와 명랑운동회’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마을은 놀라워’를 어떻게 담을까 하다가 ‘마을은 놀라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 내레이션

마을은 놀라워, 2024 경기 마을 주간을 즐기는 방법
다다다 챌린지, 다 같이 해보실까요?



가치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 다 다





기회를 만드는 마을이지 다 다 다



누구나 함께하는 마을이지, 다 다 다



모이면 가능해 무슨 일든 다 다 다



살피고 찾아가서 인사해 다, 다, 다



어울리고 오가며 나눈다면 다 다 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다 다 다



다 같이 마을하자 가능해



너도 마을하자, 우리가 주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하자 다 다 다





지금 이순간을 소중하게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공동체



지금 이순간을 소중하게!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공동체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7. 19.(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VCF9wOZ3xY>



이웃과 소통·마을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행복한 삶터



이웃과 소통·마을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행복한 삶터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세상엔 하나뿐인 키링

■ 인터뷰



유한나



김승민



계리나



이지아



최연재



이소현



홍수현



이주원



이민주 돌봄강사



한진희 돌봄강사



문송이 학부모



박하린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 내레이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 주거타운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공간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돌봄공동체는 'At The Moment(ATM)' 고 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엄마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ATM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현금 인출기를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한나 ATM(At The Moment) 대표

2020년도에 지금 사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었기도 했고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돌봄이 포화 상태였어요.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었어요. 다들 학원으로만 보내야 되는데 사실 학원도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우연히 그때 경기도에서 돌봄 공동체를 모집한다는 광고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머리를 싸매고 '우리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 인터뷰 / 유한나 ATM(At The Moment) 대표

■ 내레이션

돌봄 공간 조성 지원을 받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등, 엄마 아빠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만든 공간인데요.

아이들에게 엄마 품처럼 푸근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 여기오면 어떻게 좋아요?

간식 먹어서 좋아요



▲ 인터뷰 / 김승민



▲ 인터뷰 / 계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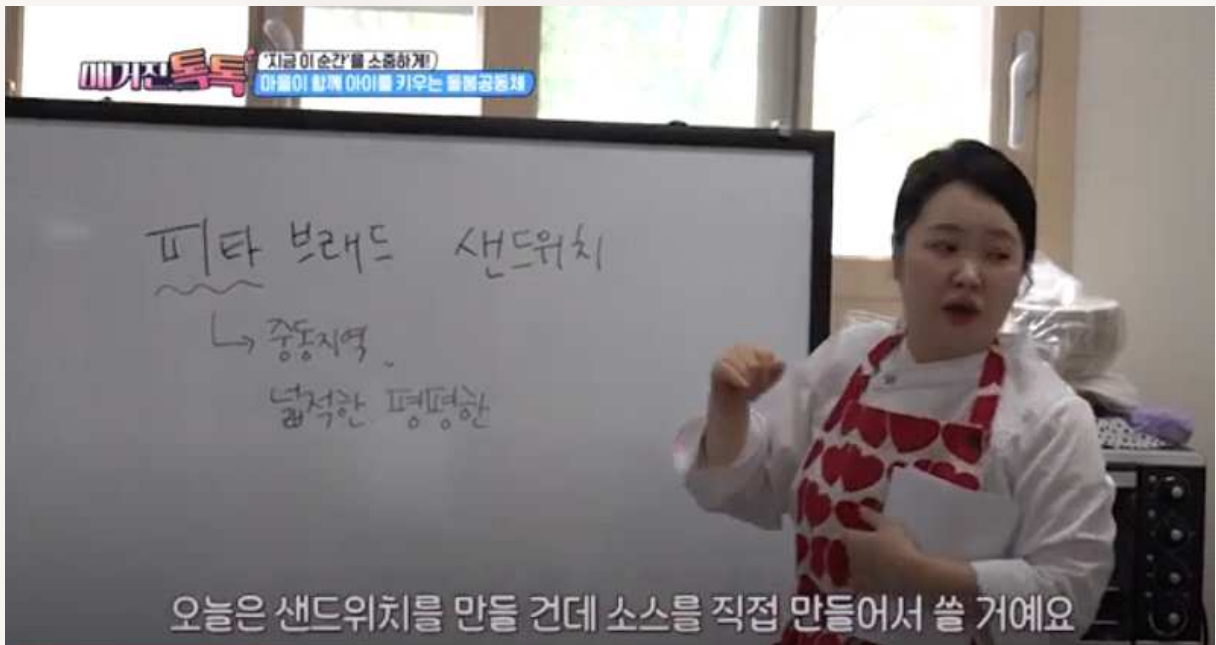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새로운 거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 내레이션

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수업이 있는 날, 오늘의 요리가 궁금한데요.



◇오늘은 피타브래드 샌드위치를 만들건데, 우리가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거예요.



■ 내레이션

샌드위치에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는구나, 재료를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이랑 하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 인터뷰 / 이지아

뭔가 재밌고
계속 하게 돼요



▲ 인터뷰 / 최연재

요리 직접 만드는 게
재미어요.
계속 계속 하게 돼요



▲ 인터뷰 / 이소현

■ 내레이션

오늘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까지 직접 만들어보는데요.
미술 놀이하듯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맛있는 소스가 완성되고요.
빵 사이에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꽂아 샌드위치 꽃다발을 만들고 아이들표 특제 소스를
부어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신선한 채소의 수제 소스가 더해진 건강한 샌드위치, 정말
맛있겠죠?
뽕뽕뽕뽕한 눈망울로 집중하는 아이들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 현장PD : 요거 만든 거 누구 즐겨야?



엄마랑, 저랑요

▲ 인터뷰 / 홍수현



재료 넣어서
소스 바르고
그런게
재밌어요

▲ 인터뷰 / 계리나

◇ 돌봄교사 : 이번엔 슈링클 수업을 할 텐데. 지난 번에 슈링클 수업 했던 사람 손?



■ 내레이션

폴망 폴망한 눈망울로 집중하는 아이들, 도대체 무얼 만드는 걸까요?

슈링클 수업인데,
아이들이 자기 것
키링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이에요



▲ 인터뷰 / 유한나 ATM 대표



■ 내레이션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액화시켜 만든 슈링클 종이에 그림을 그려 모양을 만든 후 오븐에 구워서 식히면 단단한 키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나만의 키링을 만드는 아이들 좋아하는 동물이나 캐릭터 모양을 그려보는데요.



◇현장PD : 왜 강아지를 그렸어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 생각이 나서요



▲ 인터뷰 / 최연재



저는 어릴 때
마리오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오 키링을 만들어요)



■ 내레이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돌봄 강사가 필요한데요.
이곳에는 스스로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자청하는 엄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예요.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걸 보고 집에서 가깝
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서관이랑
연계되는 거여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 인터뷰 / 이민주 돌봄강사

엄마들하고 같이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워
서 좋아요. 우리 아이는 아직 미취학 아동인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
면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이런 점도 알게 된 것 같아요

■ 내레이션

엄마들의 함께 돌봄으로 아이들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워갑니다.

이제 슈링클 종이를 오븐에 넣고 굽기만 하면 커다란 모양이 줄어들면서 단단한 키링이 된다는데요.

귀여운 강아지로 변신 완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

귀여운 키링은 요즘 유행하는 일명 백꾸! 가방 꾸미기 필수템이랍니다.

너무 귀엽죠?

그런데 유난히 떠들썩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구슬치기를 기억하십니까? 구슬 하나로도 즐거운 아이들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온몸으로 즐기는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곳의 아이들은 엄마들이 함께 돌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을 경험합니다.



제가 책놀이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 돌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싶는데 할 수 있겠냐고 초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1년간 볼 수 있는 게 강사로서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같이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좋습니다.



▲ 인터뷰 / 한진희 돌봄강사



■ 내레이션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엄마들의 함께 돌봄 덕분에 이곳은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동돌봄 공동체가 없을 때는 그냥 항상 밖에서 더워도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다행히 책을 좋아해서 외부로 차를 타고 나가 도서관을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이젠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서관도 있고 돌봄 프로그램도 진행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인터뷰 / 문송이 학부모

◇ 현장PD : 아이가 여기 돌봄공동체를 다니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아이는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활발해진 것도 있고 돌봄 프로그램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발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키워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 내레이션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동 돌봄 공동체 'ATM'은 돌봄 공간에서 배우는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한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개방 행사인 돌봄 축제도 열 만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유한나 대표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고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동 돌봄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돌봄 기회 소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지원해볼까 해서 작성해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한나 ATM 대표



■ 내레이션

마을마다 아동 돌봄 공동체를 응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 소득, 경기도는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 돌봄 활동 참여자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해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아동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기회 소득을 지급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를 응원합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돌봄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활동에 대한 인정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인터뷰 / 유한나 ATM 대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같이 돌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 이번에는 그 기회 소득으로 인해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한 인정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소득이 조금 더 활발한 활동으로, 조금 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 돌봄에 있어서 온 마을이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전을 위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는 호랑이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마음껏 할 수 있고 웃음이 끊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인터뷰 / 유한나 ATM 대표

■ 내레이션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아이들 혼자서 잘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학교 말고 이런 데서 애네랑 만나서 놀면 재미있고
여기 계속 오고 싶어요.



■ 내레이션

함께 돌봄의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자라면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모든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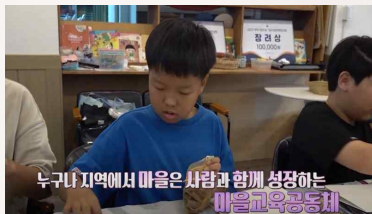
월곳은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마을 학교



월곳은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 엄마의 마음이 담긴 마을 학교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8. 23.(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WObGt8Qjc&t=312s>



■ 인터뷰



최혜경 대표



이보람 주민



서연주 주민



이아림 중3



박미진 중3



전지아 자원활동가



정지연 자원활동가



박영은 시민교육강사



아빈 초등 6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지역에서 성장하고 마을은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지형이 달처럼 생긴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 월곶 월곶 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 좋은 공간에 시흥시 마을교육공동체 달빛 포구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잘 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캔들 만들기에요.
여기 있는 꽃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볼거예요.**



■ 내레이션

알록달록 향기로운 꽃잎으로 양초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라는 달빛 포구 마을 학교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월곡동에는 경연장도 있고 모텔도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을 할 수 없는 동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거 아닌데?’ 실상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을 찾게 된거죠.

천연 쪽에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엄마들은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고 경력이 단절 돼있는 상태였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리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마을 안에서 만들어보자는 뜻이 모여진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공동 육아를 시작된 게 계기가 된 거예요.



▲ 인터뷰 / 최혜경 달빛포구마을학교 대표

■ 내레이션

2014년 품앗이 교육으로 시작한 마을교육공동체는 벌써 1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뭉친 엄마들의 활동은 이제 월곡동에서도 평생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마을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전에는 가죽 가방도 만들었고요. 자개 공예로 거울도 꾸미고 또 한지공예도 했었고, 다른 바깥에서 돈 많이 주고 배워야 하는 건데 여기서서는 무료 체험도 해주시고 소정의 5천 원, 1만 원 정도만 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았어요.



▲ 인터뷰 / 이보람 시흥시 월곡동 주민

이런 공간이 지역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아요



▲ 인터뷰 / 서연주 서흥시 월곶동 주민

■ 내레이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물론이고 직접 기획도 한다는데요.

우리 동네 알기 프로젝트로 만든게 월곶 바다 살리기 보드게임이에요. 보드게임 판에 우리 마을의 지도를 그대로 그려놓고 갯벌에서 살아가는 염생식물, 다양한 생물들, 멸종위기, 그리고 멸종된 생물들을 색깔별로 표시해서 아이들이 쉽게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다 살리기 보드 게임이에요.



생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게임인데 학교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을 적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 인터뷰 / 최혜경 달빛포구마을학교 대표



■ 내레이션

이렇게 공동체의 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마을에서 활동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가 뻑뻑하게 차 있는 마을 학교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럼 저희 봉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봉사자 간식이 우리가 그 입구에서 나눠주다 보니까는 노래 봉사자 간식
그래도 너희들이 검사 자리를 유지할 못하니까 누구나 와서 막 가장 감사
다니고 너네

■ 내레이션

진지하게 회의를 이어가는 청소년들 도
대체 무슨 신나는 일을 꾸미고 있는 걸
까요?

저희 10월 26일에 열릴
달빛로드 블루문 회의입니다.



▲ 인터뷰 / 이아림 중학생



■ 내레이션

월곶동의 상징인 달과 바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달빛로드 축제 올해로 벌써 4회째를 준비한다는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놀이 문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신나는 축제입니다.

일단 시설이 좋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 인터뷰 / 이아림 중학생

일단은 여기는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지루하지 않아요.
활동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지 청소년 입장에서 봤을 때 재밌는 활동이 너무 많아요.



▲ 인터뷰 / 박미진 중학생

■ 내레이션

온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들을 맞이하는 달빛 포우 마을 학교 오후 4시가 되면 방과 후 공유학교가 시작됩니다.

매일 자원봉사로 아이들의 수업을 돕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최근 반가운 일이 생겼는데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 소득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봉사 할 곳이 있나 없나 알아보다가 마을 학교에 아시는 분이 계셔갖고 우연치 않게 조금씩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폭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갖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 내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소소한 간식비 정도라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더 좋은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 인터뷰 / 전지아 자원봉사 활동가



그전에는 사실 시간이 나면 돕겠다 라는 마음이었는데 기회소득을 받으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정지연 자원봉사활동가

■ 내레이션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 소득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에 신청 가능하니까요.

아동 돌봄에 대한 가치 놓치지 마시죠.

오늘 방과 후 공유 학교에서는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키트를 만들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폭염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나눔 활동도 해보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일회용 컵을 사람들이 더워서 마시고 많이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데 그러한 일회용 컵에다가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인터뷰 / 박영은 시민교육 강사



■ 내레이션

아이들이 손글씨로 꼭꼭 눌러 쓴 환경 메시지까지 담긴 폭염 대비 키트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키트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쓰레기 관련 문구 생각하는데 재밌는 문구 쓰니까 좋았어요.



인터뷰 / 이가빈 초등학교 6학년

■ 내레이션

아이들이 정성들여 만든 폭염 대비 키트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동사무소 복지팀에 아이들이 만든 폭염 키트 기부하러 가는 거예요

■ 내레이션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마을 주민에게 아이들의 마음까지 안전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냥 모여서 열심히 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동체 생활을 크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 인터뷰 / 최혜경 달빛포구마을학교 대표





■ 내레이션

월곶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아이 돌봄은 물론 학생들의 자치 활동 그리고 어른들의 성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곳.

달빛보다 아름다운 엄마들이 만들어가는 달빛 포구 마을 학교입니다.





▲ 인터뷰 / 이아림 중학생

(달빛포구) 마을학교는 저희 집 같은 존재예요.

집처럼 쉽게 지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제가 알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월곳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끝)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남양주 에듀케어 in 수동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남양주 에듀케어 in 수동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9. 20.(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GmZ1BzIy64>

■ 인터뷰



허은서 간사



백서후 가양초 4년



정주하 가양초 4년



소유진 돌봄교사



강경옥 돌봄교사



이은희 학부모



박영춘 주민자치회장

■ 방송 요약 이미지



이웃과 소통·마을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행복한 상터



주민자치회의 학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는 돌봄교실



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동돌봄공동체



김미영 선생님이 그림 노랑은 어린이도서관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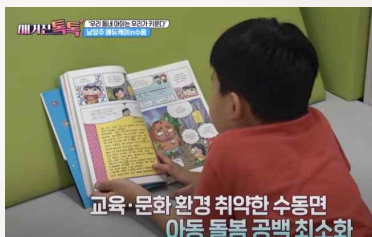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시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그런데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이곳으로 향했는데요.

대체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이곳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데요.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문화 환경이 취약한 수동면에 거주하는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데요.



아이를 한 명 잘 키우기 위해서 혼자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4명을 키우고 있는데 사교육 없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필요했고 또 제가 키웠던 방

식을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아이들의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형 아동 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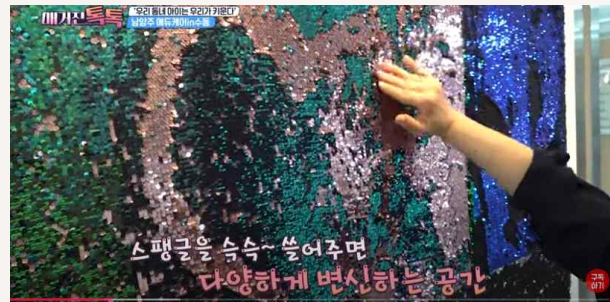
▲ 인터뷰 / 허은서 간사

■ 내레이션

2022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동 돌봄 공동체 에듀케어 인수동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신나게 뛰놀고 놀 수 있도록 활동 놀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허은서 간사

이 공간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이게 스팅글인데요
 쓱쓱 쓸어주면 하트가 되기도 하구요.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노는 거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좋아해요

■ 내레이션

수동면 주민자치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모토 아래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말고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인터뷰 / 백서후 가양초 4년

미술을 많이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재미있어요.



▲ 인터뷰 / 정주하 가양초 4년

◇현장PD : 그림 수업 중에 미술을 제일 좋아해요

네
물감이나 다른 물감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든 그릴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좀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그림이 더 좋았어요.

■ 내레이션

무엇이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미술 도구와 재료들이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되나요?





▲ 인터뷰 / 소유진 학부모 돌봄교사

아크릴 수업 중에서 오늘은 국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 내레이션

수채화와 유화의 장점을 모은 아크릴화는 아이들도 쉽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데요. 붓놀림이 제법 현란하죠?



▲ 인터뷰 / 허은서 간사

어려운 거예요.

악기를 하나 배워두면 삶이 좀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바이올린, 플룻, 첼로 이 3개의 악기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보니까 시간을 맞추기 너무 어렵고 학습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서 문화 예술 쪽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악기 배우는 게 너무



■ 내레이션

아이들이 그려내는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심조심 섬세하게 자신만의 국화를 그려가는데요. 솜씨들이 좋네요.



▲ 인터뷰 / 소유진 돌봄교사

애들아

같은 설명을 듣고 그리는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 이게 미술이
 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거
 야. 창작인거지. 누가 잘했다 못했
 다가 따로 없어
 여기 와서 하고 싶은데로 할 수 있
 으니 얼마나 좋아~

■ 내레이션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우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재능 기부로 참여하는 돌봄 교사들 이런 돌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도 중요할 텐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 소득이 생기면서 봉사활동 하면서 받은 소정의 수익으로 아이들한테 간식도 사줄 수 있고 좀 더 혜택을 좀 더 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소유진 돌봄교사

애들이 많이 있어야 동네에도 애들 키우는 사람도 들어올 거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돌봄 환경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게 제일로 필요한 것 같아요.



▲ 인터뷰 / 강경옥 돌봄교사

■ 내레이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검사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10월 신청 기간이 다가옵니다. 돌봄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어줄 아동 돌봄 기회소는 꼭 신청하세요.





■ 내레이션

아름다운 꽃밭에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난 국화, 아이들이 선물하는 가을 풍경입니다. 돌봄 교실 수업이 끝나자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요.

맛벌이 가정이라서 아이들 말길 데 없는데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 있어서 안전하게 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학부모

◇현장PD : 이 돌봄 교육 공간이 있기 전과 후가 아예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골고루 잘 먹어서 좋습니다.
돌봄 교실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공간입니다.



▲ 인터뷰 / 이은희 학부모

■ 내레이션

돌봄 교실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공간입니다.



지난해 '아이들을 위한 축제' 두 차례 진행

수동은 집과 집 사이가 멀어서 친구 집에 가려면 어머니나 아빠 누가 태워줘야지 돼요.

또 그런데다가 버스 시간이 여의치가 없어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에 축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동 아이들이 100명이 온 거예요. 저희도 놀라고 애들도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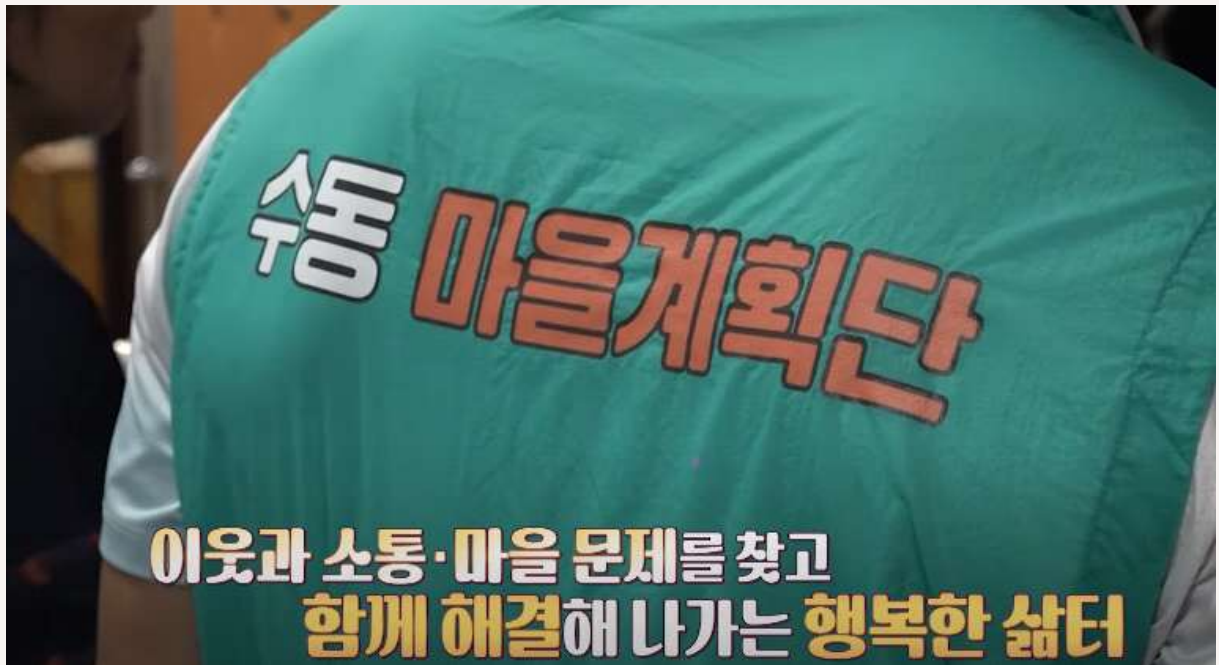
너무 즐겁게 놀다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떡볶이 파티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올해는 10월 26일 날 마을 축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에듀케어 수동아이들 부스를 해서 여러 가지 전통 놀이도 체험하고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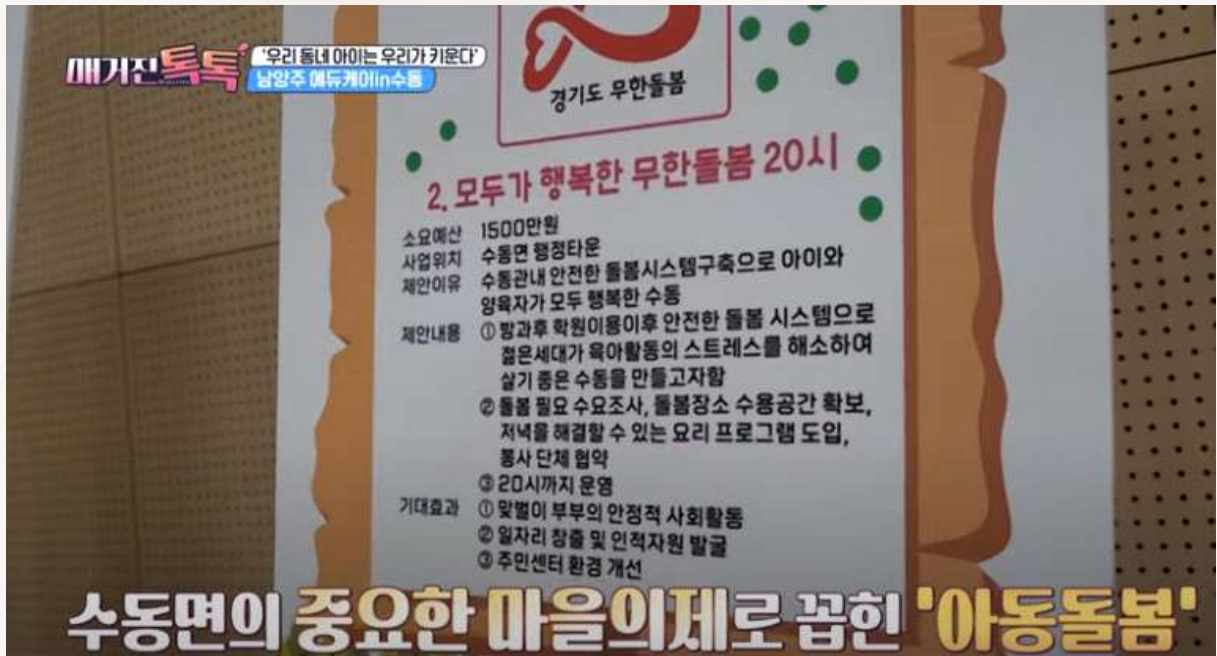


▲ 인터뷰 / 허은서 가사



■ 내레이션

이렇게 신나는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데요. 때마침 제1회 수동면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마을계획단이 발굴한 의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수동면의 중요한 마을 의제 5개 중에 아동 돌봄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비대한데 수동면 같은 경우는 돌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죠.

아이들의 사회성을 위해 도시로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에는 돌봄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공공부분에서 더욱.



■ 내레이션

지금 수동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뭘까요?

(건강돌봄 분야)

가스안전벨트를 마을 24개 마을에 한 두 곳씩 이렇게 해 드리다 보면은 안전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안심하고 부모님 걱정 안 하게 되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즐거운 음악 한마당을 통해서 숨어 있는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형태가 되기를 바라구요.



(교육보육 분야)

아이들과 함께 커나가는 수동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수동 관내에서 운영 중인 에듀케어에서 그치지 않고 놀이 교실을 통해 저녁을 해결하고 부모들이 회사와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퇴근길에 마음 편히 데려갈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무한 돌봄 24시.



새로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수동면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 내레이션

주민들이 심사숙고 끝에 선정한 5개의 마을 의제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1개의 사업을 주민투표로 선정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제가 선정됐을까요?



■ 내레이션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을 포함한 나머지 마을 의제들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했는데요.



**마을의제 5개
모두 중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인 수동면사무소 공간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 주광덕 남양주시장

맞벌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누가 돌 보냐 수동은 이 공공기관인 수동면사무소의 공간에서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건 사실 전국 최초거든요. 이런 일은 경기도의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남양주시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내레이션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수동면 아동 돌봄 공동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인터뷰 / 허은서 간사

나를 키워준 건 8할의 마을이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에듀케어 in 수동’이 품어져서 너무 고마웠다,
응원과 지지가 있는 곳, 그리고 항상 거기 가면 배고팠을 때 먹을 게 많이 있었다, 즐거웠다. 이런 추억의 어떤 한 장면으로 이 공간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 내레이션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수동면, 모두가 행복한 무한 돌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끝)

우리 아이들의 꿈과 생각이 자라는 곳! 화성시 '꿈길 작은 도서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생각이 자라는 곳! 화성시 '꿈길 작은 도서관'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10. 18.(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5zvv3izWHw>

■ 인터뷰



권영화 관장



우디 아트핑거스



유라운 서경초 1년



유시온 서경초 3년



김상현 돌봄교사



심현서 서경초 3년



김수아 서경초 2년



노혜선 돌봄선생님



한누리 서경초 2년



조연주 학부모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책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으로 떠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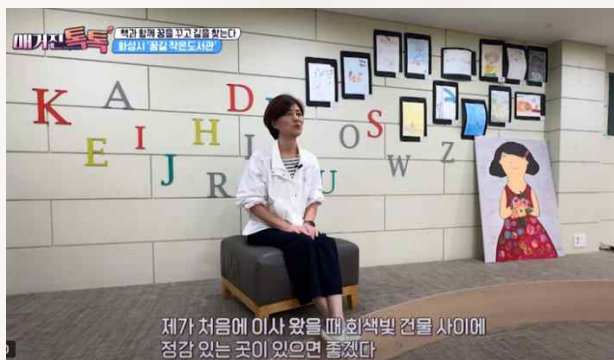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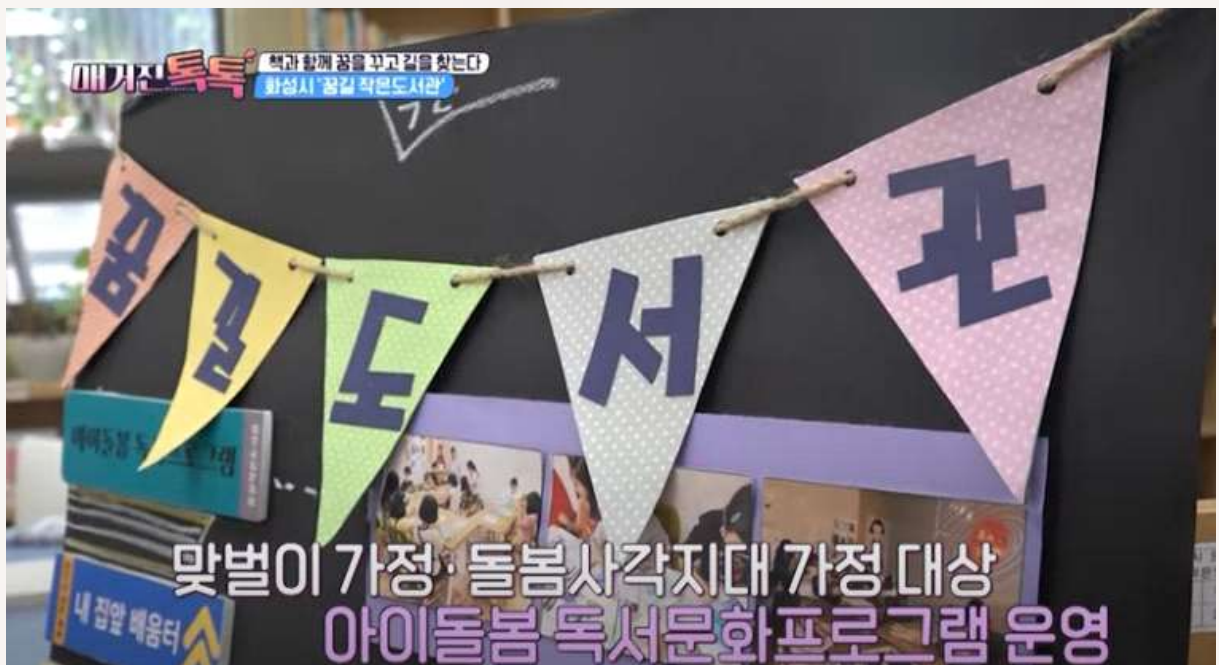
■ 내레이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입니다.

화성시에는 동네마다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다는데요.

꿈길 작은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요? 도서관 곳곳에는 직접 쓴 동시부터 미술 작품까지 아이들의 흔적이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꿈길 작은 도서관은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 인터뷰 / 권영화 꿈길작은도서관 관장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회색빛 건물 사이에 좀 정감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건설사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제가 두 번째로 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 / 권영화 꿈길작은도서관 관장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근데 저는 이 일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요

■ 내레이션

아이들이 책과 함께 꿈을 꾸고 길을 찾아가는 꿈길 작은 도서관.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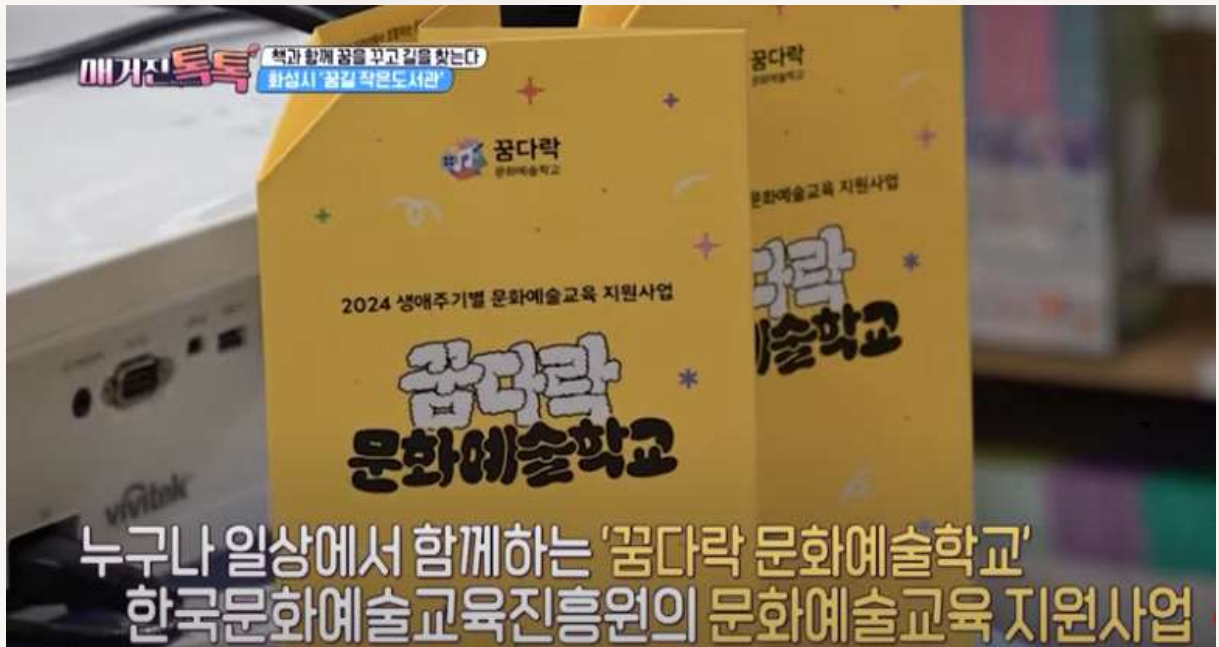


그림책이 살아있다는 제목처럼 하나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 그림책이 정말로 살아 움직일 수밖에 하나 건축과 음악과 미술과 영화 이런 다양한 예술 그런 장르를 그림체에 녹아들게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 멈춰 있는 그림책을 움직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 인터뷰 / 우디 아트핑거스

◇ 현장PD :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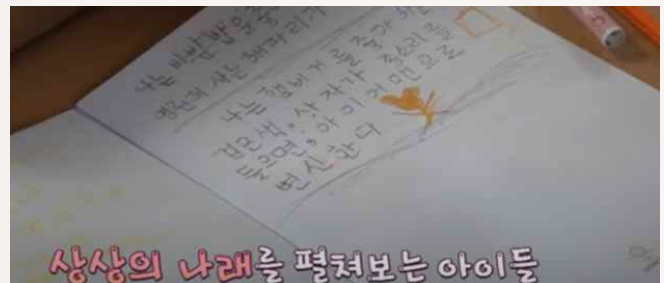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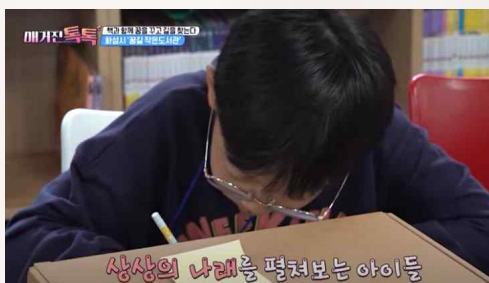


저희는 꿈자람 문화예술학교라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데 꿈길 작은 도서관과 인연이 됐어요.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드나들고, 공간의 활용도 좋고, 아이들 분위기도 좋아서 이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회가 돼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사

내가 만약 색깔이라면? 동물이라면? 음식이라면? 소리라면? 내가 만약 캐릭터 주인공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거야. 그게 오늘 처음 하게 될 거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 거야.





“고양이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매운 소리를 들으면 미자몽이 됩니다.”
 “내가 밥이라는 건강식 밥을 먹으면서 우주를 탐험하고 싶어요 ”

■ 내레이션

우와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상상력 풍부한 우리 아이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돌봄교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선생님 그림책을 선정해 왔어.
 오늘 할 거는 알사탕에 글씨가 있는데 글이 아니라 그림을 소리로 표현해 볼거야.
 그런 걸 폴리 사운드라고 해

■ 내레이션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는 그림책이 아니라 이야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리를 넣어서 움직이는 그림책을 만든다는데요.





◇돌봄교사 : 자, 가을의 놀이터야(소리로 만들어 보자)

가을이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돌봄교사 : 지나가는 소리는 어떻게 표현 할 거야?

저벅 저벅

이렇게요? (캐스터네츠로 발걸음 소리 표현)



◇돌봄교사 :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요(여기 저기 소리를 내는 아이들)

■ 내레이션

다양한 악기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듯이 아이들이 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동화책을 소리로 만드는 게 신기했어요.

◇현장PD : 친구는 어떻게 꾸밀거예요?

이쪽에 지붕은 빨간색으로 하고
이쪽은 옛날 집처럼 만들거예요

◇현장PD : 어땠어요?

뭔가 소리를 만드니까 새로웠어요

◇현장PD : 어떻게 꾸밀거예요?

네. 생각했어요.
저기 있는 거 다 합쳐서 저만의 특별한 걸
만들어보고 싶어요



▲ 인터뷰 / 유라온 서경초 1년



▲ 인터뷰 / 유시온 서경초 2년

■ 내레이션

그림책을 이용한 아이들의 상상 놀이터.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세상 하나뿐인 살아있는 그림책입니다.



◇ 돌봄교사 : (책 읽어주며) 흔히 노란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를 많이 먹지만 하얀 팔이나 검은깨를 묻혀 먹기도 해요

■ 내레이션

이번에는 동화책을 읽고 요리를 하는 시간이라고요.

아무래도 그림책만 단순히 읽고 끝 맞추는 게 아니라서 확실히 동화 요리 그 요리 수업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도 단순히 책만 읽고 질문을 했을 때와 동화 요리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랑 비교하면 아이들이 확장력이 라든지 문제력이 다르더라고요.



▲ 인터뷰 / 김상현 동화요리수업강사



동화책에 나오는 인절미 만들기

■ 내레이션

책을 읽다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정말 먹고 싶어지잖아요.
 오늘은 동화책에 나오는 인절미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는데요.
 말랑 촉촉한 반죽놀이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뭔가 뜯으면서
 콩가루를 묻히니까 재밌어요.



▲ 인터뷰 / 심현서 서경초 3년

오늘 떡을 처음 만져봤는데,
 만져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 인터뷰 / 김수아 서경초 2년



■ 내레이션

인절미 반죽에 고소한 콩국물을 묻혀주면 오늘의 동화 요리 따끈따끈 인절미 완성. 오늘 간식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인절미인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오며 가며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해 줄 때,,”

▲ 인터뷰 / 권영화 꿈길작은도서관 관장

오며 가며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해 줄 때 작년에 돌봄으로 있었던 친구들이 하교하는 순간, 학원 가는 그 순간 매일매일 문을 열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잊지 않고 계속 찾아준다는 게 가장 보람 있습니다.

■ 내레이션

작은 도서관 국장님과 돌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 매일매일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답니다. 아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동 돌봄 기회 소식을 처음으로 지급받으셨다고요?

일단 기분이 좋았죠. 일하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전업중으로 이제 계속 쪽 지내오다가 어떤 일할 기회를 이렇게 얻게 돼서 그게 제일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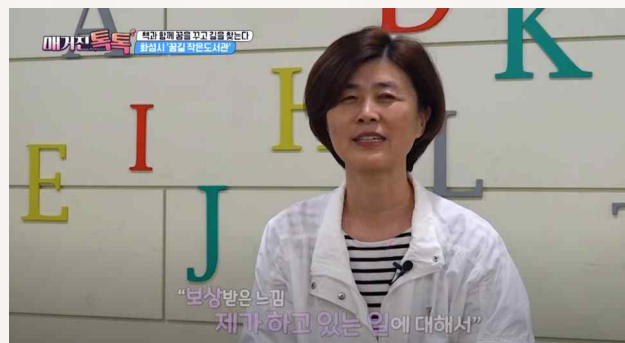


▲ 인터뷰 / 노혜선 돌봄선생님



그동안 제가 이제 여기서 봉사 개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회 소득이라는 걸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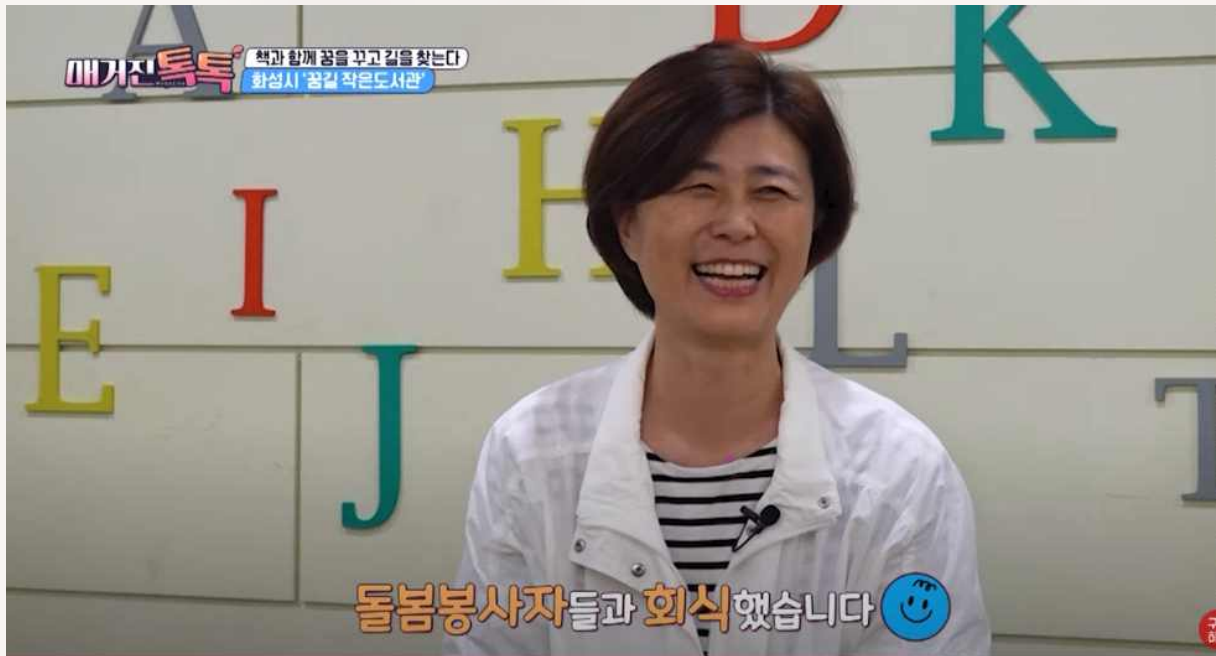
보상받은 느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너도 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 인터뷰 / 권영화 꿈길작은도서관 관장

◇현장PD : 혹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으셔서 어디에 쓰셨을까요?

봉사자들하고 회식했습니다.



■ 내레이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 소득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돌봄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어줄 아동 돌봄 기회소들 꼭 신청하세요.

책과 함께 놀면서 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곳에서 꿈을 꾸고 길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궁금한데요.

아이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저는 아이돌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해가지고...



▲ 인터뷰 / 한누리 서경초 2년

약사요
 힘들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요



▲ 인터뷰 / 김수아 서경초 2년

건축가요
 TV를 보다 보니까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
 게 됐어요



▲ 인터뷰 / 유시온 서경초 3년



■ 내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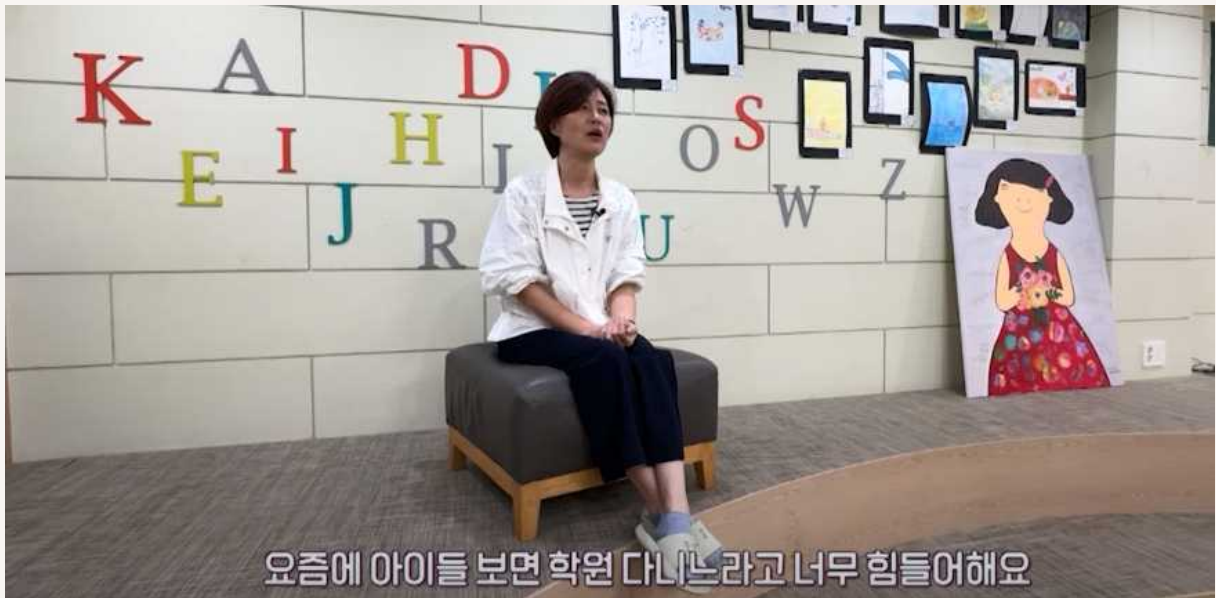
오후 6시가 되자 아이를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랍니다.

단지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애가 혼자 있을 그런 데도 필요하고 했는데 단지 내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랑 좀 믿고 맡기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맡기고 나니까 아이가 책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좀 만족합니다.



▲ 인터뷰 / 조연주 학부모



요즘에 아이들 보면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 인터뷰 / 권영화 꿈길작은도서관 관장

요즘에 아이들 보면 학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중학생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한숨 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공부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이 즐겁게 여기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여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곳이야.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와서 놀다 가도 돼.

책 안 읽어도 괜찮아.



아이들이 꿈을 꾸고
길을 찾아가는 꿈길이고 싶은 작은도서관



■ 내레이션

아이들이 아이들 다운 꿈을 꾸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꿈길이 되어주고 싶은 작은 도서관.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책 놀이터가 되길 바랍니다. (끝)

마을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해요 '수원 칠보산 자유공동체'



마을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해요 '수원 칠보산 자유공동체'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11. 22.(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mL7YqG5COis>

■ 인터뷰



그루터기 교사

저희는 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수원전통천자유학교입니다



달아 교사

저희는 자전거부이고요 매우 아이들과 안전을 약속하고 자전거연습을 하면서



김태오

자전거를 타면 여러가지가 좋아요



함지균

가장씩 비가 오면 실내에서 말음하는데 자전거부는 그냥 라면 재미있는 것



김진호

그림부하면 자신의 그림 실력을 높이거나 그림을 완성하면 뿌듯함이 있는 거 같아요



최서현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할당 이게 좋아서 스티커로 그리고 있어요



숲소리 돌봄교사

그래서 학교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경력단절로 있다가



이유경 방과후 교사

뿌듯함이 많이 커요. 아이들이 바르고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심표 돌봄교사·학부모

심표 돌봄교사·학부모



초승달 봄교사 학부모



안윤영 학부모



고은혁 학부모



윤은정 학부모



이서준



최은우



최흥



한서윤



양준우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마을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카메라 까지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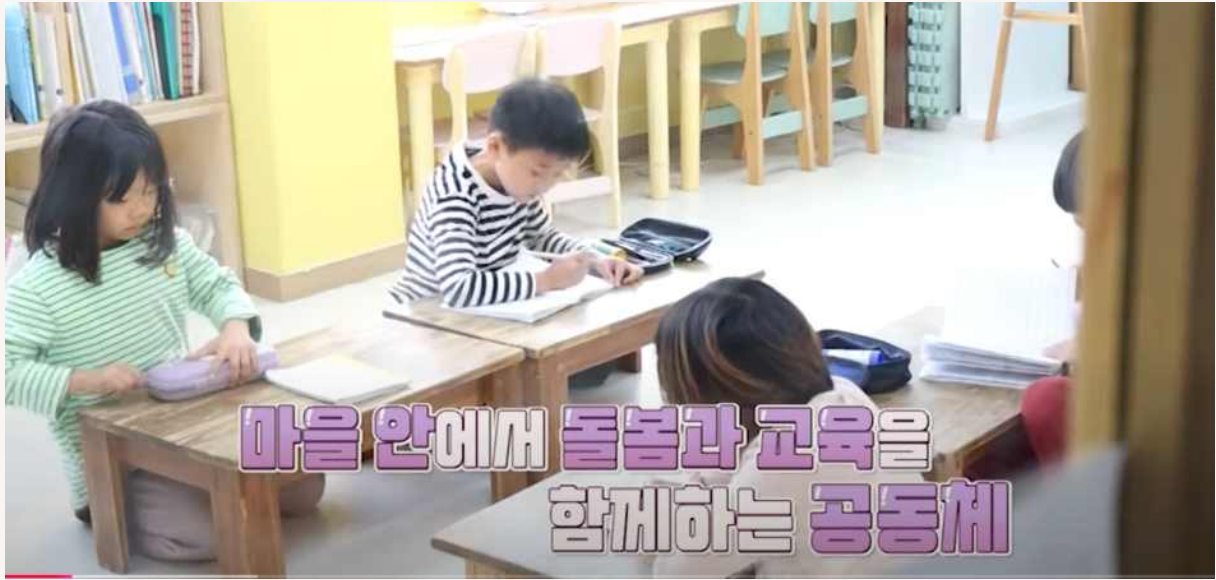


■ 내레이션

수원 칠보산 자락, 이곳에 조금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집처럼 보이는데 이곳은 마을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초등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입니다.

별써부터 교실 풍경이 남다른데요.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입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이 이 공간에서 교육을 함께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사, 부모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19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과 또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지향하면서 함께 교육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그루터기 교사

■ 내레이션

2005년에 문을 연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는 공동육아를 지향했던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공동체인데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유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익히고 누리는 것이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의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 정규 수업이 끝나자 자기 방을 청소하듯 교실을 쓸고 닦는 아이들



■ 내레이션

신나게 청소를 끝내면, 방과 후 돌봄이 시작됩니다.

원래 돌봄은 오후 6시까지였는데요. 지난 9월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에 선정되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됐다고 하네요.

교실 밖으로 나온 아이들.

어? 그런데, 집에 가는 거 아닌가 봐요.

방과 후 돌봄 시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는 자전거부이고요. 매주 아이들이랑 자전거 안전 약속하고, 자전거 연습을 하면서 여기 황구지천이나 학교 주변 돌레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부서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황구지천이나 이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걷는 것보다 더 멀리 가보고, 더 자세히 주변에 철새가 날아가는 풍경이라든지 논밭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만나고 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입니다.



▲ 인터뷰 / 달아 교사

■ 내레이션

방과 후 자연 속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초등학생들이라니 너무 부러운데요



▲ 인터뷰 / 김태오 학생

자전거를 타면 여러 가지로 좋아요.

자전거부에서 가끔씩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실내에서 활동하는데 자전거부
는 그냥 타면 재미있는 곳, 노란 광장
이나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통해서 자
전거를 타요. 그러면 바람을 많이 쐬서
정말 좋아요.



▲ 인터뷰 / 함지균 학생

■ 내레이션

아이들은 학원 대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배우러 출발합니다.



■ 내레이션

교실에서는 또 어떤 동아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림부에서는 오늘 스티커를 만드는데요. 아이들이 캐릭터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 인터뷰 / 김진호 학생

그림부 하면 뭔가 자신의 그림 실력을 높이거나 그림을 완성하는 뿌듯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내레이션

자유와 생명의 철학으로 교육하는 학교답게 아이들은 더 없이 자유로운데요. 아니, 이거, 나무 위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네요.





▲ 인터뷰 / 최서현 학생

◇ 이게 무슨 캐릭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그냥 이게 좋아서 스티커로 그리고 있어요

◇ 이렇게 그림 그리기 수업하면 뭐가 좋아요?

그림 그리는 게 원래 좋은데, 쉬는 시간에 시간을 잘 못 내는데 그런데 이런 그림 그리기 수업을 따로 할 때 그냥 그림만 그릴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이렇게 자유롭게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무 위에도 올라올 수 있고.

저희 학교를 다니면 “자유로워요” 다른 단어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자유롭고, 느슨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자유롭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나아지고 좋아요



■ 내레이션

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공동육아의 철학으로 시작된 수원 칠보산 자유 공동체 19년 동안이나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교사와 학부모들의 헌신 덕분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6년, 7년 다니면서 제가 아주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경력단절로 있다가 좀 도전을 해본 거죠.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숲소리 돌봄교사

부모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뿌듯함 뿌듯함이 되게 많이 커요. 그 아이들 이렇게 바르고,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똑같이 좀 뿌듯함과 큰 보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 인터뷰 / 이유경 방과후 교사



■ 내레이션

경기도는 이런 아동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동돌봄 기회 소득을 지급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5인 이상의 공동체 돌봄 참여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돌봄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어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꼭 신청하세요.





▲ 인터뷰 / 심표 돌봄교사·학부모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일부는 지금 돌봄 선생님 비용으로도 쓰고요. 아이들 저녁이랑 간식비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회 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 시간을 1시간 반을 늘릴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부모님들 방과 후 맞벌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저희도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실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해결책을 줬던 거 솔루션 같은 거.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속도감이 30이었다면 90으로 좀 밀어줬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고.



▲ 인터뷰 / 초승달 돌봄교사·학부모



■ 내레이션

오후 5시가 넘어가면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요.
학교에서 노는 게 좋은 아이들은 발걸음이 좀처럼 떼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맞벌이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방과 후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학원을 애가 원하지 않는 학원을 돌봄을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학교에서 자유롭게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려서 놀고 또 부모 입장에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 인터뷰 / 안윤영 학부모



공동체라는 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옛날 저희 때처럼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식처럼 서로 돌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요즘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고은혁 학부모

■ 내레이션

오후 6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로 선정되면서 늘어난 돌봄 시간 덕분에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오후 5시나 6시 보다 조금 더 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죠.



▲ 인터뷰 / 유여정 학부모



수업 시간 말고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인터뷰 / 이서준

친구들이랑 다양한 걸 같이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서 좋아요

◀ 인터뷰 / 최은우



일단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선택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 인터뷰 / 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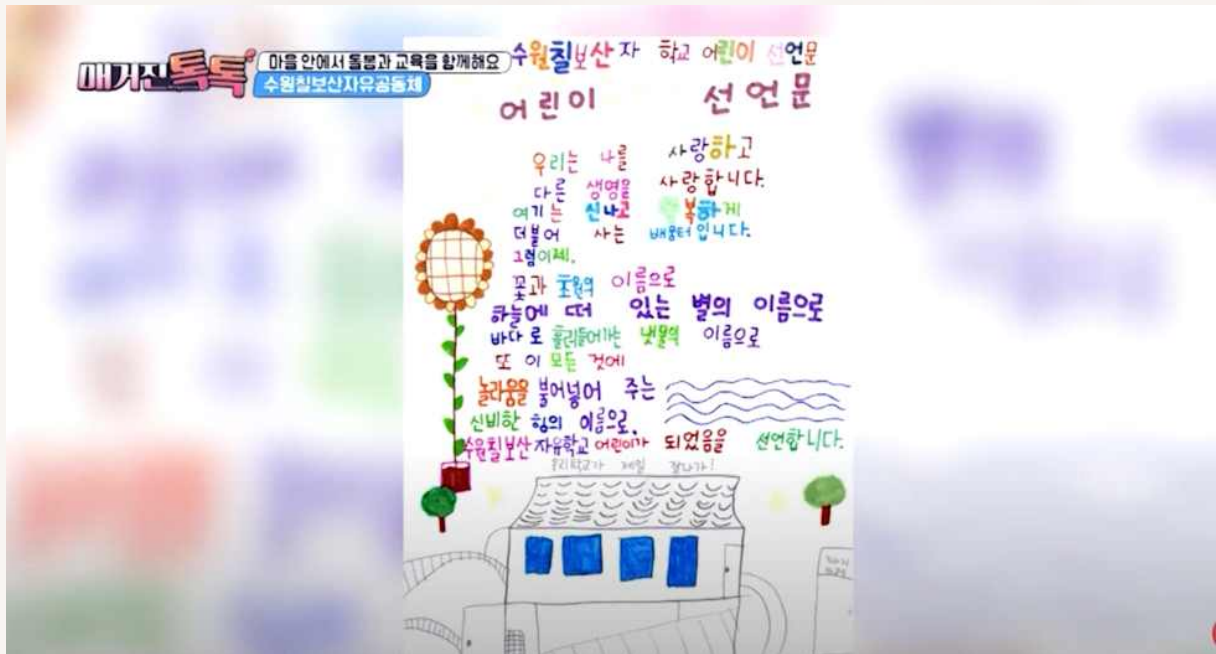
▲ 인터뷰 / 한서윤

전 친구들이나 후배들 또는 선배들이랑 같이 하는 거가 되게 저는 재밌다고 느껴서 일도 하게 됐고 그리고 집에 가도 바로 할 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아서



▲ 인터뷰 / 양준우

수업 끝나고 학교에 있으면 수업도 안 하니까 더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집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친구들과하고도 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 내레이션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신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배움터입니다.



요즘에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고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의 돌봄 공간에 대해서 한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채우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많이 채워주기보다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보낸다던가 아니면 편의점 앞에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다닌다던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다음에 밤 늦은 시간에 스스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던가 이런 게 저는 사실 돌봄의 공백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 그리고 정부의 문제로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이 마을로 좀 확장돼서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내레이션

나홀로 집에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없도록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마을 안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수원 칠보산 자유 공동체입니다.

국경도 차별도 없는 열린 돌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



국경도 차별도 없는 열린 돌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



- ▶ 프로그램 : OBS경인TV '매거진톡톡'
- ▶ 방송일시 : 2024. 10. 11(금) 18:00
- ▶ 다시보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 OBS경인TV '매거진톡톡'에 소개된 영상을 문서로 바꾸었습니다.
- ▶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e10f9XFAzgs&t=15s>

■ 인터뷰



사카이 아야 대표



박소희 유치원



박우영 송삼초



나카무라 유키 돌봄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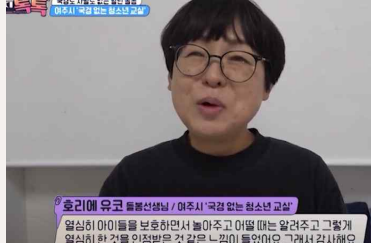
표지애 송삼초 2년



박서운 송삼초 2년



최건자 교장



호리에 유코 돌봄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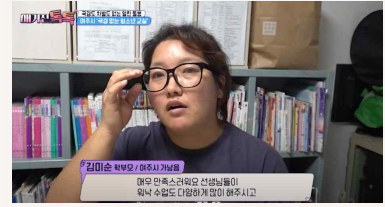
테리카도 아키코 돌봄선생님



유진희 학부모(이천시 장호원)



김보람 학부모(여주 점동)



김미순 학부모(여주 가남)







■ 내레이션

경기도 곳곳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은 모든 아이들이 국경도 차별도 없이 함께 성장하는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만나려 갑니다.

탁 트인 하늘, 그 아래 초록빛 논밭이 펼쳐지는 농촌 마을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반겨주는데요.

붉은 벽돌로 단정하게 지은 마을회관. 그런데 이곳으로 노란 스쿨버스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실은 스쿨버스는 집이 아니라 이곳으로 향한다는데요. 마을회관 2층에 아동돌봄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6살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하는 돌봄 교실은 벌써부터 떠들썩한데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 있지만 이곳에서 국경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모의 출신국으로 친구를 나누지 않는 열린 돌봄 공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근에 있는 송삼초등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동네 어르신들 기관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그 마을 공동체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활동을 하면 항상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여주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아이들과 지금 이대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었고 알아보니까 여기 아이들은 학교 인근 아니라 좀 각각 동네마다 떨어져 살고 있어서 놀만한 장소도 없고 갈 때 없는 걸 알게 돼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 / 사카이 아야 대표



산에서 생태 교육을 할 거예요. 저기 멀리 가지 않고 잘 따라오세요?
알았죠?

- 네

■ 내레이션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곳에선 문제없다고요?





오늘의 미션은 열매나 나뭇잎이나 돌이나 종에서 나를 담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찾아서 여기로 다시 모이세요.
 (사카이 아야 돌봄선생님)

■ 내레이션

숲속에서 ‘나와 닮은 자연을 찾아라.’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아이들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구석구석 숲속 탐험을 시작하는데요.





▲ 인터뷰 / 박소희 송삼초 병설유치원

◇현장PD : 왜 그걸로 했어요?

예쁘니까



▲ 인터뷰 / 박우영 송삼초

■ 내레이션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죠.

아이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뭐를 해야 될지 어색한 느낌이 많고 뭘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자기들의 놀이를 만들고 계획하고 협동하고 놀이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아이들이 이 자연 속에서 많이 성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인터뷰 / 사카이 아야 대표

■ 내레이션

동네 주민들이 허락해준 숲속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만든 놀이터. 처음엔 노는 방법조차 몰랐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 인터뷰 / 박소희 송삼초 병설유치원

여기는 다 좋아요. 어느 날에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일도 생기니까.

집에서는 뭔가를 찾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는 재밌어요.



그림 635



■ 내레이션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에서는 자연령층 아이들은 놀이 중심을, 초등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카이야야 대표를 비롯해 돌봄 선생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활용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일본화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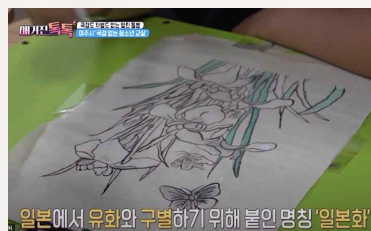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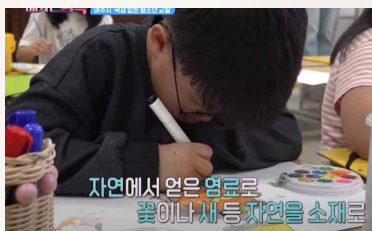
그림 그리기 수업인데 일본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려 왔던 그림에 오늘은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 내레이션

서양에서 들여온 유화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진 명칭이 일본화라는데요.
일본화의 특징은 자연에서 얻은 염료로 그림을 그리고 꽃이나 새 등 자연을 소재로 하는 우아한 화풍입니다.

▲ 인터뷰 / 나카무라 유키 돌봄선생님





드디어 아이들이 정성들여 그린 일본화가 완성됐습니다.
선과 색의 농담으로 표현해낸 꽃들이 정말 아름답죠.
초등학생 그림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을까요?



연한 것 부터 시작해서 겹겹이
발라서 잘 해봤어요.
해보니까 되게 쉬웠어요.



▲ 인터뷰 / 표지애 송삼초 2년

그리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 인터뷰 / 박서윤 송삼초 2년

■ 내레이션

수업이 끝나갈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 내레이션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송삼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만큼 스쿨버스 운행, 교육적 지원 등 평소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데요.



▲ 대화 / 사카이야야 대표, 최건자 송삼초등학교 교장

◇ 사카이야야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건자 : 저도 걱정이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경기도 지원이 끊어지는 상황

에서 또 선생님들 2년 거의 반 동안 아이들 무료 봉사로 지원하고 돌봄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 사카이아야 :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그 덕분인지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이라고, 돌봄 선생님들께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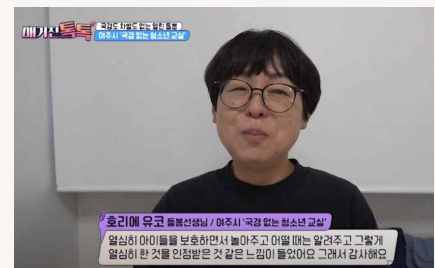
◇ 최건자 : 그동안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먼 나라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못할 거를 이렇게 무료로 2년 반을 해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너무 안타깝고 도와드릴 건 뭐가 없나 그랬는데 그나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게 너무 반갑네요.

■ 내레이션

다문화의 가치가 전해지길 바라는 자원봉사 돌봄 선생님들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는데요.



열심히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놀아주고 어떨 때는 좀 알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 인터뷰 / 호리에 유코
돌봄선생님

솔직히 하루하루 조금 지칠 때도 있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또 저희 봉사자들끼리도 열심히 힘이 생기고 더 활발하게 아이들한테도 또 좋은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테라카도 아키코 돌봄선생님

■ 내레이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돌봄 참여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 등 돌봄 공간이 확보된 5인 이상 공동체 돌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돌봄 활동의 동기부여가 되어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꼭 신청하십시오.

돌봄 교실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선생님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여기 맛별이하는 가정이 많아서
돌봄 시간도 7시까지라 저희가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지 제공하
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입니다



▲ 인터뷰 / 테리카도 아키코 돌봄선생님



■ 내레이션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색색깔 재료별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빔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갓 지은 밥에 고기 각종 채소 듬뿍 비벼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저녁 그야말로 꿀맛이겠쥬 밥이 사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저녁까지 든든히 챙기는데요.





■ 내레이션

이제서야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러 오시네요. 아이들의 학교이자 놀이터이자 집이기도 한 돌봄 교실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곳이라는데요.

◇현장PD : 맡겨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공동 육아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
시는데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거나 그
런 상황이 있으면 내 아이처럼 이렇게
좀 지도해 주고 또 오늘 위험한 행동
을 했다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인터뷰 / 유진희 학부모(인천시 장호원읍)

집에 그냥 있을 때는 서로 많이 싸우기
도 하고 맨날 핸드폰 아니면 TV만 봤었
거든요.

여기 와서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 수
있고 체험하는 것도 많아서 애들이 훨씬
좀 더 밝아지고 친구랑 노는 것도 더 재
밋어 하고.

미디어 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인터뷰 / 김보람 학부모(여주 점동)

매우 만족스러워요. 선생님들이 워낙 수
업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고
초반에는 아이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그
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가 많이 뛰놀고, 많이 아이
들과 친하게 지내고 놀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 내레이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에서의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그래도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정말 항상 평화롭고 즐거운 그런 아이들이 항상 안심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내레이션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시간, 국경 없는 청소년 교실에서의 마법 같은 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끝)

OBS 라디오

FM99.9 MHz 오늘의기후 18:30 ~

도미니, 마을정책플랫폼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의제를 정책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정책대화 공간 '도미니' 활용 사례

마을공동체

-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함께동행'
- 수상하고 놀라운 마을이야기 '마을주간'
- 마을이 아이를 돌본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청년, 너 하고 싶은거 다해

취업을 위한 응시로 및 수강료 부담 덜어주기 부터 해외연수, 청년들의 진로와 관련한 도 전기

청년기회

- 무료 해외연수 사다리 실제후기
- 갭이어 참가자 3인의 레알후기
-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이야기

FM99.9 MHz 오늘의 기후 18:30 ~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마을활동가들의 이야기

고용노동부 한국 직업 사전의 정식으로
등재된 직업 '마을활동가' 이야기 #마을하자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마을공동체 가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여주시 주록리 노루목향기 세 할머니와 함께 동행

마을공동체의 가치



마을성과 측정 마을SDGS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개발한
마을SDGS 게임 등 마을주간 이야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마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



OBS 라디오 218쪽

프로그램 : 오늘의 기후
 (기후위기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
 방송시간 : 오후 5시 ~ 7시30분
 채널 : FM 99.9MHz
 진행 : 김희숙
 작가/연출 : 허윤선 / 노광준

마을활동가 3인의 이야기	221
치매노인부터 은둔 청년까지 마을이 돌본다	245
수상하고 놀라운 '경기마을주간' 3인 토크	269
올 방학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92
무료 해외연수 경기청년 사다리 실제후기	308
경기청년 깡이어 참가자 3명의 레알후기	334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354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마을활동가들의 이야기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3월28일(목)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윤선
- 출연 : 김광선, 박미정, 조안나
- 주제 :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에 참여한 이야기



■ 김희숙 : 기후학교 오늘은 앞서 퀴즈에 나왔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퀴즈의 보기로 1번 마을활동가 2번 우리동네 흥반장이었는데요.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면 이 중에 흥씨는 안 계시네요.

< 마을활동가 퀴즈 >

이 직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건의해서 고용노동부 한국 직업 사전의 정식으로 등재된 직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연결하는 조력자라는 뜻인데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① 마을활동가 ② 우리 동네 흥반장

박미정 님, 김광선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어느 분 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 박미정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박미정 입니다. 수원 서쪽 끝에 자리한 공기 좋은 칠보산과 벚꽃이 아름다운 둘레길 건강에 좋은 황토 숲길이 인근에 있고 조경이 아름다운 금곡 LG 빌리지 아파트에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아파트에서 동대표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이사로 있고요. 밖에서는 기후 위기속 마을 네트워크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는 일 이유 있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 김희숙 : 네. 김광선님

◇ 김광선 : 저는 경기도 북쪽에 위치한 파주에서 일하고 세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는 김광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파주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희숙 : 아, 여러분 퀴즈에 1번이 마을활동가 2번이 우리 동네 흥반장이었잖아요.

한 분은 아파트에서 주민 대표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한 분은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두 분이 똑같은 직업군에 있다는 얘인데요 퀴즈 정답부터 공개를 해 볼까요?

여기(모니터를 보면서) 보니까. 이 질문 드러볼게요 한종해 님 “이장 텃세가 세다는데 일부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나요?” 문의해 봅니다 그러셨고 5787 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마을활동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두 분께 같이 여쭙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보니까. 이 질문 드러볼게요 한종해 님 “이장 텃세가 세다는데 일부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나요?” 문의해 봅니다 그러셨고 5787 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마을활동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두 분께 같이 여쭙보겠습니다

김광선, 박미정 : “1번, 마을활동가”

네. 마을활동가. 공무원이어도 마을활동가. 주민대표여도 마을활동가. 그렇네요. 환경운동하는 분도 마을활동가.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박미정 님?



▲ 인터뷰 / 박미정 수위 금곡동 LG아파트 동대표

◇ 박미정 :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해왔고요. 현재는 작년부터 아파트 동대표와 공동체 활성화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게 된 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아파트에서 놀이터 개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2018년도에 놀이터 개선을 앞두고 바닥재 선정에 관련해서 주민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바닥재 선정을 할 때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그렇고 아파트에서 뭘 결정할 때 O 아니면 X 이런 식의 투표 방식을 거치잖아요. 저는 이런 투표 방식을 거치는 것에 질문을 좀 갖게 됐고요. 그 때부터 주민들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 소통을 통해서 놀이터를 개선 하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동대표 중심으로 놀이터 기획단이라는 걸 제안을 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1년 넘게 주민들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놀이터 기획단 대표는 아니고요 기록하고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아 제가 조금 헷갈리게 2018년에 처음 그러니까 놀이터의 바닥재에 대해서 주민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 박미정 : 2018년도에, 저희는 일곱 개 놀이터가 다 모래 놀이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탄성고무매트 바닥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바닥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때는 제가 동대표는 아니었어요

■ 김희숙 : 2018년에요?

◇ 박미정 : 저는 주민으로서 뭔가를 결정할 때 탄성 고무 매트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바닥재를 이미 결정해 놓고, 탄성고무매트로 할지 말지가 아니라 놀이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닥재를 바꾸는지? 왜 탄성고무매트를 깔려고 하는지,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방식에 질문을 갖게 되었구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소통 구조가 없이 결정하여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갖게 됐고요. 당시에 주민들도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이번에 제가 동대표가 됐으니까

■ 김희숙 : 언제부터 동대표가 되신건가요?

◇ 박미정 : 2023년부터요

■ 김희숙 : 아. 2023년부터요.

◇ 박미정 : 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희숙 : 그래서? 소통창구로 뭘 만드신건가요?



▲ 놀이터 개선을 위한 '우리마을실험실' 소통 창구 운영 :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상상

◇ 박미정 : 주민 소통을 통한 놀이터 기획단을 동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만들게 되었구요 경기도 우리마을실험실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김희숙 : 그럼 지금 놀이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박미정 :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저희가 놀이터를 작년에 주민들 소통을 통해서 (개선을 위한)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

해 초안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분석하는 놀이터 기획단

■ 김희숙 : 그러면 2018년에 놀이터 바닥재를 탄성고무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말씀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다 이해할 거 같아요.

주민 투표하면 항상 O X 두 개잖아요. 사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복잡하게 하면 참여율이 낮을까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때 그러면 2018년도에 놀이터 일곱 개 중에서 몇 개는 탄성 고무로 바뀌었던 건가요

◇ 박미정 :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공청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 김희숙 : 그러면 결국은 안 바꿨나요

◇ 박미정 : 네. 아직 안 바꿨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2023년까지 계속 모래로 온 건가요?

◇ 박미정 : 네. 그대로 유지가 돼 왔고요 작년에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계획이 있었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기 위해 동대표 중심으로 놀이터 기획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진행하게 된 거지요.

■ 김희숙 :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놀이터를 좀 바꿔 보려고 기획하고 계시는 거군요

◇ 박미정 : 어쨌든 지금 (놀이터 개선을 위한) 초안은 이제 거의 정리가 됐고요. 충분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같아요. 충분하다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초안이 나온 자료는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살을 붙여서 아파트 내 놀이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지금 놀이터는 그럼 어떻게 바꾸려고 기획하시는 건가요

◇ 박미정 : 주민 대상으로 설문 작업도 하고. 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의견을 듣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천막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의견을 받았어요. 그게 소통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 김희숙 : 한 달 넘게 천막을 쳐 놓고.

◇ 박미정 :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시간이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 그림도 좀 그려보고 그것들 전시도 좀 해보고, 놀이터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1998년도에 저희 아파트가 세워졌는데요

네 그 당시에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세워졌는지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를 알게 됐고요.

■ 김희숙 : 궁금한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마저 여쭙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류에서 어떤 걸 가지고 큰 의미를 느끼셨는지 또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의견도 듣고 한 달 동안 천막도 치고 하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놀이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게 궁금한데 저희가 좀 있따 또 마저 듣도록 하고요.

김광선 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마을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인터뷰 / 김광선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 김광선 : 저희는 명칭에서도 조금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주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예요. 행정과 공동체 민간의 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 지원 업무를 하는게 저희 센터의 일이고요 여기에서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보다 왕성하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라던지, 컨설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지원, 연구 이런 것들을 주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런 업무 외에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들을 뚫어 가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당하고 하는 것도 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작년 23년도 문턱 없는 공동체 실험실이라고 하는 실험을 파주에서 재미있게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이런 작당중에 하나 있었어요

■ 김희숙 : 아, 하, 궁금하죠 여러분 자세한 얘기를 다음에 이어서 마저해 해 볼게요 조안나 님네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 조안나 : 네

■ 김희숙 : 자기 소개도 해 주시고 또 어떤 활동 하시는지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인터뷰 / 조안나 마을살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조안나 : 네. 저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돌봄육아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육아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속해서 점점 더 마을에 대한 것, 정책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 김희숙 :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처음서부터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하셨던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소소한 일에 정성을 드리다가 점점 마을활동가가 되셨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 시키는지 5부에서 더 자세하게 여쭙보겠습니다

■ 김희숙 :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일상을 훈훈하게 바꾸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람들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0999로 문자 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4부에서 박미정님 조안나님 김광선님 각자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좀 속물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재정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안 해 주는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박미정님부터 어떻게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 박미정 : 네. 저희는 소통을 통한 놀이터 개선이라는 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려면 사실은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데,아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 소액 밖에 없었고요

■ 김희숙 : 네

◇ 박미정 : 그래서 그런 걸 좀 찾다가 경기도 마을 실험실이란 사업을 알게 됐고 그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뭐냐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서 그 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 자유롭게 도출해 가지하고 실제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98년도에 지어진 25년 된 아파트인 데다가 3,234세대 이면서 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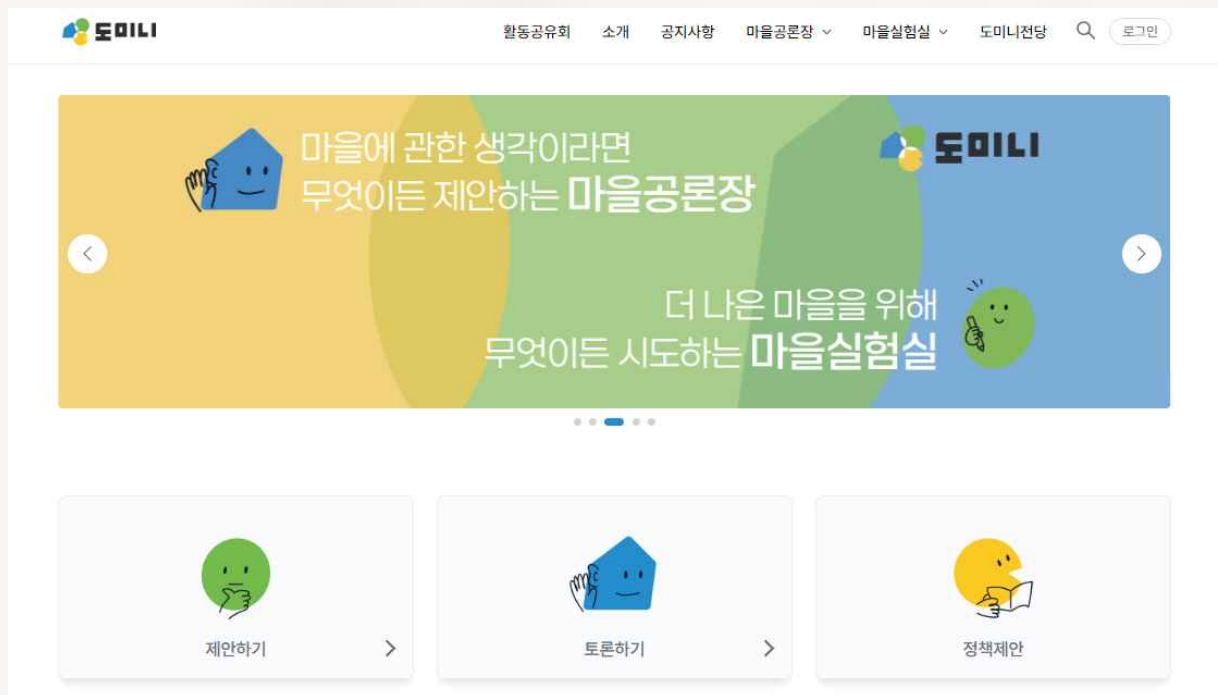
■ 김희숙 : 네

◇ 박미정 :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을 통한 놀이터 개선이라는 이 주제가 과정을 설계하는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작성할 때도 놀이터 기획단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기획서를 써 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나로 정리를 하고 기획서를 내게 되었구요 선정이 됐습니다.

■ 김희숙 : 경기도 실험실이라는 사업에서

◇ 박미정 : 우리마을 실험실

■ 김희숙 : 아. 우리마을 실험실. 도청에 지원하는 건가요



▲ 도미니 누리집 /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https://domini.or.kr/](https://domini.or.kr/)

◇ 박미정 : 경기도 마을마을공동체지원 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누리집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https://domini.or.kr/](https://domini.or.kr/)) 그래서 거기서 선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 김희숙 :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거군요

◇ 박미정 : 네

■ 김희숙 : 그럼 경기도청에 소속된 센터인가요?

◇ 박미정 : 네

■ 김희숙 : 조안나님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나요?

◇ 조안나 : 사실 저희가 마을활동을 한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대부분 동네 이웃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회비를 같이 내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해 온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는 지원이 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 김희숙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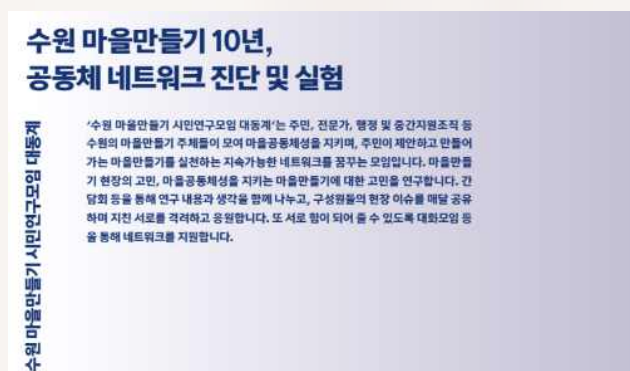
◇ 조안나 : 그때 마침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 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는 지원금이 있었어요.

■ 김희숙 : 어떤 거였나요

◇ 조안나 : 저희는 작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 김희숙 : 작은 연구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 조안나 : 네.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이라고 해서 도미니(<https://domini.or.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그 도미니에서는 ‘정책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상상했을 때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상상 제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연구, 그리고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아주 자유로운 주제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미정 선생님이 했던 ‘우리마을실험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작은연구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10년, 공동체 네트워크

진단 및 실험



수원마을만들기시민연구모임대동계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 김희숙 : 김광선님은 어떤 지원 사업이 있었을까요?

◇ 김광선 :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道)나 시(市)나 이런 곳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때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저 그냥 착한 활동”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활동”

이런 인식들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 고민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세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한데 이런 것을 문턱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좀 내고 했더니 파주에서 어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에서 두 곳에서 800만원을 지원금으로 내주신 거예요

■ 김희숙 : 아 그냥. 그러면 영수증 정산 처리도 필요 없고 그런 건가요

◇ 김광선 : 네

■ 김희숙 : 오 좋네요. 그래서?

◇ 김광선 : 저는 민간 공모여서 지난 공모 사업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을 한번 여기에서 다 엮어 가지고 다 해 봤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 양식도 따로 드리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로 한 줄로만 써도 좋고 뭘 할지만 표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받았었고 정산도 일체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어서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얼마큼 미치는지 사회 성과를 측정해 보는 그런 실험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 김희숙 : 비밀이 아니라면 그 지원금을 지원해 주신 사회적 기업 두 곳이 어디 어디였나요

◇ 김광선 : 파주시에 있는 한마음 희망나눔센터와 지혜산업이었어요



공동체 사회 성과 측정

파주시

문턱 없는 공동체 실험실



■ 김희숙 : 그렇구나. 역시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이 관청에 서류내는게 얼마나 상상력에 제약을 주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또 이런 방식으로 지원금 주는 걸 시도를 하신 듯합니다

■ 김희숙 : 박미정님의 놀이터 만들기, 조안나님의 아이들 보육 이야기. 작은연구라고 했나요?

◇ 조안나 : 작은연구이고요. 수원의 10년을 알아보고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를 돕는 그런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 김희숙 : 네. 김광선님은 도대체 이런 작은 마을활동들이 사회에 실제로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셨네요 노래로 팀의 '사랑합니다' 듣고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 김희숙 : 일상을 훈훈하게 바꿔 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람들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5090님 새싹 문자로 문자 주셨네요

'마을을 오랫동안 진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보는 세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5090님 혹시 아시는분 번호 아니죠?

■ 김희숙 : 저희 청취자분들이 듣고, 아.. 진심으로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면서 참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요.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스튜디오에 노광준 PD 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PD님,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인가요?

◇ 노광준 PD : 세 분이 오늘 굉장히 그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를 사전에 했을 때 엄청나신 분들이세요네. 제 옆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아파트 근처에 살았었는데

■ 김희숙 : 조안나 선생님요?

◇ 노광준 PD : 정말 어 이렇게 훈훈한 아파트가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또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조그맣게 이렇게 뭐 시설이 웅장한게 아니라 진짜 살 만나는 아파트인데 그걸 만드신 분이 제 옆에 있다니 제 가슴이 뚱니다



▲ 인터뷰 / 노광준 PD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라는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경기도 그래서 저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게 이걸 아예 직업 사전에 그냥 딱 등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나도 우리 마을도 좀 훈훈하게 살고 싶다 뭔가 의기 투합해서 몇 명이 해보고 싶은데 아 뭔가 노하우도 필요하고 뭐 자금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지금 바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서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이거를 검색하시면 이 정말 온라인 공론으로. 이렇게 의견 올리고 싶으면 의견 올릴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이 언제 언제 뜨는지 뭐 이런 굉장히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그런데 그냥 도미니 치시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회사도 나오고 막 그래서 헛갈리시는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또 한 가지는 요런 그 공동체 하시는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도 많이 받고 또 노하우도 많이 얻으려면 공동 이렇게 그 태그 하시태그 캠페인 같은 거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알려 드리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마을의 어원이 말이다 이런 분들

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으면 하는 이제 추천하는 해시태그를 알려드리는데 마을하자 #마을하자 또는 #말하자 뭐 이런 캠페인을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해서 6월 경기 마을 주간까지 계속 한다 그러는데 혹시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자랑들 많이 올리실 때 #마을하자 또는 #말하자 경기도에서#마을하자 요런 캠페인으로 하면 많은 마을에서 그 훈훈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힘을 받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숙 :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마을은 다 한다. 캠페인이네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걸 올리면 SNS에 올리면서 샵(#)하고 마을하자 샵(#) 말하자 그렇게 해서 검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쉽게.

다시 세 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정말 궁금한 거 계속 똑같은 거 여쭙보는게 아니고요 박미정님 그래서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기로 하신거예요?



▲ 인터뷰 / 박미정 수원 금곡동 LG아파트 동대표

◇ 박미정 : 실험 결과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 김희숙 : 네. 과정은 아까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놀이터에 탄성 고무를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가 궁금해요

◇ 박미정 : 질문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희숙 : 네

◇ 박미정 : 저희가 아직은 과정상에 있어서 지금 당장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을 드리 기에는 주민들하고 그 마지막을 공유 안 한 것들이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 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상에서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 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놀이터 소통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 김희숙 : 네. 천막치고..부스 운영했다고.

◇ 박미정 : 닉네임으로 동네에서 고래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달 내 내 부스를 지켰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을 지켜주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였고 주민 플랫폼 창구가 되어 주었어요. 아파트에서는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아파트 홈페이지가 있지만 거기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막 부수를 열게 되니까 거기에서 놀이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아파트 놀이터 기획단 구성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모두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 놀이터를 모두 다 바꾸기보다는 어 새로움을 좀 추가하고 현재 놀이터의 단조로움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입 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재미를 더한 놀이터 있잖아 요. 그런걸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구상이 아파트 공사 특성상 입찰이란 방식 때문에 (그 동안의 소통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관리소 장님이 또 애써 주시고 계셔서 좋은 선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 니다

■ 김희숙 : 제가 자꾸 여쭙았던 거는 구체적으로 놀이터를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바꾸 고 싶어 할까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많이 정성을 들여서 모래 바닥도 만들고 기구들도 세워 놨던 건데, 탄성 고무만이 아니라 여러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저런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혹시 구체적인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 박미정 :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파트가 처음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설계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파트의 놀이터 테마가 보행자 천국이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터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일곱 개 놀이터의 이름이 다 있고 그 놀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아, 제가 질문을 까먹었네요

■ 김희숙 : 그냥 한 가지만 딱 마을 주민들이 놀이터가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무언가 한 가지가 있었는가

◇ 박미정 : 아, 네. 그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 좀 들려볼게요
아이들은 첫 번째로 그네가 많은 놀이터였어요

■ 김희숙 : 무조건 그네가 많았으면 좋겠다?

◇ 박미정 : 네. 친구들과 같이 타는 그네. 그리고 요즘에 여럿이 그룹이 같이 타는 그네도 있고요. 다양한 그네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 김희숙 : 아, 다양한 그네가 있으니까.

◇ 박미정 : 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물길이 있어요.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래 놀이터가 있으니 그 물을 이용해서 모래놀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나왔었죠

■ 김희숙 : 네
상상이 가능하네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원하는지.

조안나님께 사업에 대한 성과 자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 조안나: 사실은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도했던 작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수원의 마을 만들기 10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몇 개의 단체가 몇 개의 사업을 하였고 활동

은 어떤 것인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게 한 가지였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거는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아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에 어떤 힘과 자원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자. 서로 돕자. 공동체가 공동체를 돕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았다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한 모임 당 30만 원을 줘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내용만(결과) 주면 그 30만원 원의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 좀 더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하길 잘했다 예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희숙 : 마지막으로 김광선 님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활동하시면서 뭔가 저희에게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웃픈 에피소드에도 좋습니다



▲ 인터뷰 / 김광선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 김광선 : 실험실이 무정산이라고 했잖아요. 정산을 안 하니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해방됐다고 좋아하셨는데, 저희가 이 실험은 정산은 하지 않는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측정해 보자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화폐 가치로 '얼마, 얼마인지'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인력이

나, 공간(이용)이라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주민 자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활동을 하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실의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덟 개 공동체 중에 그 할머니들로 구성돼 있는 공동체 빼고 일곱 개 공동체에서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하셔서, 복잡한 걸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들을 나중에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하시고 약간은 책임감 그리고 또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희숙 : 세 분께 다 여쭙 보고 싶은데 시간이 1분 45초 밖에 안 남아서요 제가 조안나 님께만 한 1분 정도 짧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인터뷰 / 조안나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조안나 : 네. ‘믿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이나 이런 지원되는 것들은 형식에 맞춰져서만 해야 되는데 사실이 마을활동하시는 주민들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권을 주는 그런 무정산 지원금이 필요하듯이 그런 것들 좀 정책화해서 주민들을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숙 : : 네. 이걸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쵸. 믿는다면 훨씬 절차나 과정이 더 간편해질 수도 있고.

그럼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혹시.

◇ 조안나 : 청취자 분들께는요. 제가 마을활동가로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따뜻함, 보람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혹시 뭔가 하시고 싶으시면 주저없이 옆에 이웃 두세 분 과 함께 한번 활동을 시작해 보시는가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김희숙 : : 네. 시간이 30초가 남아서.(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경기도 마을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치매노인부터 은둔청년까지 마을이 돌본다... 여주 세 할머니의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5월13일(월)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윤선
- 출연 : 강용철, 이해옥, 심재식
- 주제 :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 여주시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함께동행'



■ 김희숙 : 오늘의 기후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보여 주고 계신 특별한 분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의 세 분의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라는 마을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 이혜옥 선생님, 심재식 선생님 그리고 마을청년 강용철 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김희숙 : 우선 한 분 한 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겠는데요. 여기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라는 곳이 어떤 분의 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분이 먼저, 사진을 보니까 텃밭이 있는 근사한 집인데요.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심재식 선생님 먼저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 심재식 : 안녕하세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

■ 김희숙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자기 소개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 주신다면요?

◇ 심재식 : 여기서 나이 얘기해야 돼요?

■ 김희숙 : 그러니까요. 제가 나이는 안 여쭙 볼게요. 나이는 우리 서로 모두 그냥 다 같이 50인 걸로

◇ 심재식 : 네. 맞습니다. 이름은 심재식 이고요 마을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살고 취미는 요새 바뀌었습니다.

■ 김희숙 : 어떤 걸로요?

◇ 심재식 : 애 놀리는 취미로

■ 김희숙 : 원래는 뭐였는데요?

◇ 심재식 : 여러가지 많았죠.

■ 김희숙 : 지금은 마을 청년 강용철 님을 놀리는 것이 취미인 우리 심재식 선생님이셨고 그리고이 노루목향기의 입주민이자 대변인 심재식 선생님과 오랫동안 친구였으면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의 이해옥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이해옥 : 안녕하세요

■ 김희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마을에 함께 하게 되었고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이해옥 : 저는 우연치 않게 같이 심재식 선생님과 서울에 살 때 같이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했는데, 심재식 선생님이 먼저 여주에 터를 잡으셨어요. 터를 먼저 잡으셔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혼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같이 짓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 김희숙 : 두 분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가족 그래서 꼭 피부

치들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라 살면서 가족이 된다는 얘기를들은 적이 있는데 친구끼리 가족이 되신 거네요



▲ 인터뷰 / 이혜옥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 이혜옥 : 가족이란 생각은 안 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 김희숙 : 그냥 같이 사는

◇ 이혜옥 : 그냥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가족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 김희숙 : 네. 그래요. 두 분과 음악을 즐기시던 우리 마을 청년 강용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 강용철 : 안녕하세요.

■ 김희숙 :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 강용철 :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에 살고 있는 강용철 이고요. 나이는 올해 40이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 김희숙 :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시는 강용철 선생님이 세 분 어르신과 같은 집에서 배우고 일하고 놀고 또 음식도 해 먹고 그렇게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노루목향기가 어떤 곳인지 세 분이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게 됐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좀 들어 볼게요. 이해옥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 이해옥 : 살게 된 거는 우연찮게 기회에 어찌다가 사정이 생겨서 같이 살게 된 거지 예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살진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같이 또 합류한 이경옥 선생님도 같은 마을에 사는 분이었어요. 마을에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이경옥 선생님은 살던 집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이사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 머무는 기간이 지금 7년째,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 김희숙 : 7년째 같이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네요

◇ 이해옥 : 저희가 살면서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소소하게 마을활동이라고 한 거는 별로 없고 사실 처음부터 시작은 그냥 동네에 풍물패들이 있었어요. 그 풍물패에 (이해옥과 심재식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도 알고 이경옥 씨도 알고 그렇게 지내면서 또 이경옥씨하고 또 같이 같이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 마을 분들하고 같이 많이 지내게 된거죠. (서울에서 여주로 이주하고) 저희가 근 10년 가까이 그리고 또 어르신들 하고는 6년 가까이 요즘 말로 하자면 공동체 활동이라 그러는데, 사실 공동체 활동이라 기보다는 같이 지내는 거지 뭐, 그냥 재밌게. 그런 식으로 여지껏 서로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 김희숙 : 아 그니까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여쭙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같이 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말 씀이시네요.

◇ 이해옥 :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 김희숙 : 네. 심재식 선생님 좀 더 보완해 주신다면?

◇ 심재식 : 재가 말을 잘못했어요.

■ 김희숙 : 어떻게요?

◇ 심재식 : 이경옥 씨 하고는 7년, 이혜옥씨하고는 16년 산 거예요. 지금

■ 김희숙 : 아하, 그런거예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

◇ 심재식 : 근데 재가 지금 그 앞을 잘 얘기를 못 한 거 같아요. (이혜옥이랑) 한 16년 같이 살았고

■ 김희숙 : 여주에서?

◇ 심재식 : 네. 집 지어 가지고 둘이 (여주로) 들어와 가지고 16년째 살고 있고 경옥이 하고는 7년째 살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하고는 한 7, 8년 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또 재밌는 일도 했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 김희숙 : 아 그러니까, 지금 심재식 선생님이랑 이혜옥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안 나오신 다른 한 분이 이경옥 선생님이라고 계시는 거죠?

◇ 이해옥 : 그분은 오늘 저기 여주 시민 합장 단원인 합장 경연대회가 있대요. 28일날에. 그래서 그거 연습해야 된다고 못 나왔습니다.

■ 김희숙 : 지역에서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심재식 선생님하고 이해옥 선생님은 원래 친구로 잘 아는 친구집에 가서 같이 함께 지내시다가 동네에 계시는 이경옥 선생님과가는 가까워져서 세 분이 함께 지내시게 되는. 지금 그렇게 해서 세 분이 함께 살고 계시는데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세 분이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캠페인”에 직접 나서신 장면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이 마을 하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에서 함께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 이해옥 : 마을하자는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얘데요. 마을하자라는게. 우리는 그냥 마을에서 재밌게들 지내는데. 그런 용어들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경기도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벤트랄까. 뭐랄까. 이런것들이 없었는데 요번에 마을하자에 대한서 6월달에 경기도 마을주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때에 한 번 경기도의 마을공동체들이 한번 탁 모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된 것 같아요. 마을하자 그래서 아유 잘됐다 싶어가지고 저희도 이 나이에 춤을 춤추고 있습니다.

■ 김희숙 : 캠페인에서 같이 공연하는 건가요?

◇ 이해옥 : 네

■ 김희숙 : 마을하자 캠페인에서 꼭 그 어르신들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이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참 사진이 나갔습니다. 노루목향기를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전원 속에 아름답게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여쭙볼게 참 많은데 우선 퀴즈 정답부터 공개를 해야겠어요. 여기 보니까 3106 님 노-노 돌봄은 정말 좋은 제도네요 하지만 도움 받는 것보다 주는게 훨씬 좋을 텐데 뜻대로 안 되겠죠. 그죠. 나이 들어서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각자 모르니까. 5275호 님, 저도 주변에 내 또래 주변분들 도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 안타깝네요. 노-노 돌봄. 4806 님, 앞으로 노령화로 인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변화는 간병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고요. 5787 님 우리나라도 친구끼리 모여 살고 옛날처럼 집성촌이 좋을 듯해요 두루두루 모여 살면 서로 돕고 외롭지는 않겠어요. 정말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1

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노령 층들 1인 가구도 많다는 얘기가 있죠. 퀴즈 질문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 노-노 돌봄 퀴즈 >

누구나 늙습니다 거동 자체가 힘든 어르신들은 시설이나 전문 간병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께는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 마을 어르신이 도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노인 돌봄에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것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본다, 마을공동체가 함께 돌본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① 노-노 돌봄 ② 독박 간병

■ 김희숙 : 이해옥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이해옥 : 정답은 1번 노-노 돌봄이죠.

■ 김희숙 : 1번 노-노 돌봄. 근데 이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실제로 어떤 노인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 이해옥 : 저희가 사는 동네가 노루목길인데, 노루목 길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요. 그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작년부터 약간 치매 증상이 보이셨는데 올해는 좀 그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자제분이 다 계시지만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올 겨울만 하더라도이 날이 추웠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보일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으셨어요. 기억력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 날도 추웠고 해서 우리가 매번 가서 돌봐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저희가 나이가 71인데 저희들 나이가데 요즘 나이가 71이면 건강하잖아요? 지금 71이면 인생이 70부터 그러는데. 우리가 또 어르신들을 곁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희숙 : 오늘 오늘의 기후에서 여주 금사면의 세 분이 함께 살면서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라는 마을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이해옥, 심재식 선생님 두 분 나와 주셨고요 또 마을청년 강용철 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마야에 나를 외치다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5부)

■ 김희숙 :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0999로 여러분 사연 보내 주시면 질문도 좋고요 방송 중에 반영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알려주고 계신 특별한 분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노루목향기라고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 분의 어르신이 함께 사는 친구분들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이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세요 노-노 돌봄이라는 퀴즈가 아까 4부에서 나갔었죠? 그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분을 돌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혜옥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4부를 마무리했는데요. 5부에서는 심재식 선생님께 얘기를 또 마저 들어 보겠습니다.



◇ 심재식 : 어떻게 돌 보느냐는 건 없고 그냥 같이 어깨동무 하면서 나도 저렇게 아프면 나도 약 먹어야 되고 또 저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돌보는 거지 뭐 특별히 이게 돌본 거 돌보는 거다라고 생각은 안해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게. 요번에 알게 된게 치매더라고요. 우리(집) 아래 할머니가 거의 아침 새벽마다 집에 오셔서네 우리 오늘은 추워서 못갔데. 일어나서. 그리고 그 그다음 날은 뜨거워서 못갔다고 하시는 걸 한 석달을 하셨어요. 그제 그게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가 보니까 할머니가 약을 안 드셨더라고요. 치매약을.

■ 김희숙 : 아,

◇ 심재식 : 그래서 이게 치매 약이 중요한데, 이걸 안 드셨던거지.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약을 저녁마다 챙겨 드렸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이 살렸대. 그래서 어떻게 살렸냐 그랬더니 보일러가 들어온다는 거야. 여지까지 그러면 할머니 저기 아줌마 우리 이해옥 씨가 아침마다 가서 보일러 만져 줬는데 그걸 모르세요? 석달의 일을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섭구나. 그래서 돌봄이라는 거보다는 그냥 같이 약 안드셨을 때 약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가서 이제 저녁에 봐주고 아침에 가서 저녁 드셨는지 약은 또 아침은 어떻게 약을 드셨는지 이거 봐 주는 거지 뭐 돌봄 이랄 것도 없는 거 같아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

■ 김희숙 : 그 말씀이 큰 힌트가 되네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신다 돌본다 이러면 받으시는 분들도 불편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같이 지낸다 이러니까 그게 노-노 돌봄의 장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 땐 나도 반대로 보살펴 줄 테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노루목향기에서 지금 한 몇 분 정도를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 심재식 : 다섯 분이요.

■ 김희숙 :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문득 궁금했던 게 혹시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 심재식 : 지원을 받으면 이건 노동이야 그런데 지원을 안 받아야 노동이 아니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

■ 김희숙 : 네

◇ 심재식 :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 김희숙 : 진짜 공감이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약도 생기고

◇ 심재식 : 노동이 되고.

■ 김희숙 : 그러면 정말 그냥 같이 사시면서 지역분들과 교류한다 생각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그런 형식이네요. 노루목향기가.

노-노 돌봄의 가장 자유로운 형식일 듯한데요. 제가 한 분께 좀 더 여쭙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혹시 뭔가 힘들었던 점이나 보람 있었거나 즐거웠던 점 이런 게 있다면

◇ 심재식 : 즐거웠다고 그런 것도 없고 뭐 또 보람됐다고 그러는 것도 없고. 그냥 나도 아프면 내가 이렇게 한 것 만큼 내가 돌봄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철이한테 맨날 너 앞으로 50년 살 거고 난 앞으로 몇 년 안 살 거니까 너 나 봐줘야 돼. 그리고 요새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애를 지금 구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희숙 : 선생님의 취미가 아까 맞아요. 강용철 선생님을 놀리는 게 취미다 그러셨죠

◇ 심재식 : 그래요

■ 김희숙 : 그러면 이번에는 강용철 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세 분께서 어르신들하고만 같이 지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마을 청년과도 어떻게 보면

교류와 돌봄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함께하시게 된 어떤 이해옥 선생님께 여쭙볼까요?
강용철 님은 어떻게 함께하시게 된 걸까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와 강용철 청년

◇ 이해옥 : 우리 씩씩한 강용철 님은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부터 교류하게 되었어요.

■ 김희숙 : 전부 다 마을 어르신들하고요?

◇ 이해옥 : 네. 어르신들 한 15명이 갔거든요.

■ 김희숙 : 어디로 가셨나요?

◇ 이해옥 : 속리산으로 갔어요

■ 김희숙 : 진짜 수학여행을 가셨구나

◇ 이해옥 : 그때 강용철 씨가 엄마하고 같이 사시는데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업

마 보호한다고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때 남자가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교련복을 입고 갔습니다.

■ 김희숙 : 교복 대신 교련복?

◇ 이해옥 : 네. 교복 대신 교련복을 입고 선도 완장을 차고 그때 갔다 오다가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들 노래 처음 들어봤대요. 영철 씨 노래 부르는 거를. 그래서 내가 영철이 보고 내가 기타를 좀 칠 줄 알거든요.



▲ 사진제공©여주시 주북리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 김희숙 : 아, 기타 치세요?

◇ 이해옥 : 네. 그래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더 멋있지 않겠냐고 해서 기타 사줄 테니까 배워 보겠냐고 했더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가지고 내가 기타 사줬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강용철씨가 혼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여기저기서 야단을 맞는? 아, 기타 지금 배우고 계시는 중인가요?

◇ 이해옥 :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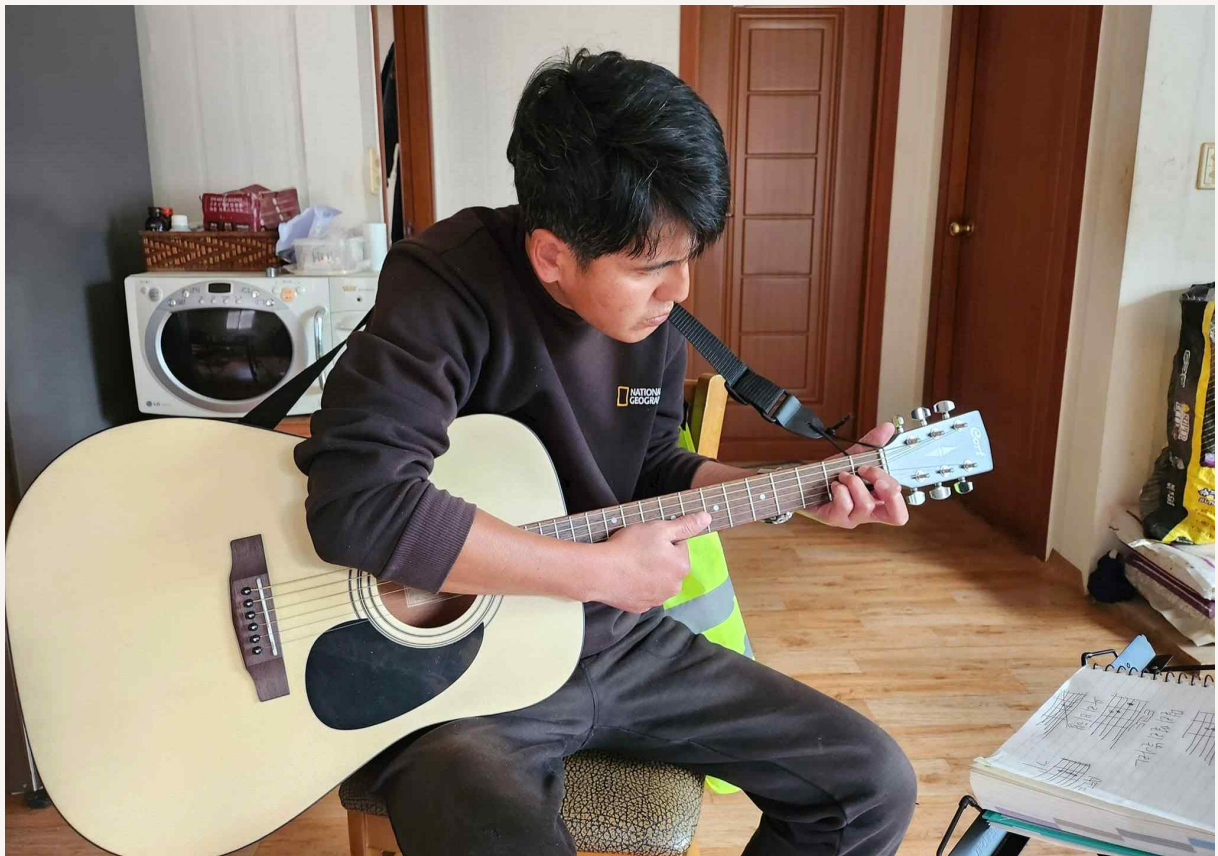
■ 김희숙 : 강용철 님 노래를 좋아하시죠?

◇ 강용철 : 네

■ 김희숙 :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아이노 코리다 나갈 때 리듬을 계속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었는데 어떤 걸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요? 일단 기타를 배우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야단을 맞고? 또 뭐가 있을까요?



▲ 사진제공©여주시 주록리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 심재식 : (화투) 풍광 맞추잖어

◇ 강용철 : 동네분들이랑 같이 퍼즐도 맞추고 점심도 자주 먹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 김희숙 : 그게 생활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젊은 청년이 함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든든하실 때가 있겠어요. 교련복 완장처럼

◇ 이해옥 : 그렇죠.

■ 김희숙 : 그렇구나 이렇게 함께하면서 강용철 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당연히 좋으셨겠지만 뭔가 없을 때보다 그전에 어르신들끼리 지낼 때보다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 심재식 : 우선은 젊은 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어머니하고 저희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갑네’, ‘동갑네’ 얘기하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도 같아요 어디까지 어떻게 내가 애를 케어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야단쳐도 입만 저렇게 삐쪽삐쪽하고 웃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애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든든하고 또 안 오면 걱정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걱정이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애를 만나면서 이제 다른 고민이 생긴 거야.

앞으로 50년을 애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를 해서 살 수 있게끔 내가 애한테 뭘 부여해 줘야 되나 동기부여를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다는 소리가 ‘안 해요’, ‘못해요’ 이래요..

◇ 심재식 : 내가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날 또 바뀌어가지고 나를 저렇게 또 삐죽거리면서 야단치겠지 또 그러는 거에 보면 애 때문에 웃을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고 또 믿음직한 청년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이가 있어서 내일을 모르잖아요.

■ 김희숙 : 그러시기에는 좀 많이 정정하신데요.



▲ 사진제공©여주시 주록리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 이해옥 :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우리 강영철 선생님께서는 좀 안타깝게도 뇌전증을 좀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동네분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못한 상태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못 찾고 있어서 우리가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와 강용철 청년

■ 김희숙 : 진짜 추진력 있고 기획력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어머니가 여러 분이 생긴 느낌이겠어요? 강용철 님은 여러 어머니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걸 느끼세요? 이전과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갑자기 많이 생긴 게

◇ 강용철 : 어울릴 수 있다는 거?

■ 김희숙 : 어울릴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면서 어머님들이 편찮으실 때 옆에서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야겠네요.

◇ 강용철 : 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해야죠.

■ 김희숙 : 지금까지도 충분히 버팀목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버려진 유기견과도 오래오래 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지금 유기견들까지 와서 보호를 받고 있나?

◇ 이해옥 : 유기묘까지 있습니다.

■ 김희숙 : 유기묘까지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유기견들까지 다 챙기면서 사시게 된 건가요?

◇ 이해옥 : 우리 동네에 이 고갯길이 있거든요.

■ 김희숙 : 네.

◇ 이해옥 : 그 고갯길에서 우리 동네 분 한 분이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는 강아지 새끼 네 마리를 누가 버리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누어서 키웠어요. 그게 처음 우리 강아지 유기견을 키우게 된 거였거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또 돌아다니는 개가 또 보여가지고 그 개까지 같이 우리가 사는데 요번에 또 그 개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식구를 늘려놨잖아요.

■ 김희숙 : 그래서 완전히 대가족이네요. 지금 어르신 세 분이 사는 게 아니라 대가족이네요.

개를 데려다가 키우자 하는데 마음이 다 맞으셨나 봐요.

◇ 심재식 : 내가 데려와서 기르면 재가(이해옥) 맨날 야단쳐요. 너 동물농장 돼 너 완전 우리 인형 개판이 돼.

개판 이래갖고 지금 더 기르고 싶은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못 해.

■ 김희숙 : 누가 반대를 해요?

◇ 심재식 : 이해옥 선생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 이해옥 : 개 세 마리에 닭이 열 마리에 고양이까지 만든 동물농장



■ 김희숙 : 여기서 더 늘리면 안 된다?

◇ 이해옥 : 안 되지.

■ 김희숙 :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시니어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살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돕는 노-노 돌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청년도 유기견도 유기묘도 모두를 돌보는 돌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볼게요.

Adam Levine(애덤 리바인)이 부릅니다 Lost Stars

■ 김희숙 : 최숙자 님이 너무나 행복하시게 사는 것 같네요.

지혜롭고 현명하시네요. 듣고 있는데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건강하세요 그러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면 서령 님이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연세 있는 분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세월을 사신 분들끼리 서로 보면서 미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관심사나 생각이 통해야 대화도 같이 하는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더 통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앗, 젊은 분도 계셨구나 그랬는데 강용철 님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특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타 연습하고 계시고 저희가 기후 콘서트라고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언제 시간 되시면 기타 들고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 인터뷰 / 심재식 노루목향기 대표와 강용철 청년

◇ 심재식 : 거 봐, 애 안된다고 그러잖어

■ 김희숙 : 아까 말씀 중에 수학여행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진짜 교복 입고 여행 갔던 그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학교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연령대 지금 팔십, 구십 이러신 분들이시면



▲ 인터뷰 / 이해옥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 이해옥 : 모두 6학년 7학년 8학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8학년 분들은 거의 다 학원을 못 다니셨죠. 처음 입어보시는 분이고 7학년 분 몇몇 분도 그렇죠. 그때서야 고백하신 분도 있었어요. 내가 학교 내가 안 가봤다고 많이 못 다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교복을 소중하게 느끼시면서 (길을 걷다) 가다가 보면 유리창에 자기가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자꾸 비쳐 보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 김희숙 : 이 수학여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역 동네 어른분들이 어디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떤 기억에 치유도 되셨을 것 같아요.

◇ 이혜옥 : 그렇죠. 처음에는 축스러웠었는데 교복을 입고 걸어갈 때에 우리를 반겨주는 분들이 우리 연령대에 어르신들이 또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야 반갑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 다들 놀래가지고 다 감격했어요.
 다 그때부터 기가.. 어깨가 펴지는 거야, 아 이거 괜찮구나. 그때부터 돌아오는 내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신 것 같아요.



▲ 사진제공©여주시 주록리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복향기

■ 김희숙 : 그래서 이 수학여행을 또 제안하셨다고요. 어떻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

◇ 이혜옥 : 네.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거기서 우리 여주시에다가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주에는 경로당이 12개 면에 있거든요. 12개 면에 한 경로당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봐야 비용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갔다 왔는데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 김희숙 :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같은 연령대니까 기획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저희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교복 입고 1박 2일 수학여행 갔다 오면 어떤 치유가 될 것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니까 이런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래서 노-노 돌봄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치매 어르신 마을청년, 버려진 강아지, 고양이까지 행복한 삶을 꾸리도록 도와주시는 여주의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 40초 정도 남았는데 한 1분씩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마을공동체나 경기도 마을 하자 캠페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심재식 : 우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찌했든 우리도 한번 여기서 참여를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5명 모여서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퍼즐도 맞추고 이번에 다다다 노래도 춤도 춰보고 이런 거가 굉장히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활력소라고 생각을 해요

■ 김희숙 : 네. 활력소가 됐다 캠페인이. 또?

◇ 이혜옥 : 우선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공동체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졌는데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재미를 느끼니까는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도 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 김희숙 : 강영철 선생님 마무리 인사 짧게 해 주신다면요?

왜 웃음만 웃으시는 언젠가 한번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시리라 기대를 하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니까 서령 님이 태초의 대가족 동네 모습 같네요.

한때 어른들 곁에서 우리도 앞날을 보며 미리 생각도 해보고 미루어 터득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도시의 핵가족이 되면서 다들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는 짧은 팀의 개인 생활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그런 농담을 들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장수를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90 넘은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70 80 되신 분들이 모여서 가서 막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런다고 장수마을의 비결을 어르신들끼리 모여 사는 얘기를 하던데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신 노-노 돌 돌봄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주의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에 이해옥 심재식 선생님,
그리고 마을 청년 강용철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상하고 놀라운 마을이야기 '경기마을주간' 3인 토크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6월18일(화)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운선
- 출연 : 곽현지, 이영재, 연인선
- 주제 : 마을SDGs와 경기마을주간



■ 김희숙 : 오늘의 기후, 오늘은 우리가 사는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만들자고 고민하고 계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짝 찼는데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김희숙 : 청취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열흘 남았죠. 경기도 마을 주간을 앞두고 특히 바쁘십니다.
곽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장님 어서 오세요.

◇ 곽현지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역에서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곽현지라고 하고요.
평소에는 정책이나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데 요새는 2024 경기마을주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팀장

■ 김희숙 : 곽현지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이영재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님 안녕하세요.



▲ 인터뷰 / 이영재 더가능 연구소 연구실장

◇ 이영재 :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벌써 4년 됐네요.

경기도 마을공동체와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만드는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더가능 연구소의 이영재 연구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분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지속 가능성 지표와 연결시켜서 SDGs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계십니다.

연인선 용인시 마을활동가님 안녕하세요.

◇ 연인선 : 안녕하세요.

■ 김희숙 : 소개를 해주신다면?



▲ 인터뷰 / 연인선 마을활동가

◇ 연인선 : 저는 원래는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10년째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마을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시마을네트워크,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그리고 용인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계속해서 마을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활동가 연인선입니다.

■ 김희숙 : 연인선 용인시 마을활동가님 반갑습니다. 이 세 분 모시고 오늘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알아봐야죠.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퀴즈 >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 주민이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계절에 따라서 리모델링되고 폐기되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지역 내에 필요한 마을 정원에 무료로 나눔을 하자.
그러면 마을 곳곳에 식물 다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에 수십 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리면서 토론이 시작됐고 이렇게 우리 동네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제안과 토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요. 어떤 사이트일까요?

- ① 넷플릭스 ②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 김희숙 : 어떤 분이 정답을 발표해주실까요? 팀장님?

◇ 광현지 :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벌써 진행자님께서 충분히 힌트를 주셔서 대부분이 맞혀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2번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입니다.

■ 김희숙 : 저희가 모든 사람 전원 100점이 목표인 퀴즈여서 최대한 힌트를 드립니다. 도미니가 저는 이걸 딱 보고 도미노 게임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혹시 경기도민의 '도미니' 인가요?

◇ 광현지 : 네 그렇습니다.

■ 김희숙 :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도미니 하니까 이탈리아어 같아요.

8186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버려지는 꽃 화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

그러셨고요. 8996 님도 새싹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정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꽃 종류를 나눔에서 재활용한다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셨고요. 3616 님 3505 님 다들 많이들 정답 한 분도 오답 없이 여러분들이 2번 보내주셨습니다.

6580 님 차가 엄청 막히는데 방송 들으면서 가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한정애 님은 처음 들어보는 정보라고 하네요.

잘 들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 광현지 :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는 저희도 간단하게 도미니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도미니. 말 그대로 도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책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게 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면 이 정책 플랫폼에서 현실화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일단 홈페이지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 광현지 : 아무나 쓸 수 있어요.

■ 김희숙 : 그럼 본인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밝히고 써야 되나요?

◇ 광현지 : 밝히고 쓰셔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마을 개선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그 아이디어는 주민 공감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그것들과 관련된 정책 관계자들을 모시고 함께 공론장을 엽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마을 주민들이 이런 거를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또 계세요.

■ 김희숙 : 도우미들이 계세요?

◇ 광현지 : 도미니이기 때문에 도미니언즈라는

■ 김희숙 : 이름이 귀엽네요. 도미니언즈.

◇ 광현지 : 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 선정된 마을활동 베테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 과정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아까 연인선 활동가님도 도미니언즈인가요?

◇ 연인선 : 저는 아닙니다.

■ 김희숙 : 그럼 지역에 다른 분들이 도미니언즈로 계시나요?

◇ 연인선 : 네

■ 김희숙 : 그렇구나.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책 제안 누가 한 사람 했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좀 주변에서 다른 회원들이 도미니들이 공감 댓글 쪽 달리면은 기준이 있겠네요.

몇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없나요?

◇ 광현지 :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은 30명 50명 이상 정도 댓글이 달리거나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런 사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언즈들은 매달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들이 과연 마을을 위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속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 김희숙 :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30명으로 딱 선을 정해서 29명까지 동의하면 안 되는 건가 31명이 동의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럼 혹시 이 사례를 통해서 이거 참 재밌는 아이디어가 실현됐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 인터뷰 / 광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팀장

◇ 광현지 : 실현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원래 경기도에는 검정고시장이 수원하고 의정부밖에 없었습니다.

■ 김희숙 : 정말이요?

광현지 : 인구가 1300만이 넘고 31개 시군 인데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고시장이 두 시군밖에 없어서 매우 불편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도미니의 이런 개선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정책 공론화를 시킨 끝에 수원, 의정부, 고양 용인 이렇게 4개 시군으로 확대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농촌 마을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도로 보도 환경이 좀 나쁘잖아요.

■ 김희숙 : 맞아요.

◇ 광현지 : 차 위주로 도로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되게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아이디어들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하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같이하고 공론화를 한 끝에서 양평군에서 국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에서 모든 군민들한테 보험을 이제 들게 해주는

■ 김희숙 : 군민안전보험.

◇ 광현지 : 네 그런 성과도 최근에는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 김희숙 : 맞아요. 길을 걷다 보면 길이 중간에 끝나요. 저도 신도시에 이사 가서 살았을 때 보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리고 차만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은 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끊긴 길들도 있고 했는데 양평군에서 군민안전보험 그러면 이제 보행이나 농기구를 끌고 어딘가를 움직이시거나 할 때 어쨌든 이동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가요?

◇ 광현지 : 예. 일종의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보험을 이제 국민들한테 들어줬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행 환경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주민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그 안전은 지역사회가 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공감 의식을 도미니를 통해서 형성했다는 것에 저는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김희숙 : 그렇네요. 군에서도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볼 거고요. 아까 소개할 때 광현지 팀장님께서 정책 담당인데 여러 가지 실무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열흘이 남았다고요.

경기도 마을주간 행사는 어떤 행사일까요?

◇ 광현지 : 경기 마을주간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경기 마을공동체의 큰 잔치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면적도 크고 인구도 제일 많고 가장 많은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희숙 : 그렇네요.

◇ 광현지 :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모두 모여서 서로의 활동도 알고 교류도 하고 또

전국에 경기 공동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홍보도 하고.

■ 김희숙 : 홍보도 하고요?

◇ 광현지 :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리는 즐거운 파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숙 : 아무나 가도 됩니까?

◇ 광현지 : 아무나 오셔도 돼요. 마을은 누구나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마을에 살고 있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파티입니다.

■ 김희숙 : 그러니까 활동하셨던 분만이 아니라

◇ 광현지 : 그렇습니다.

■ 김희숙 : 그래서 챗gpt가 만든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마을 노래 '수상한 마을' 노래를 듣고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 5부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여러분 인터뷰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0999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여쭙보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마을주간이라고요.

아까 광현지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경기도 마을주간이라는 게 언제 있는 어떤 행사인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시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 '수상한 마을'>

여기 수상한 마을이 있어
누군가 있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있어 마을은 무엇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마을이지 나는
마을에 살고 있을까 마을밖에 있을까
마을에서 모여봐
작당을 꿈꿔봐
상상했던 모든 것을 마을에서 펼쳐봐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
작고 소박하고
우스워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여기 수상한 마을이 있어
모두가 있고 모두가 어울려
여기 수상한 마을이 있어
모두가 다른데 모두가 같아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세
땀땀땀따라땀땀땀
수상한 마을에서
꿈꾸며 놀아봐

◇ 광현지 : 말씀드렸듯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과 예술 문화공원 그리고 호계체육관에서 펼쳐지는 경기 마을공동체의 큰 행사입니다.

■ 김희숙 :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에서도 27, 28, 29 3일 동안 계속하고 호계체육관에서 27 28 29 이렇게 3일동안 계속하고

◇ 광현지 :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안양 김중업 박물관에서 수상한 마을 컨퍼런스 33개 세션이 돌아가고요. 29일 하루는 호계체육관에서 명랑 운동회 체육대회가 벌어집니다.

■ 김희숙 : 옛날에 운동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같이 노는 행사였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운동회를 하게 되겠네요. 김중업 박물관을 광명시 도시재생센터 황종대 센터장님이 저희 기후 건축학을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여기를 꼭 가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꼭 한번 보라고. 근데 여러분 6월 27일 28일 안양시 김중업 박물관에 가시면은 경기 마을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9일에 호계체육관에서 운동회를 하는 거네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광현지 : 그렇습니다.

■ 김희숙 : 상품도 당연히 많고요?

◇ 광현지 : 상품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희숙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 마을 주간 검색하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다음 우리 궁금한 걸 여쭙보자면 이영재 더가능연구소의 수석 연구원님 마을공동체 성과지표라는 걸 주민들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을공동체 성과지표가 뭘지 이걸 만들어서 많이들 누가 기뻐할까 그러니까 이 평가를 활동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공무원 분들도 부담일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이 마을공동체 성과지표가?



▲ 인터뷰 / 이영재 더가능 연구소 연구실장

◇ 이영재 : 이거는 일종의 성적표긴 한데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고득점자를 추려내는 이런 마이너스형 성적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령 기후 위기나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기들 극복해야 될 위기들과 관련해서 이걸 극복해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성과들을 모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성적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성과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마을활동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80%에서 90%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 김희숙 : 왜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 이영재 :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 왜곡 보도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한대요.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만큼 세금을 줬는데 성과가 뭐냐 근데 이거를 기업체 성과 평가를 하듯이, 아니면 행정의 성과 평가를 하듯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마을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제대로 공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마을의 성과들을 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명쾌하게 이해가 됐는데 저는 사실 성과지표를 만들면 이게 막 평가받고 이러는 건데 이거 좋아하실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무슨 활동을 그동안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종의 나침반일 텐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거를 또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 이영재 : 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는 3개 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지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 주민자원지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체지표 안에는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네트워크의 변화가 확인이 되고요.

지속 가능 발전 지표는 SDGs 17개 목표와 관련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확산됐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주민자원지표는 행정의 지원금과 별개로 마을에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얼마나 결합이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책상 머리에서 연구진들이 설문이나 문항을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차례 설명회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쪽 거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항 하나하나가 주민들과 같이 만든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희숙 : 플러스 성적표가 무슨 뜻인지 점점 명쾌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표 몇 개를 놓고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아까 30명까지 동의하면 정책 채택을 해주고 29명이면 안 해주는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될 그동안 공부했는지를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게 항목들을 의논해서 만든 거네요. 어떤 걸 이루어냈는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성과지표 개발하시면서 저희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으신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 이영재 : 에피소드는 많았죠. 성과지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평균 이하를 잘라내기 위한 건가 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셨고요.

나를 평가하나? 이런 약간 불편한 그래서 괜히 마을활동이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하셨고요.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회를 했을 때 와서 막 항의도 하셨어요.

그때가 농번기였는데 농촌 주민들은 특히 농번기에는 굉장히 바쁘세요.

마을활동가분들을 농번기에 모아놓고 연구하는데 지금 우리를 도구로 쓰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었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그분이 마을활동에 제일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 현장에서 주민자원지표를 조사할 때는 처음에 연락을 드리면 2시간에서 3시간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좀 꺼려하세요. 그리고 썼던 비용이나 이런 거를 꼬치꼬치 여쭙게 된다고 하면 네 근데 막상 가서 행정의 지원금 외에 들어간 마을의 자원들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했던 강의나, 이웃집에 찾아갔던 것들 이런거 하나하나 측정을 하는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아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어디로 사라져버렸던 것 같은 내 노력이 되살아서 오는 것 같다.’ 며 어떤 활동가분들은 막 울기도 하시고 되게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1개 시군 어떤 마을공동체에 가서 마을성과 측정하러 왔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대충 다들 아십니다.

■ 김희숙 : 그동안 보이지 않게 노력한 것들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지표네요.

◇ 이영재 : 네. 그렇습니다.

■ 김희숙 : 그러네요. 저도 약간 좀 잘 몰라서 이런 마을활동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겠지 그걸로 지역 활동가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자기 돈을 쓰거나 자기 재능, 자기 봉사로 했던 활동들을 이 성과지표 안에 담아서 이걸 했다고 보여주는 거군요. 굉장히 소중한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갑자기 급격한 회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지표를 누가 좋아할까? 곽현재 팀장님하고 연인선 선생님 보실 때는 이 성과지표 개발이 어떠셨나요?

◇ 연인선 : 저도 마을활동가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을활동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으면 사실은 사회적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도 사실은 받을 수 없게 돼서 결국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하기 힘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움직임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사회적 자산이 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는지 꼭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경기도와 더가능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마을활동가들은 열심히 활동을 할 뿐이지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 김희숙 :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모델이 딱 생기면 전국으로 전파되기도 훨씬 쉬겠네요.

◇ 연인선 : 그럼요

■ 김희숙 : 아, 이게 그렇네요. 팀장님은요?

◇ 곽현지 : 말씀들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목표가 새롭게 있는데 이 지표가 저희 같은 직원이나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저희 박사님 같은 연구진들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활동가가 스스로 본인들의 마을활동을 측정 하고 적용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표를 지금 더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 스스로 마을활동을 측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 김희숙 : 채점을 스스로 해서 발표하는 거군요.

◇ 광현지 : 그렇습니다.

■ 김희숙 :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꼭 마을활동만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게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성적표라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 크게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 기다리셨던 연인선 선생님, 보드 게임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보드 게임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마을활동에 대해 카드로 얘기해봅시다

마을활동이 어떻게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 연인선 : 마을활동가들은 대체로 말 그대로 활동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좋은 일이라면 그냥 뛰어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활동가들의 맹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마을활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라 가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지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마을 SDGs 활동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카드를 이용해 다음 질문들을 내고 답하고
맞추는 **협력 게임**을 해보세요



지금 OO마을에 필요한 활동들은?

OO마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은?

나에게 보람을 많이 주었던 마을 활동들은?

그 외에 마을활동과 관련된 자유로운 질문



자세한 게임 설명은 카드게임 박스 안에 있는 설명서나 설명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야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활동이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꼭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꺼내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사실 마을활동가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로 하지 않고 그 게임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게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교육도 많잖아요. 마을활동가 교육도 있고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은데 거의 다 이제 포스트잇을 쓰거나 이제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재미없어졌죠. 그래서 좀 참신하고 다양한 도구 개발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용인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과 교육보드게임 협동조합이 각각 콘텐츠와 기술을 제공해서 함께 이 카드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 김희숙 :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여러분 보드게임 카드가 이렇게 몇 개 나왔는데요. 마음돌봄, 주민식생활교육, 공유냉장고, 로컬푸드이용, 텃밭가꾸기 등 보드 게임 그림도 되게 예쁘게 그려졌어요. 타로 카드처럼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4명에서 이 게임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연인선 : 이 카드 게임의 제목은 마을 SDGs입니다. SDGs는 아까 이영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UN이 제시한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인 불균형, 식량, 기후, 사회, 환경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모든 국가가 세계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이것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객관적인 마을활동 가치 인식 확산에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희숙 : 이 SDG의 그 기준에 얼마큼 우리가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 연인선: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언급하셨지만 작년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더가능 연구소에서 성과지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 쪽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관시켜 분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 김희숙 : 네



▲ 인터뷰 / 연인선 마을활동가

◇ 연인선 : 성과지표 측정 개발 연구가 이 카드 게임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 막 제작 중이어서 제가 오늘 실물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핵심은 게임을 하면서 마을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키면서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당하는 마을활동들의 예들을 각각 하나씩 카드에 담았습니다. 총 40장의 마을활동 카드가 있으니 목표당 2, 3개의 활동을 선정해서 만든 셈입니다. 게임은 2명도 할 수 있고 5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자세한 게임 규칙은 설명서에도 나올 거고 조만간 안내 영상도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은? 또는 우리 마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활동은? 또는 나에게 보람을 많이 주었던 마을활동은? 3개의 질문에 또 하나 자유롭게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질문을 하나 더해서 이 중에 하나의 문제를 내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활동과 우선순위를 맞추면서 어떻게 문제 내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논의해서 같이 알아맞추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 김희숙 : 지금 말씀 들으면서 화면에 그래서 우리 마을의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활동 두 번째 마을 활동 이렇게 카드 질문이 던져지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고르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 연인선 : 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카드게임 예시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락 나눔



빈곤 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돌봄 활동
+
반찬 및 도시락, 김장 나눔
+
공유 냉장고
+
학교 밖 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밥상 나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마음 돌봄



어르신 복지프로그램,
유·아동 안전 활동
+
아동학대 및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마음돌봄 심리치료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마을 하천지킴이활동



마을 하천·호수 지킴이 사업
및 환경정화 활동
+
강·하천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오염 방지 시설 견학
+
지하수 및 빗물 재사용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마을 내 일거리 만들기



마을내 일거리 만들기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참여
+
마을특산물 개발
+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 김희숙 : 서로 다르게?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카드를 그냥 빙자해서 대화를 하는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타로 보러 가면 그림 놓고 살아온 얘기를 막 하잖아요.

◇ 연인선 :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 김희숙 : 이거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림은 누가 그리셨나요?

◇ 연인선 : 그림은 협동조합에서 직접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었어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이런 것도 그러면 성과지표를 측정 할 때 그분의 활동으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요.

◇ 이영재 : 그래야죠.

■ 김희숙 : 보드 게임 이거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제목만 살짝살짝 바뀌서 이게 사실은 연인선 선생님께 제가 여쭙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충분히 못 여쭙보겠는데 왜 이 마을활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 게임 안에 있는 질문들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카드를 저하고 둘이서 하는 거죠. 여쭙보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시간이 지금 세 분께 돌아가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연인선 선생님이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혹시 또 아까 못 다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해서 마저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연인선 : 제가 마을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마을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래는 사실은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존중받고 인정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좀 더 잘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책적으로 이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먹어봐야 맛도 알듯이 또 해봐야지 어떤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서 이 마을활동에 한번 발을 좀 담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숙 : 그래요. 다음에 오늘 저한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신 이영재 연구원님

◇ 이영재 : 하던 같은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서 공공재일 수도 있고 공유재인 자원들이 서서히 사라져서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전망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있는 공유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없던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을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공동체와 마을 주변을 위해서 좀 보람된 일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희숙 : 여러분 없던 공유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곽현지 팀장님께서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신다면?

◇ 곽현지 :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인선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카드 게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도미니 사이트에 그런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사소하고 소박하지만 우리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들을 현실화할 수 있고요. 저희 도미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SDGs 카드가 저희 경기 마을주간에 최초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선 활동가님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게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함께 경기 마을주간에 참여하셔서 다 같이 이 의미를 널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경기 마을주간에서 보드 게임이 이제 딱 출시가 돼서 게임을 하는 거군요. 네 오늘 세 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광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 정책 팀장님, 이영재 더가능 연구소 수석연구원님, 연인선 용인시 마을활동가님이셨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또 역할이 크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올 방학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적용... 마을이 아이를 돌봅니다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6월18일(화)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윤선
- 출연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
- 주제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모집 안내 등



변화의 중심
기회의 열기

N°07

경기도 기회소득 아동돌봄

+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 공동체별 5인 이내
+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 (소득요건 미제한)
+ 지원기간	매월 1일 ~ 10일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퀴즈 >

엄마아빠한테 긴급한 일이 생겨서 누가 잠깐만 우리 아이 돌봐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본 경험 다들 있으실겁니다. 긴급상황 아이돌봄, 학교나 유치원 등하원길 지원, 방학 때 급식간식 지원 등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공동체가 메우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뤄 지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이처럼 마을공동체 아이돌봄을 하는 분들께 월 3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뭘까요?

1.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 우리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가자

(힌트, 사업 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다시한번)

긴급상황 아이돌봄, 학교나 유치원 등하원길 지원, 방학 때 급식간식 지원 등 돌봄 사각지대를 마을공동체가 메우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뤄지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이처럼 마을공동체 아이돌봄을 하는 분들께 월 3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뭘까요?

1.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2. 우리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들어가는 #0999로 주시면 정답맞추신 한분께 <오늘도 톡톡콜라겐>에서 드리는 '톡톡 보습 실리콘 마스크 커버'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때는 문자 안보내셔도 됩니다. 생방송 때만 보내주시고요, 짧은 음악 듣고 인터뷰 시작합니다.

■ 김희숙 :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앞서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 모셨습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희숙 : 과장님 오늘 저희가 얘기할 사업의 주제가 아이 돌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적인 질문이어서 좀 불편하시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과장님도 아이 돌봄 해보셨는지 육아하면은 어떠신지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저도 육아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던 상황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다 커서 청년이 됐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아이를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엄마가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은 저는 뭐 사실 큰 어려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 김희숙 : 닥에서도 듣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 공동체지원과장 :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의 엄마인 여성들에게 육아 돌봄의 문제가 쏠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즘에는 독박 육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구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웃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문화가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김희숙 : 과장님. 그럼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면 그렇게 돌봐줄 분이 안 계셔서 사모님께서 경력 단절을 해야 했던 그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20년 전인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 15년 정도 전이요.

■ 김희숙 :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겠죠? 홍성호 과장님은 공동체지원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공동체지원과는 또 뭐야 이러면서 들으실 텐데 이름이 참 예쁜데 저희가 공동체지원과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인터뷰를 한 번씩 했는데 분야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동돌봄도 하고 청년지원도 하고 텃밭활동도 하고 진짜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지원과는 어떤 부서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막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부서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

◇ 공동체지원과장 : 저희 부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말 그대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많은 난제를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청년공동체 지

원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웃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마을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는 일,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 공동체 지원과의 업무입니다.

■ 김희숙 :진짜 그럼 다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라면

◇ 공동체지원과장 : 맞습니다. 분야가 따로 없습니다.

■ 김희숙 :6454 님 맞벌이를 합니다. 우리 딸한테도 조카한테도 이 사업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셨네요. 진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공동체지원과장 : 현재 아동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화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주민들은 돌봄의 틈새 공백 발생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있지만 공적 돌봄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모임 등의 공동체를 구성해 갖고 돌봄 활동을 통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아동 돌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을 지급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의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을 장려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돌보는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숙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공적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셨는데 진짜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깐 그걸 정말 촘촘하게 아무리 짜도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문제는

홍성호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그거를 사회적 활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말씀 들으면서 문득 궁금했던 게 집에서 우리 애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애 한 번 키우면 전부 막 아 후련하다 이제 둘째 낳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남의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 얼마만큼 지원을 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

◇ 공동체지원과장 : 실제로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지역의 사례는 많은데요.

그중에서 작년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우수 마을상을 수상한 경기도 포천시에 포천맘들의 꿈터 또 일명 포맘터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일상적인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또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밤 9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긴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맡겨도 되냐는 다급한 도움을 요청한 전화에 대

해서 포맘터 공동체에서 아이를 돌봐줘서 무사히 가족이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를 느꼈는데요.

평균 60대인 여성들이 모여서 자기 개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자 또 맞벌이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은 일에 집중하고 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포맘터는 아이를 돌보자 또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면 마음 편하게 일하겠지 또 그러면은 아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셔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 김희숙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60대 초반 50대 후반 그러실 때 그 얘기하신 적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때 막 많이 생겼는데 거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돌보는 분들 뽑을 때 나이 제한을 자꾸 두니까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잘 애들을 알고 키울 텐데 애 안 키워본 젊은 사람들을 왜 우리를 안 뽑아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맘터 같은 경우는 정말 60대 분들이면은 애들 표정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니까 크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 아이들을 도와줄 때 경기도에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회 소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얼마씩 받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퀴즈에서는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1인당 20만 원이다 그랬는데

◇ 공동체지원과장 : 아동 돌봄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 활동 참여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1인당 약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 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요.

소득 요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희숙 :그럼 월 30시간이니까 매일 애를 봐주는 게 아니라 급할 때 한 번씩 잠깐잠깐 돌봐주는 거 이거를 지금은 사실 무상으로 다들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서 소득을 보

장해 주시는 거군요.

지금 아까 우리 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6454 님 그러셨는데요.

이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홍성

이제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경기 민원 24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월 초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6454 님 그런데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

◇ 공동체지원과장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그렇네요. 그러면은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아이 돌봄 사

례가 혹시 없나요 하는 거를 막 찾아보거나 문의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을 때만 알 수 있나요?



▲ 인터뷰 /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

◇ 공동체지원과장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시군에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문의를 하시면은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 김희숙 :그러면 6454 님이 지금 알아보셔야 할 거는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이런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네.

3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20만 원은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신청할 때 역시 경기도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 맞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사실 이걸 30대 40대 아이 키우는 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60대 이상 갖고 있는 지혜를 뭔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의

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요.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0999 유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5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5부)

하늘과 숲과 바람의 소리 오늘의 기후 5부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4부에 이어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큰 사업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4부에서 과장님께 아이 돌봄 하신 적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청년이다 그래서 15년 전에 양가 부모님 가까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일을 그만두고 전념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사모님 좀 아쉬워하시지 않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 공동체지원과장 : 그때 집사람이 아쉬운 것보다 제가 더 아쉬워했죠



▲ 인터뷰 /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

■ 김희숙 : 그러셨군요.

◇ 공동체지원과장 : 15년 전에는 좀 남자로서 또 집사람이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남자로서 그래 그만둬라

■ 김희숙 : 멋있어 보이죠.

◇ 공동체지원과장 :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저보다 더 벌고 있었거든요.

■ 김희숙 : 월급이 더 많으신데도 그런 뼈아픈 결단을 하고 15년 동안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더 이 아이돌봄 기회소득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관심이 많습니다.

■ 김희숙 :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님께 여쭙게요. 이 사업이 경기도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중앙부처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율 문제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 이 사업을 만들면서 힘든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통보될 때까지 한 7개월이 걸렸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또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복지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좀 검토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작년 11월에 이제 사회 보장 협의를 신청하고 또 복지부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 배경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또 설득을 했고요. 또 10여 차례에 걸쳐서 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른 보완 자료를 제출해서 금년 6월에 위원회 심의회를 통해서 위원분들이 걱정하거나 또 궁금해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결과 복지부도 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갖고 7월 2일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돌봄의 수요가 가장 많은 방학 기간에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숙 : 그러게요. 방학 기간하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는 그 급식 간식 먹는 거나 이 방학 때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가, 아,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아동 돌봄이라는 형태가 지금 포맷터에서 응급 상황에 밤중에 막 아이 돌봐주는 그런 경우처럼 긴급 육아가 있을 거고 퀴즈에 나갔던 것처럼 등하굣길 등하원길 급식 간식 챙겨주는 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활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 다양한 직접적인 돌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긴급 돌봄이나 또 일시 돌봄이 필요한 출퇴근 시간, 유치원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 부모 긴급 상황 발생 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등하원 지원, 방과 후나 야간 돌봄, 방학 기간 주간 돌봄 중에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 김희숙 : 아이들을 서로서로 품앗이하면서 꼭 어르신들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엄마들끼리 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 김희숙 : 옆집에 맡겨놓고 가고 이럴 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청돼서 지원금이 나오면. 제가 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공동체지원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공동체 하면은 뭐를 공동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공동체 하면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마을 이렇게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사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내)동만 공동체라고 해도 되나 아니면 우리 단지가 다 해야 되나 지원해 주시는 공동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또 사실 아파트 살다 보면은 옆집 사람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야 알고 그러는데 공동체의 지원에서 이 공동체가 진짜 그렇게 많이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 공동체 하면은 어떤 대단위의 인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만 말한 게 아니고요. 공동체라하면은 소수의 인원이 포함된 단체도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이제 농촌도 있을 수 있고 도시에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혼자 하기 좀 어려운 것들 그 지역의 어떤 난제든가 갈등 문제든가 그런 걸 혼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해결해 감으로써 그런 난제나 갈등이 해소되면 또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지원과는 그런 공동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 김희숙 : 그러면 공동체는 뭐다 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거는 주위분들하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거네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 공동체지원과장 : 그건 아닙니다.

■ 김희숙 :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어떤 모임을 해도 공동체가 되는 거고

◇ 공동체지원과장 : 당연하죠.

■ 김희숙 :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곳에서 인허가 받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이라고 안 하고 공동체라고 하신 거네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 김희숙 :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직접 본인이 급식 간식을 제공하거나 등하교 길에 손 잡고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뭔가 간접 돌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떤 활동이 있고 이분들도 지원 대상일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 물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부모 교육 예산 등 재정에 관한 계획 등의 업무를 하시거나, 아동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돌봄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업무, 급식이나 간식을 준비하는 업무 등 돌봄이 필요한 간접적인 돌봄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 김희숙 : 꼭 아이들 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원하는 간접적인 활동 모든 게 다 지원 대상이 된다.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 홍성호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을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거기에 대한 기회 소득을 보장해 준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좀 헛갈리거든요 아무래도 좀 자격이 있겠죠.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겠죠?

◇ 공동체지원과장 : 네 있습니다. 공동체 선정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명이 이상이어야 하고 돌봄 전용 면적은 33 평방미터 이상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유번호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돌봄 공동체의 내부 규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과 자원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 1개월 이상 공동육아나 또 돌봄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일이다 보니 준비 서류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희숙 : 그렇겠네요. 시청이나 군청에 물어보고 거기 아이 맡기면 돼요 했는데 탈이 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돌봄 공동체 이거 해보고 싶은데 뭘 챙겨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도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 부서로 가서 여쭙보시면 되나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 그래서 약간의 기준과 자격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이런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사업을 하시면서 이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공동체지원과장 : 요즘 결혼이나 출생을 기피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일가정 양립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아이를 돌보고 또 어찌 보면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우리의 미래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사업이 출생과 육아의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 김희숙 : 맞아요. 아이들을 왜 안 낳냐 하지만은 낳으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사모님처럼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그만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아이 낳는 걸 자꾸 어려워하는데 이 사업이 좀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계속 공동체에 대해 따지 거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 만약 과장님이 공동체지원과 과장님이 아니세요?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내가 공동체 지원을 좀 받아봐야겠다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 저는 좀 재미있는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 김희숙 : 그래서 어떤 건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 저는 음악 동아리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좀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은 사람끼리 음악을 한번 해보고 그럼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서 좋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 내다 그러면은 직원분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가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즐겁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희를 보면서 또 힐링할 수 있으니

■ 김희숙 : 어떻게 잘 못하는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힐링이 될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 못하니까 웃긴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저렇게도 지원받는구나 이런 힐링인가요.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 나중에 경기도에서 음악 동아리를 하시면 OBS에도 한 번 나오셔서...

◇ 공동체지원과장 : 네. 알겠습니다. 꼭 초청해 주십시오

■ 김희숙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께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힐링을 주시는 걸로. 네, 공동체 지원과 과장님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뭐 어려웠던 점 혹은 뭔가 보람을 느꼈던 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 공동체지원과장 : 제가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현장에서 찾아봤는데
요. 그래서 그중에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곳이 여주시에서 세 할머니들이 공동체를 구
성을 해서 여주 산촌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공동체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아동 돌봄
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약간 혼자 계시는 할머
니나 할아버지를 모셔서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하시고 은둔해 있는 청년한테 음
악을 가르쳐줘서 나홀로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열심
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 할머니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활기차졌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작은 활동이 이 동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 한번 보고 좀 어떻게 보면 놀랐죠.

■ 김희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나 이런 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공동체가, 세 할머니의 노력이 활동이 마을 하나를 다 통째로 바꾸더라. 세 할머니 공동체는 유튜브에서 오늘의 기후 채널 검색하시면은 혹은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홍성호 과장님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시는 일에 더 많은 즐거움과 사명감을 느끼셨겠어요?

◇ 공동체지원과장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공동체지원과장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미래 세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숙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공동체 지원과 홍성호 과장님이셨습니다. 월로 공동체 지원을 우리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많이 의논하고 또 문의하셔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기청년 기회 지원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청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무료 해외연수, 경기청년사다리

우와, 경기도가 일냈네, 무료 해외 연수 경기청년사다리 실제후기



하고 싶은거 다해, 경기청년 갭이어

"하고 싶은 거 다하며 진로를 찾았어요"
경기청년갭이어 참가자 3명의 레알후기



토익부터 노무사, 변시 응시료까지

[1인당 30만원] 토익부터 노무사, 변시 응시료
까지 다 쓰는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

우와, 경기도가 일냈네, 무료 해외연수 경기청년사다리 실제후기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3월21일(목)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운선
- 출연 : 김나현, 장지호
- 주제 :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실제 사례 후기





■ 김희숙 : 기후학교 오늘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앞서 퀴즈에 나왔던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해외대학 연수를 다녀오신 경기도 청년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지호 님, 김나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스튜디오 들어오시니까 분위기가 확 밝아져서 제가 같이 수다 떨다가 오프닝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지고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해 주신다면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거어요?

김나현 님?

◇ 김나현 :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다 북한의 개성이 더 가까운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김나현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 김희숙 : 경기도 파주에서 제가 한 8년 살았거든요. 10년. 그때 개성에 견학 갈 일이 있었는데 단체 버스가 경복궁에 집결하는 거였어요.

이제 경복궁 안 간다. 나는.

자유로 해서 나를 태워라.

왜 그러냐?

우리 집에서 개성이, 우리 집에서 경복궁보다 가깝다.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경복궁에서 오시더니 “어? 진짜네!” 이러면서 중간에 저를 태우고 개성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간호학과시네요.

장지호 님은요?

◇ 장지호 :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핫한 지역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살고 있는 장지호입니다. 현재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 수료했고요. 지금 논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 김희숙 : 정치학 석사 과정 논문 쓰고 계시는군요.

◇ 장지호 : 그렇습니다.

■ 김희숙 :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김나현 님, 장지호 님.

경기도 청년들에 대한 무료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또 뭐가 좋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퀴즈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 경기청년 사다리 퀴즈 >

이 정책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외 연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무료로 해외 대학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무려 30대 1에 가까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혔는데요.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 ②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정답을 두 분이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 김나현 장지호 :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

■ 김희숙 : 네, 1번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모니터로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다들 부러워하세요.

한종희 님, ‘참 획기적 사업이네요.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하셨구요

4370 님,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네요.

8169 님, 지역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준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정책이 사다리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아까 실수로 사다리를 없애자는 사업이다.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PD님이 황급하게 뛰어들어오셔서 없애자는 게 아니다. ‘극복이다.’ 아 맞다. ‘계층 사다리를 극복하자’ 이 뜻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169 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0466 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날씨가 종잡을 수 없게 변덕스러운데 초지일관으로 이 정책을 꼭 지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8786 님, 저희 조카 녀석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 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선발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김나현 님 어디 가셨나요?

◇ 김나현 :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 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 김희숙 : 거기서 학교를 가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나현 : 지원할 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1지망 이렇게 써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 김희숙 : 1지망으로 가셨던 거예요.

◇ 김나현 : 네

■ 김희숙 : 여기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김나현 : 대학들 중에서 의과대학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간호학과이다 보니까 의대 쪽으로 유명한 곳을 찾다가 보팔로 대학교의 제이콥스 의과대학이 옛날부터 오래된 역사도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팔로 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 / 김나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 김희숙 : 아하, 가서 그러면 3주 동안 뭘 했던 걸까요? 무얼 공부하고, 연수를 받고 오시는 건가요?

◇ 김나현 : 3주 동안 영어 공부도 했고, 미국 친구들과 만나서 나가 놀기도 하고, 또 미국 역사나 문화 체험도 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제이콥스 의과대학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희숙 :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듯한데, 그러면 장지호 님은 어느 학교로 가셨어요?

◇ 장지호 : 저는 미시간주에 위치하고 있는 미시간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 김희숙 : 아. 미시간대학교. 두 분 다 좋은 학교 가셨네요. 학교에서 그러면 장지호 님도 영어 공부도 하고 정치학으로 가신 것은.



▲ 인터뷰 / 장지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 장지호 : 저는 사실 미시간대학교가 특히나 "퍼블릭 아이비(Public Ivy)"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는 "퍼블릭 아이비(Public Ivy)"라는 말 자체가 "공공 아이비리그 대학이다"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대학이고 그리고 특히나 김동현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미시간대학교 출신이십니다.

■ 김희숙 : 여기에서 꼼꼼한 자랑을. 도지사님 들으셨죠?

◇ 장지호 : 정책학으로 석사 박사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미시간대학교가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대학입니다.

■ 김희숙 : 그러네요. 공공의 역할을 크게 하는 학교네요

◇ 장지호 : 특히나 정치학 부분, 그리고 정책학 부분이 많이 강점이 있는 대학이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또 미국 대학교의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경험해 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 김희숙 :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 장지호 : 학교가 너무 예뻐습니다.

■ 김희숙 : 학교가 예뻐서?

◇ 장지호 : 진짜, 정말 너무 예뻐어요. 이게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지사님께서도 가시기 전에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을 한번 꼭 구경해 보고 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표현을 하자면, 해리포터 에 있는 약간 그런 도서관 느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여기서 공부하면 안하던 공부도 너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 김희숙 :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장지호 님이 어디 도지사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미시간대학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 장지호 : 한번 고민해 볼까요?

■ 김희숙 : 굉장히 두 분이 활력 있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가서 “정말 좋았구나” 이런 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이게 서류와 면접 통과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200명 뽑는데 5500명이 왔다고 그래서 27.8대 1이었다고 하는데, 27.82를 뚫으신 가잖아요.

두 분이 어떻게 준비해서 통과하셨는지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조카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8786 님에게 팁을 좀 알려주시죠.

◇ 장지호 : 먼저 제가 말해도 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알려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근데 제 친한 동생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한번 도전해 보라라고 말해줬는데 사실 처음에는 고민이 좀 더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학원 3차 학기 재학 중이었고 논문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과연 내가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까 온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류 준비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마감일까지 계속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서류를 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작성하는 질문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약간 다른 구어체 느낌으로 “너를 설명 한번 해봐.”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가 원하는 건 뭐니”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형식에 맞춰서 쓰기가 좋은데, 구어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나의 강점이 뭐고 나를 어떻게 설명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 꿀팁을 드린다면 저의 열정을 충분히 글에서 보여주는 거,

■ 김희숙 : “열정을 보여줘라?”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 장지호 :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경기도 출신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해외 교육, 해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잘 없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 난 정말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보내준다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충분히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 김희숙 : 장지호 님 보니까 이게 대면 면접이면 100% 열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서류에서 그거를 표현을 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팁을 여쭙 봤던 겁니다.

아하, 그렇게, 그럼 김나현 님은 어떻게 알게 되고 준비를 하셨나요?

◇ 김나현 : 저는 오늘처럼 병원 실습을 마치고

■ 김희숙 : 오늘 병원 실습을 마치고 오신거예요?

◇ 김나현 : 네. 중간에 조퇴하고 나왔습니다. 병원 실습 마치고 파주에 있는 청년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딱 작년 지금 이 시점이라 날씨도 포근하고 하늘도 너무 맑았는데 게시판에 청년 사다리 모집 공고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 김희숙 : 그것을 직접 봤구나

◇ 김나현 : 네. 그래가지고 항공권 지원 숙박비 지원, 식비 지원 이런 좋은 조건의 모집 공고를 보고 경기도 일냈다

■ 김희숙 :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 김나현 : 네. 그래서 공고를 보자마자 사실 이 사업 나를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어떻게든 합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소서 문항을 보면 확실히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지라 내 능력과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업적을 뽐내기보다는 나의 꿈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저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김희숙 : 아. 그럼 서류에 나는 학점이 몇 점이고 어떤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무슨 스펙이 있습니다. 어느 시험은 몇 점 몇 점짜리 시험을 몇 개 봤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꿈이 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를 쓰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목표가 뭔지 아까 장지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네요. 이 포인트가 오히려 점수 따서 쓰는 것보다. 면접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이제 통과하셨어요.

두 분이 면접장에서는 뭐가 팁일까요?

어떻게 어떤 걸로 면접관분들이 나한테 반한 것 같다 이 대목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 장지호 : 저는 사실 면접을 갈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내가 될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거기 있는 면접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약간 긴장을 한 측면이 좀 많더라고요.

서로 이제 종이까지 가져와가지고 외우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면접장 들어갔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고 되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면접장에 들어갈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나에게 이 시간은 내가 면접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열정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 김희숙 : 편안하게. 그래도 이 대목 이 문장에서 면접관분들의 눈빛이 빛나더라 하는 대목이 있었을까요?

◇ 장지호 :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 되게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나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 김희숙 : 저도 궁금하네요

◇ 장지호 : 근데 사실 저 그때 살짝 당황했었거든요. 어? 잠깐만 내가 최근에 책을 왜 읽었는지 나는 맞아 지금 전공 서적으로밖에 안 읽었는데 이걸 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순간 그때 딱 떠올랐던 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이지성 교수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 김희숙 : 하늘이 도왔다.

◇ 장지호 : 진짜 진짜 하늘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재단 장학생으로 장학금 받고 있는데 이지선 교수님 강연을 제가 재단 여름 캠프 때 들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거랑 어떻게든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이지선 교수님을 꺼냈던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삶 자체가 뭐가 이지선 교수님이 살아왔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선 교수님은 정말 어려운 순간, 화상이라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기가 이제 꺾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나 또한 지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성장해왔고 그리고 또 이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내가 이제 이 기회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 기회의 사다리를 내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잘 연결 지어서 얘기를 했었더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접관님께서 눈이 반짝반짝 거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숙 : 100%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순간 떠올랐던 건 마음속에 한 번 그 감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이 누군지 모를 청취자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얼굴과 몸을 다 다친 상태에서 아마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지선. 사회복지학. 아마도 이러면은 이분이 딱 나올 거예요. 장지호 님이 면접장에서 딱 그분이 떠올랐군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다 하니까 다 감동을 받으셨을 듯도 하네요. 지금 시각이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나현 님 얘기를 저희가 4부에서 이어서 마저 들어볼게요. 짧게 여쭙보면 한 30초 정도만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분들이 김나현 님을 딱 보고 나를 뽑아주겠구나 하는 눈빛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 김나현 : 네.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면접장 들어가니까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막 말을 하는데, 오른쪽 분이 제가 귀여웠는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해서였는지 되게 흐뭇하게 진짜 누가 봐도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미국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나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장지호 :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 김희숙 : 이런 자신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좀 이따 5부에서 들어보고요. 오늘 경기도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 통해서 해외 연수 다녀오신 장지호 님 김나현 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 통해서 작년에 해외 대학 연수를 다녀오신 장지호 님 김나현 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순서가 있다고 SNS에 올렸더니 댓글 중에 이수현 님 왜 젊은 친구들만 보내주노 흑 흑 우리도 보내줘요 그랬고요.
 공태희 님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우리 PD님 위에 게시죠?
 저도 미국에 가겠습니다. 동부면 더 좋겠네요 하셨구요
 양현미 님, 너무 좋네요. 20대가 되어 경기도로 전입신고하고 영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을 가나? 가까운 중국을?
 백정호 님, 중국만 빼고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중국이 어때서요? 이 중년분들이 20대가 돼서 가고 싶다 막 이러는데요.
 아까 김나현 님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면접관분들 중에 한 분이 활짝 웃으셔서 나 됐구나 하셨다고요 무슨 얘기 했을 때 표정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웃으셨을까요?

◇ 김나현 : 그 질문이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약간 이런 맥락이었어요.

면접에서 물론 진지하고 멋있는 그런 답변도 준비를 했었지만 그 질문에서는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살짝 경쟁심도 올라가면서 심장도 막 떨리니까 목소리도 막 흔들리는데 그 상황을 제가 재현을 했었거든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은 저는 쿠션 언어나 사투리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약간 좀 그런 사이 생기면 ‘그라문 안 되지’ 이러면서 그중에서도 이제 좀 전라도 사투리가 좀 유하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재현을 하니까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 얼굴 주름들이 다 잡히면서 너무 좋게 웃어주셔가지고 ‘그때 딱 됐다’ 싶었습니다.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개인기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김나현님은) 간호학이니까 제이콥스 의대에 가서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겠네요.

어떤 얘기였을까요?

◇ 김나현 :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의료 관광이라는 분야예요.
의료 관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의료 관광이라고 일컫는데요.
일반 관광 산업에 비해 관광객이 장기간 체류하고 사용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 김희숙 : 맞아요.

◇ 김나현 : 금액이 93억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외과나 피부과를 생각하기 쉬우신데

■ 김희숙 : 맞아요.

◇ 김나현 :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우수한 의료 분야인 아산병원의 간이식이나 성모병원의 이런 백내장 이런 쪽으로 더 전문적이고 질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 김희숙 : 그럼 진짜 이걸 똑같이 따라할 수 없고 뭔가 이런 정책 제안 비슷한 나의 꿈 이야기도 같이 하면 또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
그러니까 전부 그거를 다 패키지로 하지 않더라도 뭔가 한 포인트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열정 정책 솔직함 개인기.

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올해도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올해는 또 몇 명을 뽑는지 우리 정리맨 노광준 PD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노광준PD : 지난해 200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하는데 한 너무 많은 청년들이 또 경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올해는 70명 더 늘렸습니다. 270명 그리고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30명, 버팔로대학교 30명, 워싱턴 대학교 30명 그리고 서부 쪽에 유시 샌디에고 25명 그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 또 영국도 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렇게 되는데 앞서 지원 의사를 밝혀주신 공태희 PD님 듣고 계세요?

39살까지 본인의 출생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노광준 PD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공태희 PD님 30대시잖아요

◇ 노광준PD : 30세시군요. 정확하게 경기도는 나이를 찍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84년생부터 05년생까지입니다.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그러니까 청년의 범위를 다른 광역보다 훨씬 더 넓게 잡을 수 있다.

■ 김희숙 : 그러네요. 39살까지네요.

◇ 노광준PD :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 번 84년부터 05년까지 자기의 주민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외 출국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

아래의 대상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OBS 출연을 하고 계신 두 분은 안 됩니다.

작년에 참여하신 분 안 되시고요. 정부 사업 교육부 파란 사다리 또 글로벌 현장 학습 이런 기참여자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청년 깡이어 프로그램 참여 다 중복성 여부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서류 신청 마감 기간 4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7시까지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1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바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를 통하니까요.

자바바 어플라이를 보시면 되고 가산점 대상이 있습니다.

우대 대상 이것도 좀 중요할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넓게 잡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립 준비 청년 장애 청년 또 저학년 전형 저학년 청년 그리고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도 무대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 노광준PD : 취지가 분명한 사업이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희숙 :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되는데, 경기도 거주 학생이어야겠죠?

◇ 노광준PD : 그거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립 준비 청년, 장애 청년, 저학년 청년,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 등의 기회가 필요한 청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공고일 현재. 여기서 공고일이라고 하면 3월 11일에 공고가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19세부터 39세

■ 김희숙 : 지금 옮기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주소 옮기겠다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료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의 실제 경험자 장지호 님, 김나현 님 두 분의 체험 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7대 1 경쟁률을 뚫고 딱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 장지호 : 저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 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54 대 1인걸로 압니다.

■ 김희숙 : 여기 다들 가고 싶어 하죠.

◇ 장지호 : 특히나 이제 미시간대학교 에나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학교가 워낙 이제 좀 프라이드가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 김희숙 : 한 번 다녀와서 벌써 학교 부심이?

◇ 장지호 : 진짜 한국에 동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 합숙 훈련했을 때 미시간대학교 동문분들께서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격려하고 그리고 팁도 많이 주시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를 연락받았을 때 씻고 있었을 때 였거든

■ 김희숙 : 아, 샤워하다가 받으신거예요?

◇ 장지호 : 샤워하고 나서 핸드폰을 보려고 딱 열어봤더니 합격했다고 문자가 와 있길래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됐다고? 내가 됐다고?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해서 눈을 한 여러 번 찌고 다시 보니까 합격했구나. 나 이제 미국 가야 돼.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이제 약간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약간 당황스러움 반 기쁜 반이지 않았을까.

■ 김희숙 :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네요.

김나현 님은 어디서 아셨나요?

◇ 김나현 : 저는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 김희숙 : 아까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게시판에서 직접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 김나현 : 그랬네요. 저는 합격 여부를 총 두 번 확인했었어요.

이제 서류 합격 최종 합격이었는데요. 최종 합격 표시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담인데 제가 이제 야구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 유명한 한화 팬이에요.

■ 김희숙 : 저보다 끈기 있는 한화팬

◇ 김나현 : 그래가지고 이 날이 2023년 5월 2일이었어요.
잠실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랑 두산 베어스의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자바바 오픈라이에 들어가 봤는데 선정되었
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웃으면서 숨 한 번 크게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 김희숙 : 아, 야구장에서

◇ 김나현 : 네. 그리고 열심히 소리지르면서 응원을 했죠.

■ 김희숙 : 얼마나 신이 났을까

◇ 김나현 : 약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격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떨
렸기 때문에 딱 결과가 나오자마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준비하고
마음 졸였던 시간이 생각나면서 한숨을 그렇게 시원하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 김희숙 : 아, 마음을 졸이긴 졸렸구나

◇ 장지호 : 많이 즐였습니다.

■ 김희숙 : 그러셨구나. 그다음 일이 사실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가 팁을 이제 쪽 들었고 해외 연수 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 장지호 : 진짜 제가 보기에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큰 힌트가 들어 있는데요.

비자 발급 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비자 발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발급특히나 이제 미시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비자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비자인데요. 어쨌든 유학 비자입니다.

유학 비자이기 때문에 좀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롭고 특히나 이제 워낙 이제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제가 듣기로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던 기억상으로는 한 30%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겁을 좀 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영어 면접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결격 사유가 없도록 F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응답해야 될 설문 문항도 참 많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 잘 설명해 주거든요.

일자리 재단에서 하는 설명 잘 듣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자기가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한 번 더 더블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가실 때도 영어 면접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아마 F1 비자를 합격하는 데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 김희숙 : 그렇군요.

이거에 선정이 됐어도 F1 비자 가서 안 될 수도 있어요?

◇ 장지호 : 제가 듣기로는 버팔로 대학교인가요? 한 분께서 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던 기억이 제가 있었어 가지고

■ 김희숙 : 그렇군요. 그럼 다른 분한테 가나요?

◇ 장지호 : 아니요. 그때는 49명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그렇구나 그러면 이 비자 발급 요건이 되는지를 꼭 좀 살펴봐야겠네요.

◇ 김나현 : 네 저도 지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중요하고 면접만큼 긴장이 됐던 게 비자였어요.

이제 미시간대학교는 F1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버팔로대학교는 J1 비자를 발급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기자 인터뷰를 보고 기자 인터뷰를 위한 공문과 서류가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지호 선배님이 조금 많이 겁을 주신 게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경우는 조금 어땠냐면은 제가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서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당시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 김희숙 : 10만 원이면 많은 거죠.

◇ 김나현 : 이거 떼가지 말까 이랬었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나왔었던 거예요.

모든 재정은 경기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문제없이 비자를 수령할 수 있었고 영어 면접이 많이 좀紧张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좀 먹히는 건지, 아유 익사이트드? 딱 이거 한 말씀하고 예스 하니까 바로 가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긴장할 필요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나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 김희숙 : 이 친구는 정말 흥미로워하고 여기 가고 싶어 하는구나는 걸 느끼니까 거기서 불법 체류는 안 하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셨군요.

네 근데 두 분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 느껴져서 그게 영어로도 다 전달이 됐을 듯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순간, 거기서 이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이 처음서부터 계속 하고 싶었어요. 미시간대학교에 가서 아까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해서 학교 좋았던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뭐였는지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장지호 : 사실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미국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미시간대학교를 가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 교수님으로서 미시간대학교에서 부교수 하고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학문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또 그분이 격려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수없이 고민을 하고 수없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시간대학교에서 가졌던 교수님과의 인터뷰 경험, 미시간대학교의 많은 친구들 그리고 또 미시간대학교에서 활동했던 모든 경험들이 저한테 충분한 자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유학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를 꼭 붙잡고 어떻게든 ‘너 가야 돼’ 용기를 내게 해주는 ‘너 가서 경험했으니까 너 한 번 더 경험해야지’ 하면서 나에게 위스퍼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 김희숙 : 그러니까 안 갔더라면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겪지 못했던 경험인데 거길 가면서 이게 확 확장이 돼서 이제 구체적인 꿈이 생긴 거네요.

그렇구나.

김나연님요?

◇ 김나현 :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교과서와 TV에서만 보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탐방했던 기억이에요.

사실 저는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몰라요.

■ 김희숙 : 이렇게 자율적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 김나현 : 버파로 대학교가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가까워 가지고 외국인 친구 좀 친하게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 타고 막 갔다가 오고 막 그러면 진짜 짱이거든요.

네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탐방했었던 기억이 나고 ‘미국에 갈 거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광활한 폭포를 눈으로 보고 폭포를 따라 걸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또래이기도 하고 같은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한국에 한 두 친구 정도가 들어왔어가지고 제가 왕십리에서 밥 한끼 사주고 신촌에서 밥 한끼 사주고, 또 친구들이 방학 때니까 한국으로 관광 오거나 교환 학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소개해 주면서 지속적인 연락 이어가고 있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좀 물놀이 같은 거나 빠지 이런 한국에만 있는 그런 것들을 데려가 볼 생각입니다.

■ 김희숙 : 그러니까 친구의 폭도 확 달라진 거잖아요. 그 국제적으로 거기를 가면서 그런 경험도 나중에 계획하시는 의료 관광이든 어떤 일을 하시든 큰 자산이 되겠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아까 나연 님 얘기 듣다가 잔고 증명 사실 비자 발급에서 중요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10만 원도 만취했지만 비자 발급에서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거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 김나현 : 진짜 멋있었어요. 그 공문에 약간 파이낸셜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썼었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모든 금액 지원은 경기도에서 한다 약간 이렇게 다 엄청나게 긴 글로 써 있었는데 바로 통과됐어요.

◇ 장지호 : 거기 직인이 있거든요. 경기도지사 직인이 땀.

■ 김희숙 : 직인이 있어서..

여러분 잔고 비자 발급 요건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잔고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 앞으로의 꿈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나연 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 김나현 : 저는 사실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간호사로 오래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제부터 취업 시즌이라 조금 솔직히 불안하긴 한데 혹시 듣고 계신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수간호사 선생님 잊어주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의료 관광이나 아니면 따로 이런 제조업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30대까지는 제 꿈이 우스갯소리로 ‘포르쉐를 끝자’

궁극적으로는 조금 장학재단 세우고 싶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이 아니라 파주시청에서도 예전에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조금 한 두 번 정도 다녀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때였거든요.

둘 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이제 너무 견문도 넓어지니까 그때 그 나이 때 그런 해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체감을 했고 그렇게 산 증인이 되어 오니까 이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많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청년 사다리처럼 해외 연수를 청소년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나연 장학재단. 그래서 신청하면 중년들에게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을 해주는..

◇ 김나현 : 그런데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좀 실버 쪽으로도 좀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 김희숙 : 재취업 자격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장지호님은 앞으로 꿈이 뭘까요?

◇ 장지호 : 저는 사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정치학과니까 어디 출마할 거냐 도지사 될 생각이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좀 사회에 의미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연자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너무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를 뭔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결국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싶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강연장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까 장학재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제가 뭔가 펀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펀딩해서 모여진 금액을 제가 이제 그 금액을 제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우대사항을 받고 들어온 청년이기 때문에 그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도와줘서 뭔가 그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왔던 것처럼 그 청년들도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서 마음껏 경험을 얻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숙 : 두 분의 말씀이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다 반증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1분 50초밖에 안 남아서 아슬아슬한데 한 30초씩 나에게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은 무엇이었는데가 망설이는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요?

◇ 김나현 : 인생을 변화시켜준 항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꼭 지원하세요!!

■ 김희숙 : 지호님은요

◇ 장지호 : 저한테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은 말 그대로 '사다리'였습니다.

그 기회의 사다리를 밟고 한 걸음씩 올라오니까 정말 다른 시선으로 더 넓은 시선으로

뭔가를 조망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나연 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꿈을 가지게 됐잖아요. 사실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지원해 보세요. 내가 지원 못해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딱 지원해서 면접도 시원하게 보고 우리 이렇게 열정 많은 거 딱 보여주면 면접관들이 꼭 뽑아주시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웃고 계실 거예요.



■ 김희숙 : 활짝 웃는 면접관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 경기 청년 사다리 사업 통해서 해외대학 연수를 다녀오신 장지호 님, 김나현 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 정말 힘나죠?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예정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고 싶은 거 다하며 진로를 찾았어요"

경기청년 갭이어 참가자 3명의 레알후기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4월23일(화)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운선
- 출연 : 백승현, 남경우, 조혁빈
- 주제 : 경기청년 갭이어 실제 사례 후기



■ 김희숙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기후’에 특별한 청년들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방금 퀴즈에 나온 이 사업을 경험한 세 명의 경기도 청년들입니다. 로고송 전에 음악이 나갔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음악이 나오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혁빈 님, 백승현 님, 남경우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김희숙 : 소개 먼저 하시기 전에 그 퀴즈 정답부터 공개해야 겠는데요

< 경기청년 갭이어 퀴즈 >

보통 대학 교수님들,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안식년 갖잖아요. 7년 일하고 1년 쉬고,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갭이어’ 해서 1년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이 잠시 학업이나 일을 멈추고 진로 탐색이나 창업 활동을 경험하도록 경기도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① 경기 청년 갭이어 사업 ② 경기 청년 기본소득

힌트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갭이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정답은 조혁빈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 조혁빈 : 정답은 1번,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입니다

■ 김희숙 : 3006 님,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고, 2806 님, 4743 님 많이들 보내 주셨는데요. 여러분 1부 퀴즈 정답 보내고 당첨됐다는 문자가 없으면 4부에 또 보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보냈다고 그다음 안 되는게 아니에요

정답은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나하고 좀 놀랐는데요 올해도 신청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분들이 지원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혁빈 님부터? 여기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 조혁빈 :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경기청년 깡이어 참여했던 코리안 메탈 메이커 팀의 조혁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는 지역이 경기도 수원이고요. 대학 전공으로는 깡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좀 비슷한 전공인데 금속공예랑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깡이어 신청 주제로 제가 했던 금속 공예를 기반으로 해서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의 무형문화재 장인 분들, 대장장이 분들 내지는 문래동 장인분들과 함께 금속 가공 장인과 협력 제품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 김희숙 : 와~.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혹시 보시는 분들은 조혁빈 님을 딱 보면 금속 가공 장인의 수제자, 무형문화재 전수받는 분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요. 백승현 님은요?

◇ 백승현 : 안녕하세요. 깡이어 2기, 건강지원 글루텐프리 디저트 개발 및 브랜딩 프로젝트 진행했던 백승현입니다. 경기도 수원 거주하고요. 식품생물공학 전공으로 올해 졸업했습니다

■ 김희숙 : 전공과 연결해서 그러면 깡이어 활동을 하신 거네요

◇ 백승현 : 그렇게 연관 됐다고는 볼 수 없긴 한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김희숙 : 아, 제가 좀 무지합니다. 남경우 님은요?

◇ 남경우 : 안녕하세요 저는 남경우이구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은 전통예술학부라고 전통문화나 공연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국악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이어 신청 주제는 제가 국악 중에서도 경기민요라는 종목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저랑 같이 활동하는 청년 국악가들이 어떻게 공연을 만들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전통이란 것을 유지해 나가고 경기민요라는 것으로 같이 공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큐로 아카이빙 하는 과정을 깡이어 신청 주제로 정했었습니다

■ 김희숙 : 이 정도의 프로젝트면, 세 분 다 청년 깡이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더라도 뭔가 지원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경기민요하면 이희문 님이 유명하시잖아요?



▲ 인터뷰 / 남경우 경기청년 갭이어 1기

남경우 : 네. 이희문 님은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 김희숙 : 스승님이시구나. 그 분이 경기민요 하시는거 오늘의 기후에서 한 두 번 틀렸어요. 청취자분들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구나. 경기민요가 수원을 중심으로 하죠?

◇ 남경우 : 수원도 많이 하고, 어쨌든 서울 경기 있는 모든 음악을 다 모아서 옛날에 민중들이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희숙 : 세 분, 조혁빈 님 백승현 님 남경우 님.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은 참여 연령이 19세부터 39세 이하까지라고 합니다. 총 800명으로 올해는 그 숫자를 더 늘려서 4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 3일 남았네요. 선정되면 한 사람 최대 500만 원, 한 팀은 최대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세 분께 얼마씩 받으셨나요 하고 여쭙 보니까 한 사람당 500만 원이래요 그 한 팀이라고 하면 여섯 명이 모인 팀일 때 3천만 원이 된다구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이 프로젝트 지원금의 취업 창업 연계 1년간 지원까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 받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서 작년에 지원 받으신 그대로, 죄송하지만 제가 면접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면접 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깎이어를 신청한다, 선정되면 이런 일을 해보겠다 요걸 한번 해 보시면은 청취자 분들이 뭔지 확 이해를 하실 듯해요. 한 분당 저희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조혁빈 님부터 하겠습니다.

◇ 조혁빈 :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에서 금속 공예랑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속공예 기법을 배우기도 하고 금속 공예 기법을 기반으로 했던 공예 디자인 상품들을 제품으로 기획하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제가 관련 경험이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네 제가 대장간에서 금속 공예를 학교에서 배 배우고 나서 그냥 끝나는데 아니라 40년 전통에 대장간을 직접 찾아가서 대장간에서 금속 공예도 실제로 배우고 철단조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느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대장장이 분들 내지는 철소재 가공 장인분들의 기술이 뛰어나고 좋구

나, 그런데 제품은 항상 저평가를 받는구나”

그리고 직업들에 대한 뭔가 힘듦, 이런 점들로만 비춰지는게 아쉬웠었던 무엇보다 이 좋은 제품들이 신문지에 싸져서 나가는게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 김희숙 : 아. 그렇죠. 네.

◇ 조혁빈 :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 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품 디자인을 했던 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금속 공예를 통해서 이 가공 공정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장인들의 제품을 기획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깡이어 프로그램에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2024년도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좀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일들을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또한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든 아니면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아는 배경 지식이 많이 없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었는데 깡이어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런 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부족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도전을 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깡이어 프로그램 자체내에서 멘토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려 주는 점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 인터뷰 / 조혁빈 경기청년 깡이어 1기

■ 김희숙 : 그 500만 원을 내 맘대로 쓰는게 아니고 어디에 써라 하고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나 보죠?

◇ 조혁빈 : 아, 예. 맞습니다.

■ 김희숙 : 아 그렇구나. 저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뭐 브이로그예요 예산을 써라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쓰지? 했는데 그거를 다 지원해 주는 분들이 안에 또 계신다고요. 어떻게 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알려 주시는군요

◇ 조혁빈 : 아, 네. 맞습니다. 관련 멘토들을 연계해 주는 일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 김희숙 : 금속 공예하면, 저는 브로치가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칼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가요?

◇ 조혁빈 : 금속 공예도 요즘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게 있는데. 세공으로 들어가면 반지, 은제품, 브로치, 쥬얼리 쪽 장신구 같은 쪽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공 쪽으로 가면은 가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많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전통문화 장인분들과 함께 하는 칼이나 이런 제품들 많이 제작하기도 합니다

■ 김희숙 : 대공과 세공이 있군요

◇ 조혁빈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 보통 우리 세 공만 생각하는데 칼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대공도 있다. 그러면 아까 40년정도의 경험이 있는 대장장이 분도 직접 만나셨군요. 우리가 예전에는 대장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장인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셨던 건가요?

◇ 조혁빈 : 맞습니다네

■ 김희숙 : 그래서 ‘코리안 메탈 메이커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조혁빈 님. 백승현 님은 ‘글루텐 프리’ 글루텐 먹으면은 탈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글루텐이 없는 디저트를 연구 개발하고 브랜딩 하셨다고요.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제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

는데 듣다가 감탄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백승현 경기청년 깡이어 2기

◇ 백승현 : 저는 건강 지향 글루텐프리 디저트 개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딱히 베이킹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집에서 몇 번 만들어 보는 정도였어요.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 제대로 배워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원래 창업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문적으로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제로라고 해서 되게 대체당 사용해서 건강에 좋은, 당이 많지 않은 그런 디저트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글루텐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밀가루빵을 먹으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한 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파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 둘씩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같아요.

■ 김희숙 : 말씀드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깡이어에 참여하는 분들이 뭔가를 잘하는 분, 저는 당연히 막 빵도 많이 만드시고 제과제빵 쪽으로 경험도 풍부하고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깡이어를 신청할 때 내가 이미 잘하고 잘 알고 있는 걸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처음이더라도 내가 이렇게 배우고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 백승현 : 네

■ 김희숙 : 모르는 걸로도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 보네요

◇ 백승현 : 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거였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기 계기가 된 거 같아요

■ 김희숙 : 그렇군요. 다음은 남경우 님 순서 가기전에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나중에 5부에서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승현 님께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글루텐이 없는 건강한 디저트가 뭐가 있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백승현: 사실 글루텐 없는 디저트를 만드는 건 단순해요. 밀가루를 넣지 않고 쌀가루를 넣거나 아니면 아몬드 가루처럼 견과류로 하면은 되는 거라서 간단한데 거기서 좀 더 건강을 생각하면 흰 정제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제 원당이 아니면 대체 당들, 알룰로스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좀 더 당을 줄이는 저당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 김희숙 : 아하 그렇군요.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저는 밀가루에서 글루텐만 빼는 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셨지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쌀가루, 견과류로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는 디저트가 가능하다. 그런거죠? 떡이 아닌 거죠? 케익이나 빵인데 그렇게 만드신 거죠네?

백승현: 네

■ 김희숙 : 조혁빈 님께도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5부로 넘어가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5부 시작)

■ 김희숙 : 지금 경기 청년들에게 진로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깡이어 조혁빈 님, 백승현 님, 남 경우 님을 모시고 실제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혁빈 님께도 제가 좀 궁금한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금속 공예 장인들을 돕는 협력

제품을 기획했다. 그 얘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신문지 대신 포장하는 어떤 멋진 포장지를 만들어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조혁빈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를 다뤘기 때문에 만드는 법도 알고 있고 제품 디자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쁘게 포장하는 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적인 부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장인들의 기술과 제가 배웠던 금속 공예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제품에 좀 더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좀 더 우수하게 나오게 한다거나, 예전에 사라진 대령숙수의 식칼을 현대적으로 재디자인 해가지고 복원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품을 기획 개발까지도 하였습니다. 장인들이 만드신 이미 우수한 제품군들은 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패키징 하는 기획 작업까지도 같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네. 만드신 것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조혁빈 : 아까 말씀드렸던 대령숙수의 칼이라고. 이게 제가 오랜 기간 이 장인분들과 칼을 개발을 했어요. 이 칼을 100만이 넘는 유튜버분께서 한번 사용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장인 분과 함께 열심히 개발했던 제품이 저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유명인 분들도 사용하게 되는구나 하는걸 보면서 좀 많이 뿌듯하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납니다

■ 김희숙 : 와. 저도 그런 칼로 한번 요리해 보고 싶은데. 나중에 직접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숙수 라고 하면은 음식 잘 만드는 분만 생각했는데. 장인이니까. 대장장이 분들도 대령숙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진짜 뛰어난 분들에게?

◇ 조혁빈 : 사실 대령숙수는 조선 왕실에 궁중 요리사분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을 것이라는 식칼을 모티브로 제품을 기획했었습니다

■ 김희숙 : 그런 말씀이시군요. 전 그래서 대령숙수는 셰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셰프인데? 대장장이 분들한테도 대령숙수라고 하나하고 잠깐 헛갈렸습니다. 그 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 조혁빈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 멋지네요. 자 그러면은 순서를 기다리셨을 남경우 님. 제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경기민요를 좋아하거든요.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경기민요와 청년 국악인들의 무대 뒤 창작 과정 아카이빙을 했다 그러셨어요. 이건 어떤 걸까요?

◇ 남경우 : 네. 맞습니다. 저는 우선 경기민요를 오랜 시간 동안 전공해 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해서 거의 한 17년 넘게 전공을 하고 있고

■ 김희숙 : 아 그러신가요? 기후 콘서트에 한번 나오시죠. 아, 그러신가요?

◇ 남경우 : 네. 17년동안 전공을 하고 있고, 보통 저뿐만 아니라 이런 국악이라는 전통 음악 종목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하셔서 했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우연히 사물 놀이나 가야금을 접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우연히 민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20대 중반 후반까지 되면서도 친구들이 과연 왜 지금까지 이런 전통을 해 왔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면접때 설명을 할 때 이런 청년들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을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공연을 만들기 위해 바빠서 사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우선 경기 민요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경기민요 공연을 올리면서 그것들을 다 아카이빙하고 채집을 해 가지고 다

른 친구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아야겠다. 사람이 그냥 카페나 이런 데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 또 카메라를 놓고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카이빙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통 음악계에도 필요하고. 사실상 전통 음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이 국학을 하는 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길을 찾다 보면 단순히 실현자 활동하는 것만 있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방송 피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방송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방향성이 되게 넓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좀 단순히. 저는 소리꾼이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소리꾼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에이터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크리에이터, 창작자적인 면모를 좀 보여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로 설정을 하면서 갭이어 사업을 할 때도 면접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 같습니다

■ 김희숙 : 아, 그러니 당연히 선발이 되셨죠. 진짜.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누가 면접을 봐도 선발이 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구분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남경우님께 여쭙 볼게요. 경기민요를 어떻게 하셨고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셨나요



▲ 인터뷰 / 남경우 경기청년 갭이어 1기

◇ 남경우 : 저는 말씀주신 이희문 선생님이 저의 스승님이신데 많은 질문을 하세요. 스승님은 어머님께서 명창이셔서 했지만 저희는 젊은데 왜 국악 하나라는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게 뭔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된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가야금을 같이 하고 이걸 또 민요로서 공연을 하는데 너희는 왜 나랑 같이 왜 이거 공연을 해?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서 좀 결과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으로써 알게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 음악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결국 살아 있는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또 함께 즐기면서 우리나라의 것이 더욱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만 즐기는 음악은 사실 이게 죽어 있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살아 있는 예술로서 우리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같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한국적인 것으로 하고 싶은 거고. 그런 성향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더 깊게 물 들어간 거 같습니다.

■ 김희숙 : 아, 네. 그렇구나. 경기민요 공연을 보면은 세계적인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식이나 모든게 우리 안에 갇혀 있기 가까운 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경우 님이 하시는 전통예술 아카이빙이 경기민요를 모르거나 국악에 관심없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료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진짜 멋진데요. 제가 이렇게 감탄을 하면 안 되는데 진행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 있는 건 백승현 님은 전공이 아니었고, 두 분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연결해서 했지만 또한 전공이 아니었고. 이 갭이어를 하면서 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했던 걸 본격적으로 하신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진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했던 일을 하면서. 그 예산도 또 어디에 쓰라고 다 항목 정해져 있는데 그 어떠셨나요이 사업 선정되면 관련해서 뭐 전문 교육을 받는다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교육 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백승현 : 사실 홈베이킹 하면서 글루텐프리 베이킹, 비건 베이킹 이런 쪽에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반 클래스라 던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 몇 개월 정도 탐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선정됐다고 하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찾아본 거 같아요. 내가 모아 놓은 선생님들 중에 어떤 쪽을 배우면 좋을까. 그게 좀 한정적인 분야다 보니까 배우는 수강료도 꽤 비싸서 혼자서는 듣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 예산도 많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해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나 마음대로 되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도 사실 처음에 수강하기로 했던게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디저트를 만들어 주는,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클래스를 사실 수강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서 한 달이 흘렀는데도 결과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공방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황이어서 물을 수도 없었고 이미 프로젝트에 한

1 이상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잠시 좀 우울했던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는 내가 짠 거니까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그래도 공방 빌려서 계속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려웠고 그리고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요.. 그런데 또 흥미가 있어서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낮 안 가리고 공방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쯤에 몸이 좀 성하지가 많아서 좀 안타가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또 정신없이 폭빠져서 했다는 거니까. 재밌었던 거 같습니다.

■ 김희숙 : 아플 때까지 하셨네요. 아플 정도로.

◇ 백승현 : 네

■ 김희숙 : 와, 어떤에서는 이 갭이어의 가장 순수한 취지에 맞았을 거 같아요. 그쵸? 안 해본 걸 시도하면서 1년 동안 진로를 탐색해 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나요?

◇ 백승현 : 저는 매우 됐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인터뷰 / 백승현 경기청년 갭이어 1기

■ 김희숙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뭐 하실 건가요. 대학교 한 학기 남은 거죠?

◇ 백승현 : 지금 졸업은 한 학기 남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이제 정부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돼서 지금은 개인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디저트 창업을 하면 제가 사장님이 되어서 자영업을 하니까 그전에 다른 카페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은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숙 : 그러면 1년 동안 갭이어에서 시도했던 것이 어쨌든 진로를 정해준거네요.

◇ 백승현 : 네

■ 김희숙 :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남경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십수년 경기민요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카이빙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 선정되고 나서 어떤 교육을 또 따로 받으실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같은데.

◇ 남경우 : 거기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퍼실리테이터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체계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요. 그 퍼실리테이터 분께서 예산 같은 부분도 조금 서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집어서 봐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 퍼실리테이터 분 말고도 여러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저희 들은 조건, 미디어면 미디어, 저희가 원하는 니즈대로 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그런 과정들이 또 같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경기 동부면 동부의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서로 갭이어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

저희가 작년에 이 갭이어 사업이 사실 처음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체계적이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연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되서 훨씬 더 원하는 방향으로 청년들이 갭이어 사업에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희숙 : 그렇구나. 어떤 어떤 교육을 혹시 받으셨을까요. 도움이 됐던 것이. (있었을까요?).

◇ 남경우 : 저는 예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 김희숙 : 정확하게 짜서 집행하고 보고하고 하는 과정이요?

◇ 남경우 : 네

■ 김희숙 : 그렇구나. 그 500만 원, 1인당, 팀당 최대 3천만 원에 대해서 들으면서 사실 저는 아휴, 이게 1년 동안 이 돈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컸다고 하시니까, 아, 이 정도가 큰 마중물이 되는구나 하고 좀 세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조혁빈 님 팀으로 2천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네분이 함께해서? 그 정도 잉 지원금이 도움이 됐나요?



▲ 인터뷰 / 조혁빈 경기청년 깡이어 1기

◇ 조혁빈 :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팀원을 이렇게 짠게 저희가 저 외에도 저는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 외에도 그 장인분들의 다큐멘터리에 촬영하기도 하고 관심 있었던 그 영화 촬영 감독이랑 청년 두 명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분석하시는 분까지 해 가지고 . 경기 청년의 나이가 당시는 만 34세였는데 올해는 또 늘어나가지고.

■ 김희숙 : 올해는 만 39세.

◇ 조혁빈 : 나이 대에 맞춰서 다 20대였어요. 사실 저는 20대인데 사람들이 30대로 봐서 조금 이게 힘들었는데. 다 같이 네 명에서 으쌰으쌰해서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모여서 실제로 장인분들 많이 만나뵙기도 했고 장인분들의 이야기를 제품으로서 많이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 김희숙 : 재밌네요. 그러면 조혁빈 님은 자연스럽게 원래 하시던 일과 증폭이 돼서 앞으로의 진로가 된 건가요?

◇ 조혁빈 : 많이 증폭이 됐습니다. 이번 갭이어 프로그램 전에는 사실 익숙한 장인 분들을 만나뵙었는데 이번 갭이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제품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5명이 넘는 장인분들 만나뵙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갭이어 프로그램 이후에 대한민국에 칼명장 분이 계십니다. 그 칼 명장 분이랑도 '정말 자세나 태도가 너무 좋다'고 평가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같이 제품을 기획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달에 마침 또 출시가 됩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이 있는데 또 이번 달에 이제 M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좀 출시를 앞두고 있고

■ 김희숙 :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조혁빈 :네

■ 김희숙 : 저희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세요

◇ 조혁빈 : 네. 감사합니다.

■ 김희숙 :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 조혁빈 : 네 맞습니다.

■ 김희숙 :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이 가능하구나. 남경우님께 또 여쭙보면 지금까지 경기 민요를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그리고 아까 크리에이티브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1년 동안 했던 활동이 크게 진로 탐색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요.

◇ 남경우 : 네.

■ 김희숙 :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 남경우 : 우선 지금 요즘 SNS나 사실 AI 기술도 그렇고, 그런 뭐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음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방금 혁빈님께서 말씀하셨던 칼 분야 브랜딩이나 등 이런 모든 분야에서 미디어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음악 분야는 또 실현자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뭐 어떻게 차 자기가 진로를 찾아 됐는지 그게 더 절실한 거 같아요. 표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거랑 연계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계속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일단 로컬 크리에이터에 지원은 일단 했는데 좋은 결과가.. (하하 웃음) 이제 또 면접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저는 아 단순히 내가 소리꾼의 역할만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실제로 그게 직업으로서 형성이 되고 나중에 그때 같이 하면서 창업도 했었어요. 제가 영리 단체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더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 김희숙 : 네. 그러니까. 이 경기청년 깡이어와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은 1인당 500만 원씩 주고 1년 동안 그냥 쓰고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세금으로 집행된 거잖아요. 진짜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러면은 진짜 더 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여러 청년분들 또 아니면 그 부모님들께 ‘이거 내가 신청해도 되겠어’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분들에게 경기 청년 깡이어 사업을 어떻게 추천해 주실까요. 조혁빈 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 조혁빈 : 최근에 청년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또 내 진로는 무엇인가 사실 방황하거나. 저도 한때 방황을 했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방황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적인 문제 또는 멘토가 없는 문제도 크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청년 깡이어 프로그램에서는 그 예산적인 문제 또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멘토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나의 진로를 찾고 싶다. 내 방황을 끝내고 내가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 김희숙 : 네. 말씀을 들어보니 돈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네트워크나 더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보이지 않는 자원들을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에 우리 백승현 님 말씀해 주신다면은?

◇ 백승현 : 저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든 시도해 보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 인터뷰 / 백승현 경기청년 갭이어 1기

저도 처음 지원에서 합격하기까지 ‘어라? 어라?’ 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진로까지 정한 케이스인 것처럼 사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해야 하는 일의 그 끝이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게 있다면 이번 경기 청년 갭이어에 이루고 싶은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숙 : 마지막으로 남경우님, 말씀해주세요

◇ 남경우 : 저는 우선 이 경기 청년 갭이어를 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고요. 실제로도 지금도 주변에 제 친구 국악을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했고, 꼭 국악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실제로 이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올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가 마감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오늘부터 준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꿈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굳이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꾸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인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네가 꼭 해봐라 라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힘을 주면 그럼 청년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김희숙 : 저희가 언젠가는 명창 남경우 님의, 크리에이터 남 경우 님의 소개를 받을 날이 올 거 같네요. 오늘 세 분 다 어찌면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을 만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청년 깡이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설계한 세분의 청년들 조혁빈, 백승현, 남경우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1인당 30만원] 토익부터 노무사, 변시 응시료까지 다 쓰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다시보기(PLAY) 유튜브

- 채널 : FM 99.9 OBS 라디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마라톤빌딩 7층)
- 방송 :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7시30분)
- 인터뷰 : 2024년 4월29일(월) 6시40분~7시15분
- 진행 :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 연출 : 노광준
- 작가 : 허윤선
- 출연 : 경기도 청년기회과 팀장
- 주제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모집 안내



■ 김희숙 : 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 알아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퀴즈 퀴즈에 나온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새봄 경기도 청년기획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김희숙 : 팀장님 제가 이 대본을 리허설 때 하면서 청년기획과 바뀌서 읽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청년기획과, 이거 혹시 작가님이 오탈자 되신 건가? 그러다가 살짝 읽어봤어요 청년기획과. 그런데 작가 님하고 PD 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대로 읽었구나. 그럼 이 과는 이름이 ‘청년기획과’구나 하고 읽었습니다. 팀장님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퀴즈 정답 공개해야 될 텐데요.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퀴즈 >

최근 고물가와 고환율로 각종 어학 시험과 자격증 응시료가 줄줄히 오르고 있습니다 토플 응시료가 한 번 치는데 31만 원이 넘어요. 지금 토익 응시료도 지난 15일 5만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문직 자격증 응시료도 계속 인상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거의 모든 어학 시험과 기술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② 경기 행복주택 사업

청취자분들의 문자메세지, 4678 님 새싹 문자로 ‘우리 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하고 딱 정답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6619 님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죠 하고 답 보내 주시면서 ‘얼른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3393 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차분한 목소리로 항상 의미 있는 유익한 방송 진행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소리만 차분합니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인데요.

저희 팀장님께 먼저 이거 여쭙볼게요. 청년기획과 짹아요. 청년기획과. 제가 생각을 했다가 이름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런 과가?

◇ 청년기획과 팀장 :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그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라고, 기회를

강조하는 지사님 정책 방향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재작년이 하반기에 저희가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청년기회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 김희숙 : 이름이 굉장히 와닿아요. 굉장히 좋은 이름 같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그 슬로건도 제가 버스에서 들을 때마다 아 참 좋다 그랬는데 청년기회과.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겠죠. 여기 이 사업이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저희 사업은요. 고물가 시대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스펙 획득의 기회를 좀 고르게 주기 위해 추진을 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기회 사다리 등 세 가지 청년 기회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몇몇 개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원래 추진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도비를 전폭적으로 투입을 해서 30개 시군과 함께 작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희숙 : 네.

민선 8기는 김동현 도지사 취임하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 당연히 다들 좋아할 거 같은데 어떤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청년기회과 팀장 : 자격증 응시료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예 그 취득한 또 자격증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취업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여러 번 응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년들에게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비용 부담을 많이 덜었다 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작년에 참여한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사업 전반 만족도가 92% 나왔고요. 재 참여하고 싶다 98.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 김희숙 : 아하. 이것 저것 들어 보면 민선 8기 경기도에서 청년 사업을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어렵잖아 봤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줘서 너무 좋다 근데 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학원 수강료 지원은 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어학 자격증도 좀 부담이 되지만 시험을 준비하려면 준비 단계부터 학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 수강료 부담도 좀 상당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강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조례 경기도 조례의 좀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 김희숙 : 와, 저는 처음에 말씀들으면서 응시료 지원해 주는데 학원비 얘기까지 하면은 ‘떼기!’ 이럴 줄 알았는데 6월에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정말 그 청년들의 민원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이 되면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사업은 언제부터 그럼 접수를 하면 되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일단 응시료는 5월 2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가 있습니다. 그 잡아바에서 상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조례가 지금 경기도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6월에 통과가 되면 7월부터는 수강료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 지원은 아무래도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좀 조례 개정이 필요를 한 상황이고요. 시군별로 수강료 접수 시기는 이제 조례 계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재단 잡아바에서 공지사항 그리고 시군별 공고를 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희숙 : 일자리 재단 잡아바예요 그런데 여기 윤나무 님이 대학생도 해당이 되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해당될 거 같은데 뭐가 궁금해지면 저도 이 질문 받으니까 청년 지원이라면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대학생 포함해서 20대 30대 그 다른 청년이 35세까지 있다가 39세로 늘렸다고 그런 얘

기도 있던데요

◇ 청년기회과 팀장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상에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생 연도 기준으로 보면은 2005년생부터 1984년생 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시군별로 조례가 조금씩 달라서 청년의 연령이 좀 다릅니다. 어떤 조례에서는 15세부터 뭐 35세, 34세 이렇게 정한 시군도 있고 이제 39세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 군도 있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시군별 조례 시군별 그 본인이 신청하시는 시군의 공고문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그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 김희숙 : 여러 시험 응시료를 몇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학 시험 몇 가지만 되는건가요?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게 어디까지 되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험까지 되는지

◇ 청년기회과 팀장 : 어학이 19종 이고요. 국가 기술 자격이 545종, 그리고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96종 한국사 시험 요렇게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응시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자격 범위를 넓혀 달라는 청년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는 국가 전문 자격 248쪽 좀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 전문 자격 중에 포함된 자동차 운전 면허인 경우에는 일종 특수 면허만 지원이 되니까 신청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희숙 : 이것도 저는 일종 특수 면허만 지원된다 아니라 자동차 운전 면허도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그러면 와 지원의 폭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뭐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시험도 지원이 되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올해부터 응시료지 시험에 추가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변호사 노무사 시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 변호사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숙 : 와 그러면 정말 20대 30대 청년들이 준비하는 거의 모든 시험을 지금 다 포함하고있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받는 액수가 아까 30만 원까지 했던 거 같은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번에 30만 원 이렇게?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작년에는 시험을 회당 10만 원 회당 최대 10만 원을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횟수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심플하게 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뭐 지난 년도에 지원을 하셨든 뭐 응시를 몇 번을 하셨든 수강을 몇 번 하셨든 뭐 신청을 몇 번 하셨든 이런 제한 전혀 없이 일단 30만 원내에서 뭐 통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 김희숙 : 와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네요 한 번에 30만 원 해서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1년 동안이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 김희숙 : 그러면 같은 시험 여러 번 응시해도 예를 들어 토익 시험은 성적안 나오면 잘 나올 때까지 점수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여러 번 응시해도 계속 상관이 없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같은 시험을 똑같은 걸 두 번 청구하시는 이리지만 않으면 저희가 다 지원이 됩니다

■ 김희숙 : 날짜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 두 번 청구하면 이거는 안 되죠.

◇ 청년기회과 팀장 : 중복 청구가 돼서요.

■ 김희숙 : 이거는 안 되지만 상관이 없다.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네요. 오늘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새봄 경기도 청년기회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두의 김밥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5부)

■ 김희숙 :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그 사이에 온 문자중에서 9262 님 새싹으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후 최근에 듣기 시작하셨던 말씀이죠. 저희가 새싹이라고 하니까. 공부하다가 열 받을 때마다 듣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하셨는데 공부하다가 열 받을 때마다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열이 식혀지면 진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정책 얘기해서 괜히 듣다가 가 더 열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시원한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62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인의 굴착기 기사 원호문 님 ‘늦게 퇴근 중입니다 OBS 스티커 여러 장 있던 걸 동료 장비에 나눠 줬는데요 홍보 효과가 있네요. 동료들이 장비에 붙였더라고요’ 하면서 굴착기에 붙어 있는 99.9스티커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요. 제가 원호문 님도 그렇고 저희 이 99.9 스티커를 사진 찍어서 청취자분들이 가끔 보내 주시잖아요 제가 그게 옳아서 며칠 전에 버스 타고 퇴근길에 99.9가 있는데 괜히 제가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찍지 하면서 99.9가 보일 때마다 찍고 있는데요 굴착기 기사님 원호문 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44 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노광준 PD 님 기후 리포트 재밌었다고 노광준 PD 님 칭찬 막 보내주신 두어 분께는 제가 안 읽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PD 님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노광준 PD 님 목소리 오늘도 행복합니다 조성주 님 보내주신 문자 이런 지나친 칭찬 PD 님 칭찬은 부끄럽다고 읽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읽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읽었죠. 네. 감사드립니다

5부에서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새봄 경기도 청년기회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 혹시 군복무 중에서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그 신청 요건을 갖추신 경우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군복무 중이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김희숙 : 아 정말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신청 요건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요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 응시료의 경우에는 응시일 기준으로 미취업이고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취업하신 상태이더라도 미취업 당시에 응시료와 수강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희숙 : 네

■ 김희숙 :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김희숙 : 그렇군요. 그러면 미취업 그럼 미취업 여부는 '저는 취업을 못 했는데요' 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 상실일로부터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미취업으로 확인을 해서 신청시에 제출 서류 등 문제가 없으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작년 응시료 지원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돼서 수강료 응시료를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용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이 되면 미취업으로 간주를 해서 응시료와 수강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실 때 근로 계약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김희숙 : 이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인정이 되니까 사실은 뭐 계약직으로 일한다 그나 프리랜서로 일한다 그나 이런 분들도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로계약서만 첨부하면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1년 미만이 확인이 되면요

■ 김희숙 : 뭔가 민원이 있으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 앞서 올해부터는 학원 수강료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례를 바꿀 예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수강료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근거 규정이 6월까지 마련이 되면 7월 이후에 접수가 들어가고요. 올해 1월부터 발 발생한 수강료지원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는 어학과 자격증 관련된 내용을 좀 수강을 해야 되고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수강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일종 특수 면허의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에서 등록 지정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을 했으면 온라인상에 수강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희숙 :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네요?

팀장:네 또 수강료 지원이 가능한 학원은 시군별 공고문이 잡아봐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희숙 : 네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는 어학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을 수강해야 한다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긴데 좀 다르게 생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쵸? 토익이나 토플을 치면서 뭔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원을 그러면 영어 관련된 학원으로 폭넓게 인정을 하는 거겠쵸 아니면 토익이나 토플 과목만 되는게 아니라

◇ 청년기회과 팀장 : 그 기본적으로는 토익이나 토플 그 응시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강료만 좀 해당이 돼요

■ 김희숙 : 아 네

◇ 청년기회과 팀장 :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범위를 다 포함을 할 수는 없어서 수강료 부분은 그렇게 좀 한정을 했습니다

■ 김희숙 : 네. 시험과 관련된 내용 지정된 학원

◇ 청년기회과 팀장 : 예를 들어 자동차 이런 경우는 지정된 학원을 경찰청에서 매년 그 지정된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 상에 그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학원을 보시고서 수강을 하시면 저희도 그 학원을 확인해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 김희숙 : 수강료 지원금은 혹시 얼마까지 되나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지원은 수강료 응시료 합쳐서 올해는 30만 원입니다.

■ 김희숙 : 합쳐서 30만 원.

◇ 청년기회과 팀장 : 응시료만 하실 수도 있고 수강료만으로도 30만 원 하실 수도 있고

■ 김희숙 : 이 신청할 때 그밖에 주의 사항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모든 신청이 사업을 보면 주의 사항은 어떻게 있을까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응시료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을 하고요 그 접수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수강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강한 수강료를 지원하고 7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청년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 중앙정부나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좀 참여를 하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희숙 : 이중 혜택이 되니까요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다만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청년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50% 차감을 한 다음에 결제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만 지원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참여하신 경우는 응시료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희숙 : 아 그러면은 완전히 뭐 다른 데서 혜택을 받았으면 전혀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수강료만 지원 받았으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응시료 신청할 수 있고 청년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공단에서 50% 해 주니까 나머지 50% 또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군요
여기서 팀장님 숨 좀 돌리시고 저희가 태연이 부르는 저녁의 이유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 김희숙 : 비싼 응시료내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시군에 따라서 나이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30만 원인데 수강료 아고 응시료를 합쳐서 30만 원이예요 그니까 시험 보는 것과 관련된 학원 수강을 하는 건 수강료도 포함해서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팀장님 말씀이 꺾이 신청을 해서 1년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면허 시험도 됩니다 어학 19종 국가 기술 자격 545종 국가 공인민간 자격 96종 한국사 시험, 국가 전문 자격 248종 있데 자동차 운전면허도 일종 특수 면허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이 되니까 변호사나 노무사 시험도 응시료 수강료 지원이 됩니다. 와 이렇게 정말 푸짐하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또 막상 혜택을 받는 청년분들은 또 쓰는 돈이 많다 보니까 30만 원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수강료 응시료 합쳐서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경기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조재봄 경기도 청년기회과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지원과 홍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도전했던 청년들의 도전 후기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도전 소감 알리기 지금 저희 유튜브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오늘의 기후가 뜨췌. 그 보이는 라디오에 QR 코드가 곧 뜰 겁니다 뜨고 있는데요. 밴드에도 QR 코드 올려 놓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하신 분들 소감을 남겨 주시면은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합니다. QR 코드에 있는 링크에 의견을 남겨 주시고요. 조재봄 팀장님 계속 청년들 의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췌?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당연한 얘기췌. 더 좋은 제안 또 의견 받아서 계속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김희숙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조금만 뭔가 민원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바로 반영이 되면서 해결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에서 하시면 되고요. 수강료 응시료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수강료 지원은 6월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군부대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구요. 청년들만 해당 사항인데 미취업 여부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다 미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회사에서 내주는 보험이 아닌 분들은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사업 하시면서 어떻게 힘드셨을까 또 어떻게 보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좀 궁금했거든요 팀장님



▲ 진행자 / 김희숙 OBS라디오 '오늘의 기후'

◇ 청년기회과 팀장 : 일단은 저는 이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공부할 때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보람이 됐고요. 아무래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들었던 거는 올해 수강료 지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불편하신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하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희숙 : 기존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하는거니까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 김희숙 :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정말 촘촘하게 바로바로 민원이 반영되면서 촘촘하게 만들어졌다 하고 좀 감탄을 했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청년기회과 팀장 :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이 그 미취업 청년들 되게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사업 2년 차여서 지원 문턱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도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서 취업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중요할 거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은 되게 많이 신청을 하실 거 같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희숙 : 아 정말요? 알면 다 할 것 같은데

◇ 청년기회과 팀장 : 네. 일단 청취자 분들께서도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숙 : 지금까지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세봄 경기도 청년 기회과 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MHz 언제나 좋은 날 채리입니다. 15:30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경기도에서 #마을하자 마을하자 댄스 다다다

우리 삶의 기본인 '마을'을 함께 지키고 더 살기 좋은 터전으로 함께 만들어가자는 캠페인, 주민 스스로 SNS에 마을 소식을 올리고 #마을하자 태그달기를 실천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였습니다.

경기 청년기회



경기청년 기회

청년갭이어, 사다리, 역량강화기회지원

위의 후기 샘플을 참고하여 사내 활동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보세요.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 추후 발전할 사항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참가자 23년 소감나눔 청년기회과 24년 안내

위의 후기 샘플을 참고하여 사내 활동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보세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경인방송 라디오 367쪽

프로그램 : 언제나 좋은 날 채리입니다.
 방송시간 :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채널 : IFM 90.7MHZ
 진행 : 채리
 취재기사 : 이실아(아나운서)



【마을공동체】

성남시 대학RCY 마을연구소	369
구리시 갈매마을환경실천단	380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391
경기도 마을하자 댄스 챌린지와 마을주간	400
경기도 경기마을주간	41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437
안성시 공동육아공동체 무지개코딱지	445
고양시 아동돌봄공동체 꿈자람터	459
남양주시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473

【청년기회】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485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94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503

INTERVIEW



▲ 성남시 은행어울터에서 '대학RCY'마을연구소와 경인방송 라디오 이슬아야!윤서 인터뷰(2024.2.7.)

단체명		대학RCY마을연구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설립연도		2021년
구성원		대학생 7명 *인터뷰이: 이원행(대표), 김은수, 김다희
주요활동		·2021. 어서와 우리동네 처음이지 ·2022. 치매 안심마을 청소년 리더와 행복한 백세인생 ·2023. 새로운 일상 속 어르신과 함께 우리는 기억 친구
프로그램		2016년부터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을 주요 활동거점으로 하여 중고등학교 때부터 RCY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을공동체 '동고비마을'과 함께 하게 되었다. 주1회 이상 모임을 갖고 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컨설턴트와 연결되어 경기도 주민제안공모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남 대학RCY마을연구소, 청년과 어르신, 청소년을 잇다!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 (24년 3월 20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팟방](#)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여러분 봄 기운을 갖고 2024년에도 인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경기도 전역을 유람하고 다니는 이실아 입니다. 반갑습니다!

■ 채리 : 실아씨 반가워요! 저랑은 처음이죠?

◇ 이실아 :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레는 마음을 안고 언제나 좋은 날을 찾

아왔어요. 벌써 3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DJ채리는 3월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 채리 : 3월이라... 3월 하면 저는 이제 새싹이 움트고 그런 봄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 이실아 : 그렇죠? 3월엔 입학식도 있고 새 학기의 시작이다 보니까 뭔가 그 시작의 설렘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첫 공동체 소식은 피어오르는 청년들의 젊은 기운을 담아왔는데요. DJ채리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 채리 : 저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니까 더욱 궁금하네요! 얼른 소개해주시죠!

◇ 이실아 :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에 있는 ‘대학RCY마을연구소’인데요. 먼저 어떤 공동체인지 구성원의 한마디 소개 들어보시죠!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구성원 김다희]
“우리 공동체는 저에게는 일상입니다.”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구성원 김은수]
“저한테는 배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대표 이원행]
“‘대학RCY마을연구소는 청년 공동체이면서 은행동의 징검다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리 :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에 있는 ‘대학RCY마을연구소’! 그런데 확실히 청년 공동체인게 느껴지네요. 목소리가 확실히 어리다! 젊다~ 젊어!

◇ 이실아 :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구성원도 있고 20대로 아주 기운이 짱짱하더라고요.
■ 채리 : 그렇군요! 대학RCY마을연구소에 대해서 일상, 배움터, 청년 공동체이자 징검다리라고 말해줬는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공동체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 이실아 :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대학RCY마을연구소는 마을의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세대 간 교류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 채리 : 그래서 일상이라고도 하고 배움터이자 청년 공동체이면서 은행동의 징검다리라고 설명해준 거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어르신이랑 사람을 많이 만나는 저조차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요즘은 세대 간 소통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 채리 : 그렇죠. 더구나 어르신과 아이들이 뭐 접점이 있겠어요!

◇ 이실아 : 대학RCY마을연구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과 청소년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활동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청년과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채리 :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대학RCY마을연구소인가요? RCY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 이실아 : RCY 뭔가 추억의 단어긴 하죠? 예전에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활동이 많았던 말이죠.

■ 채리 : 맞아요! 단복입고 야영도 하고 그랬는데, 실아씨는 어렸을 때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였나요?

◇ 이실아 : 지금은 제가 이렇게 경기도를 유람하고 다니지만, 그 시절의 저는 구석에서 독서를 즐기는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RCY는 이 공동체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구성원 김은수]

“처음에 저희가 RCY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계속 봉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때 당시 이슈가 치매 관련된 이슈였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매 중앙센터에서 저희가 ‘치매 파트너’라는 거

를 다 이제 이수를 했거든요.

공부, 교육을 해서 그래서 이수를 하고 이제 그 당시에 담당 선생님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런 봉사 말고도 우리끼리 해보는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은행동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우리만의 이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 채리 : 중고등학생 때, RCY 단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게 계기가 됐고 여기서 좀 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대학RCY마을연구소가 탄생하게 됐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에 뜻이 같은 학교 선후배들과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봉사 경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동체 대표를 맡은 이원행 군도 그렇고 다들 봉사를 한 지 7년이 넘었더라고요.

■ 채리 :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대학RCY마을연구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이실아 : 2021년에 만들어져서 어느새 3년 차 공동체인데요. 이 친구들이 학창시절 RCY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고 했잖아요.

■ 채리 : 네. 기억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 교육 받는게 쉽지 않았을텐데요.

◇ 이실아 : 그렇죠! 참 기특합니다. 이게 이 친구들에게 공동체 사업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21년도에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 안심마을 협력 사업이 발표가 났는데요. 그걸 우연치않게 본 친구가 ‘이제 우리 은행동이 치매 안심 마을이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 채리 : 이야 만약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소식이었는데 이게 눈에 띄었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은행동 사시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거를 좋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 공동체 대표이기도 해요.

■ 채리 : 그렇군요. 이게 좋은 생각이 이어지면서 공동체 사업 구상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학RCY마을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이실아 : 2021년 첫해에는 ‘어서와 우리동네 처음이지’란 사업으로 안전 지도를 만들거나 안전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다음 해인 2022년부터가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을 안에서 돌봄 활동을 통해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대표 이원행]

“22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직접 움직이고 생각을 하시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손바늘질 작업 같은 그런 거나 저희가 할 줄은 모르지만, 저희도 따

로 배워서 했고 그리고 23년도에도 똑같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정했어요. 글쓰기 교육이랑 오감 만족 교육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라는 것을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랑 이제 1대 1 인터뷰 식으로 에피소드를 듣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서전을 만들게 되었고 오감 만족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바느질 작업이랑 다른 작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양말목을 활용해서 이제 했던 러그나 이런 작품들을 만든 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직접 손으로 하는 거니까 양말목 자체도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채리 :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를 들어도 참 섬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도 못하는 손바느질을 따로 배워서 또 가르쳐드리다니 마음이 참 예쁘네요.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 이실아 :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진행했던 이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프리카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속담처럼 어르신들의 가진 이야기는 정말 그 가치가 대단하죠. 대학RCY마을연구소는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쓰드리면서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줬습니다.

■ 채리 : 저도 누군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자서전으로 써준다면 그 자체로 너무나 감동일 것 같아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실제로 자서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안아주면서 ‘내 얘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게 위로가 너무 됐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 채리 : 이렇게 서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 집니다.

◇ 이실아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기회가 생겨났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대표 이원행]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진짜 완전 말썹꾸러기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좀 걱정 많으셨어요.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점점 바뀌고 있더라고요. 좀 온순하게 바뀌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를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 21년도부터 활동을 하면서부터도 어르신들이 1년마다 계속 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웃음이 없으셨던 분이 웃음이 좀 조금씩 늘어나시고 그리고 말을 안 하시고 화만 내셨던 분들도 찾아지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약간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 대학RCY마을연구소 구성원 김은수]

“어린 친구를 볼 때 사실 이렇게 무시를 하셨었대요. 원래 살짝 반말을 하게 된다던가 근데 그런 게 저희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반말을 하거나 하대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구나를 알게 되셨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르신들께서 약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 채리 : 말썽쟁이였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모범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본인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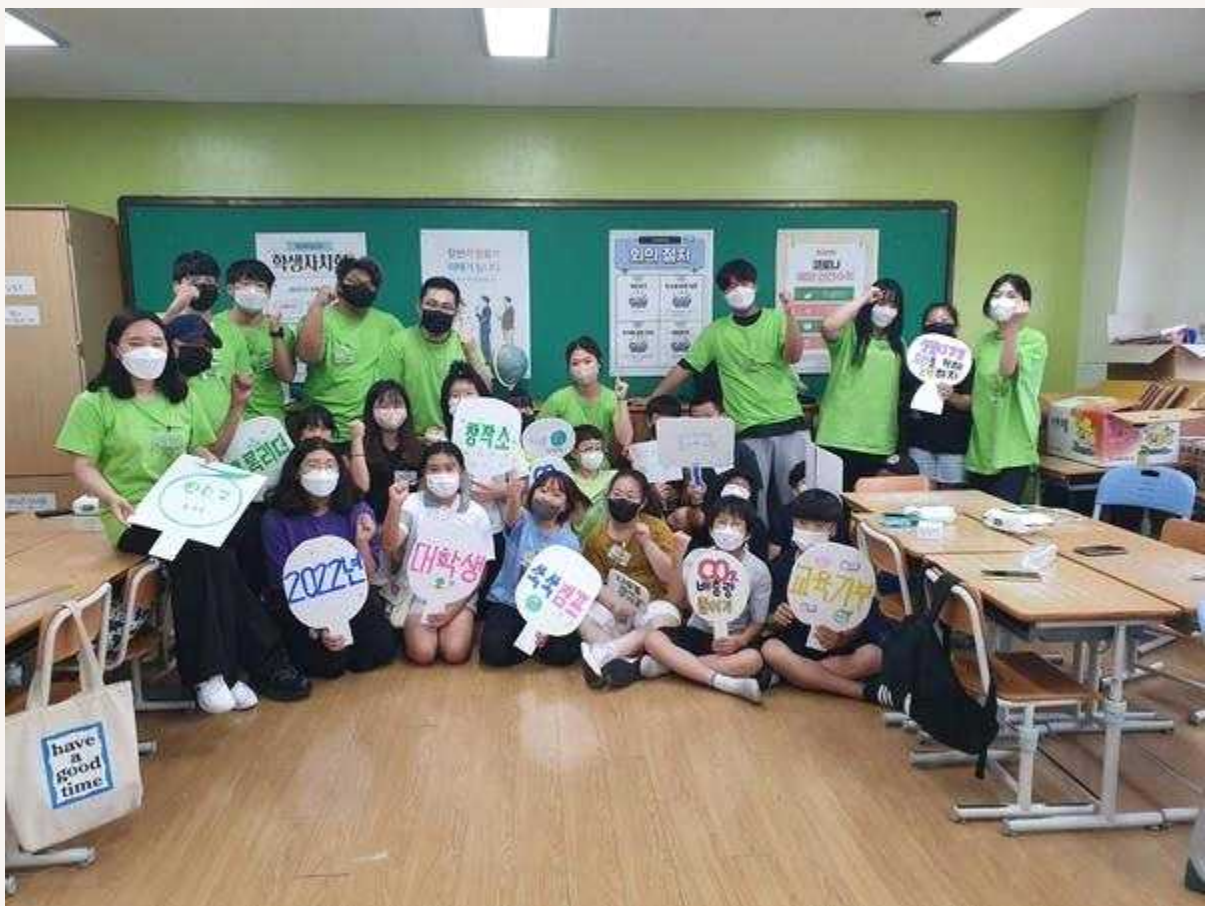
◇ 이실아 : 맞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배려하는 마음도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공모사업 말고도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썩은 어르신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말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따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은 먼저 달려오셔서 그냥 얼굴만 보러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 채리 :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면 왔다고 하니까 집에서 달려가겠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실아 : 일단 성남시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하셔서 대학RCY마을연구소와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면 이 공동체와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 채리 : 좋습니다.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전화 부탁해요~ 오늘은 성남시 은행동에서 세대간 교류를 통해 어르신과 청년들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 대학RCY 마을연구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아씨 수고하셨습니다.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좋은 공동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사진제공 = 대학RCY마을연구소]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기삿글 보기)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36>

(팟방 오디오 듣기)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1525/episodes/24898550>

INTERVIEW



▲ 손길상점에서 '갈매마을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유경임 활동가와 이시아 아나운서 인터뷰 (2024.4.8.)

단체명	갈매마을환경실천단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설립일	2022년
구성원	10명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대상 환경교육 및 종이팩 수거 이벤트· 갈매천 환경유해종 식물제거 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돛자리 벼룩시장· 우리 마을실험실 21% 파티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환경과 삶을 실천하며 손길협동조합을 이루어 상점 운영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후위기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천이 있었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환경 활동 등 실천의 필요를 공감하는 이들과 마을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제로웨이스트 사업, EM 제품 원데이클래스를 통한 환경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아이와 환경 위해 뭉쳤다!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4월 24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실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랜만에 마을공동체 소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마을공동체를 소개해 드리다 보니 이제 마을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마을하자를 발견했습니다.

■ 채리 : #마을하자요? 이게 뭔가요?

◇ 이실아 : #마을하자는 마을공동체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 등 SNS에 활동 소식을 올릴 때 마다 #마을하자라는 태그를 달자는 캠페인입니다. 경기도에서 다가오는 마

을주간을 맞이해서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마을 안에서 ‘누구든지, 뭐든지, 뭐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마을하자 태그를 다는 거죠!

■ 채리 : 오 누구든지, 뭐든지, 뭐라도 일단 올려보자는 거군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소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저도 이 #마을하자 태그를 따라서 구리시에서 있는 ‘손길협동조합’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활동의 시작이 된 마을공동체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채리 : 이렇게 발견하게 된 마을공동체군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인지 더욱 궁금해 집니다. 얼른 소개해주시죠!

◇ 이실아 : 네! 먼저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은 마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유경임 활동가]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어서 너무 예뻐요.”



[사진 = 이실아 아나운서]

■ 채리 : 정리하자면 환경을 생각하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다! 이건가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이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을 두 가지 키워드로 말하자면 바로 환경 활동가의 모임과 아이들인데요. 이 공동체가 있는 갈매마을은 구리시에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신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온 젊은 세대들이 많았고, 갈매마을 환경실천 단도 대체로 젊은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 채리 : 그렇다면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그래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 이실아 : 처음 시작은 책방에서 책을 읽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손길협동조합 대표이자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을 만든 김연희 대표를 통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이 모임은 원래 저희 갈매마을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갈매마을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그냥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모집했지만 제가 우연한 계기에 환경 교육을 하는 거를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화분 심기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계기는 그전에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원래 꿈의 학교라는 그걸 운영을 했거든요. 그 신도시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금 뭐라도 활동하시는 분들 오세요.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모여봅시다’라고 해서 그 계기로 모였던 거죠.”



[사진제공=갈매마을 환경실천단]

■ 채리 : 마을 복지관에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마을활동가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공동체를 만들게 됐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구리시에서는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생태환경과 관련한 교육도 했는데, 주민들이 교육을 들으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게 됐다고 해요. 특히나 신도시들이 대체로 자연과 더불어서 주거 환경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 채리 : 아 그렇죠. 요즘 생긴 신도시들은 공원도 잘 되어있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 이실아 : 그런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듣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일회용품으로 넘쳐나는 세상과 이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예쁘게 되어있는 이 마을을, 더 나아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지구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해요.

■ 채리 : 역시 엄마의 마음이란 그렇죠.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실아 : 처음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서 ‘환경을 생각해서 빨래 2번 할 거를 한번 좀 덜할까,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설거지할까?’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다양하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찾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었어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환경 활동은.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해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이제 이렇게 EM, 그 비누 있잖아요. 비누 만들기 하는 선생님들도 모셔서 환경 이야기 듣고 만들어보고 교육 활동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체 다 같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종이팩 수거 활동 그다음에 폐현수막 가방 만들기 활동, 친환경 세제 이런 거 만드는 거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눔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벼룩시장도 해보고 어른들 대상으로 벼룩시장도 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죠. 자연을 좀 더 가꾸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주우러 플로깅 하러 돌아다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지금 그런 곳이 있어요. 쓰레기가 오히려 거기에 모아지고 막 투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를 예쁘게 관리를 해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코스모스도 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이 진짜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사진제공=갈매마을 환경실천단]

■ 채리 : 환경 교육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벼룩시장까지 진짜 많은 활동을 해왔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EM이 나오던데 EM이 뭔가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이실아 : 저도 듣기만 했지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가끔 ‘주민센터에서 EM 용액 나눠드려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앞글자를 따서 EM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같이 우리 몸에도 그리고 환경에도 유익한 미생물을 뜻합니다.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의 산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흔히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비누, 세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품이 잘 나고 세정력이 뛰어나지만, 고농도 합성 계면활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이게 또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한 대요!



[사진 = 이실아 아나운서]

■ 채리 : 아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EM, 이 유익한 미생물을 쓰라고 하는군요! 방금 들으면서 이래서 환경교육이 필요하구나! 바로 깨달았습니다.

◇ 이실아 : 그렇죠? 앞으로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 말고도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이 한 활동은 더 많습니다. 갈매마을엔 녹지가 많은데, 여기에 환경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풍잎돼지풀의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은 갈매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특별제거 작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해요!

■ 채리 : 아까 말한 마을을 돌보는 활동도 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갈매마을 환경실천단과 뜻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실아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을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 연락주셔도 되고요!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안에 거점공간인 ‘손길상점’도 있으니 이곳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채리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도 변화를 경험했을 거 같아요!

◇ 이실아 : 맞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하네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벼룩시장을 이제 위드코로나 선언되면서 시작을 딱 하니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런 자원 순환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왜 엄청 풍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다라는 거를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니 아이들도 오히려 더 신나서 너 이거 쓸래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애기하고 아이들이 좀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자원순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유경임 활동가]

“이제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죠. 우유 팩 갖고 깨끗하게 말려 왔을 때 이제 주방 세제 주는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유를 이렇게 먹다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사서 먹고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사진제공=갈매마을 환경실천단]

■ 채리 :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막 친척 언니, 오빠 옷 물려 입고,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쓸만한 것들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직접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니 참 뜻깊습니다!

◇ 이실아 :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활동을 블로그를 통해 보고 돌봄센터에서 환경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는데요. 실천 활동에 진심을 다한 엄마들의 마음이 이어져 강사까지 영역을 넓혀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 채리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찾으신 거네요!

◇ 이실아 : 활동가분도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생활실천과 환경교육 활동을 하며 자원을 재활용한 제로웨이스트 샵과 더불어 EM제품 원데이 클래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인터뷰 / 갈매마을 환경실천단 김연희 대표]

“저는 솔직히 환경에 진짜 문외한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가정주부로서 자녀 잘 양육하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이 자녀 양육하는 거가 결국 내가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결국 아이들의 시선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었고 그게 교육이 되었어요.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저절로 아이들이 또 학습이 되었고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성장이 곧 모두의 성장이고 모두에게 주는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 채리 :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이었다. 이야 너무 듣기 좋습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실아 :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활동 글 올리실 때 #마을하자 태그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람들의 소식이 서로에게 닿으면서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하기’로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 채리 : 좋습니다. #마을하자 캠페인! 경기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마을하자 태그는 제가 풍성한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큰 힌트를 주었는데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 채리 :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하는 갈매마을 환경실천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아씨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좋은 공동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끝)

INTERVIEW



▲ 고양시 'J'가에서 '서부권역 도미니언즈'와 경인방송 라디오 이실아 아나운서 인터뷰(2024. 5. 9.)

인 터 뷰 이

최정순(마을만들기 고양네트워크 대표) 정선애(파주시 금2동 북적북적 대표)
이은미(파주시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36.5 대표) 이예정(마을에디터)
윤여정(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한효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플랫폼사업팀장 배석

모 임 명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언즈' 서부권역 모임

서 부 권 역

고양, 김포, 부천, 시흥, 파주

활 동 주 기

1년 (2024년)

도미니언즈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활동가
·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 내 문제 발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안
· 조사, 학습, 토론, 세미나, 주민 홍보 등 정책개발비용, 작은연구
· 우리 마을 실험 지원

도미니역현

- 2018년 경기도마을공동체한마당 마을정책장터 '마을정책플랫폼' 제안
- 2019년 제1회 경기도민정책축제 정책제안 '주민이 주인인 생활정치를 논하다'
- 2020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연구 설계
- 2021년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공공서비스 시작
- 2024년 경기도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디지털공론장 확장

마을활동 고민, 경기도 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로 모이세요!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5월 22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어느새 5월도 거의 끝이 났네요. DJ채리는 문제가 생겼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 채리 : 아이고 실아씨 요즘 고민이 많아요?

◇ 이실아 : 저야 어떻게 하면 청취자분들께 더 좋은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을지 늘 고민이죠.

■ 채리 :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아씨 충분히 알찬 소식을 전해주고 있

는걸요.

◇ 이실아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번에 제가 경기도 서부 권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구성원분을 만났는데요.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그 고민들을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 파주시 금2동 북적북적 대표 정선애]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북적북적북적 하는 역사 수업을 시작해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 이용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인터뷰 /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윤여정]

“저희 마을은 그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정책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너무 막연했었어요.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인터뷰 / 파주시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36.5 대표 이은미]

“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5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마을을 만드는데 주민들은 바둥거리는데, 공적 지원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채리 : 공간 조성부터 전문가 섭외, 지원까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 이렇게나 다양하군요.

◇ 이실아 : 맞아요. 저도 이 고민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마을공동체는 우리 마을 안에서 마을의 고민과 문제에 공감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니까요.

■ 채리 : 오히려 마을공동체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더 일반적이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학교처럼 선생님이나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 이실아 : 놀랍게도 경기도엔 이미 마을공동체 분들의 집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마을공동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 채리 : 아 그래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곳이 있다면 마을 활동가분들이 훨씬 편하게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소개해주세요!

◇ 이실아 : 바로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마을 커뮤니티 ‘경기도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인데요. 도미니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도미니언즈라고 하더라고요. 도미니언즈를 통해 도미니가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 마을만들기 고양네트워크 대표 최정순]

“도미니는 경기도 마을 정책 플랫폼을 우리가 줄여서 이제 도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도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자신의 마을 이야기를 다른 활동가들 또 다른 도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미 했던 공동체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맞게끔 또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아이디어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집합체 요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활동가들에게는 이 정책 플랫폼 도미니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기도 해요.”

■ 채리 : 그러니까 이 ‘경기도 마을 정책플랫폼, 도미니’는 ‘마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마을에 관련된 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이실아 : 네 맞습니다.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네요!

■ 채리 : 그런데 도미니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제가 아직 마을공동체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도미니가 마을 활동가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이실아 : 제가 여러 마을공동체를 찾아가 본 것을 토대로 말을 하자면 마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사람 자체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더라고요.

■ 채리 : 모든 활동이 어떻게 공짜로 이뤄질 수 있겠어요. 인적, 물적, 공간적 자원까지 다 필요하죠.

◇ 이실아 :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 활동가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미니와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채리 : 오? 그렇다면 도미니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움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실아 : 도깨비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하고 돈, 공간, 사람이 다 나올 순 없겠지만요. 네비게이션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도미니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마을만들기 고양네트워크 대표 최정순]

“고양시 화정2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인구가 약 3만 2천 명 정도인데 주민들이 진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마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을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미니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도민의 정책 상상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에

우리가 ‘마을 공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마을 공유 공간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 채리 : 아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도움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 보는 작업도 했더니 대단하네요. 정말 네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군요!



◇ 이실아 : 그렇죠? 이렇게 도미니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에는 마을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마을실험실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도미니는 공론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 채리 : 경기도가...어떻게 생겼죠?

◇ 이실아 : 서울을 중심으로 도넛처럼 감싸는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 마을활동가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 채리 : 맞죠. 지금 수원이랑 저기 동두천 거리만 해도 상당할 거예요.

◇ 이실아 : 그래서 도미니는 온라인을 통해서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모여 함께 활동에 대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책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5개 권역으로 나뉘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합니다. 서부권역 도미니언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인터뷰 / 파주시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36.5 대표 이은미]

“도미니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 공동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을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지 않는 그 이상의 범위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도미니’라는 게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마을공동체라는 거를 진짜 무형인 것 같지만 유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로 처음에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다음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를 않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과 확산을 위해서 앞에 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거를 도미니하고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로”

마을공론장은?

경기도민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함께 더 나은 마을살이를 위한 제안, 토론, 정책을 만드는 쌍방향 참여 플랫폼입니다.



■ 채리 : 듣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 보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 이실아 : 사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의별 일을 겪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채리 : 그래도 이제는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도미니가 있으니까 좀 더 걱정을 놓을 수 있겠네요.

◇ 이실아 : 그렇죠? 경기도 안에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도미니언즈를 활동 중인 마을공동체 대표분들이 도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 파주시 금2동 북적북적 대표 정선애]

“저에게 도미니는 친정엄마, 가서 막 편하게 이를 수 있는데 등을 ‘힘들었지?’ 토닥토닥 해주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

[인터뷰 / 정발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윤여정]

“도미니는 비밀 수 있는 언덕 우리 모두의 뒷백입니다”

[인터뷰 / 마을만들기 고양네트워크 대표 최정순]

“도미니란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각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도미니에 다 올려놓으면 여러 도민들 여러 공동체들, 여러 활동가들이 그것을 꿰어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보배를 만드는 곳 이곳이 바로 도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경기도 도민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채리 : 친정엄마 같다, 비빌 언덕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도미니가 얼마나 마을공동체 구성원분들께 소중한지 더 느껴지네요.

◇ 이실아 : 무엇보다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고민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경기도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를 찾아주세요.

■ 채리 : 경기도민 분들이 도미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참여해주신다면 우리가 더 공동체의 가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실아 : 덧붙여서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주변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마을에 관련된 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경기도마을정책 플랫폼, 도미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아씨 마을공동체를 위한 알찬 소식 늘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INTERVIEW



▲ 경인방송 라디오 이실아 아나운서 전화 인터뷰(2024. 5. 30.)

- 인 터 뷰 이** | 신남균(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이지영(용인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임현숙(은행2동 마을정원사)
| 연인선(용인시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챌린지 취지 |

‘마을 다다다~’ 노래에 맞춰 마을하자 댄스 영상을 SNS나 캠페인 랜딩 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하는 춤은 즐거움과 재미는 물론이고 화합과 결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재입니다. 노랫말은 반복을 통해 기억되고 확산되고, 춤은 경직된 일상에서 몸의 감각을 깨우며 삶에 에너지를 더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행위는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자연스런 연결의 촉매제가 됩니다. #마을하자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챌린지 2 ‘마을 다다다~’ 영상을 제작, 확산하였습니다.

모두 마을하자!

댄스 챌린지와 함께 하는 2024 경기마을주간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6월 5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공동체를 위한 좋은 소식들을 모아, 모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찾아왔는데요.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새 6월입니다. 어떻게 2024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2024년의 상반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 채리 : 어머니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새롭네요. 내가 세운 계획들을 잘 이뤘나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실아 : 그렇죠? 뭔가 6월이 일년의 중간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해를 점검해보고 의지를 다시 다져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인 경기마을

주간이 열리기 때문이죠!

■ 채리 : 경기마을주간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청취자여러분께도 소개해주시죠.

◇ 이실아 : 경기마을주간은 올해로 3회차인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인터뷰 /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올해로 3년째 진행이 되는 경기마을주간은 경기도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을 집결하고 마을 활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행사입니다. 마을 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운영 방식으로 31개 시군 간 마을 이해를 높이고 상호 교류 및 학습을 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이번 경기마을주간은 ‘마을은 놀라워’라는 주제로 33개의 마을 지식 담론 콘퍼런스가 6월 27일, 28일 안양 김중업건축박물관 및 안양예술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3일 차에는 마을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6월 29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처음 기획부터 함께 시군 마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마을 운동회로 진행이 됩니다.”

■ 채리 :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마을주간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행사라는 거죠? 마을 운동회까지 한다니 기대되네요.

◇ 이실아 :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도넛 모양으로 경기도 전역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모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경기마을주간은 3일에 걸쳐 경기도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갖고 학습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자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죠. 퀴즈! 이번 행사 주제가 뭘까요?

■ 채리 : 아? 방금 인터뷰에서 말해주셨는데 ‘마을은 놀라워!’

◇ 이실아 : 오 맞습니다! 바로 ‘마을은 놀라워!’입니다.



2024 경기마을주간

마을은 놀거위

2024

6월

27(목)

28(금)

전시회
시회
유퍼런스
공퍼런스
세미나
라운드
간담회
비치
피트니스



모여서
떠들고

안양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더테라스+켄커피

<http://week.gmaeul.or.kr>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

29(토)

교류회
활동가운동회

뛰고
놀자

놀거위

[사진제공=경기도청]

■ 채리 : 역시 실아씨 리액션이 좋아요.

◇ 이실아 : 당연하죠~ 이 주제에 맞게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랑방 약국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소식을 온라인에 올릴 때, #마을하자 태그 달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 채리 : 아 SNS에 마을공동체 소식을 올릴 때 ‘#마을하자 태그하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실아 : 네 맞습니다. 이 캠페인에 맞춰서 ‘마을하자’ 음악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노래가 귀엽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래 / 마을 다다다]

(챌린지)

너도 #마을하자

우리가 주인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하자

다 같이 마을

다 모여 하자

우리 다 함께 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다다

다 할 수 있어, 다다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다 함께 #말하자, 다다다

다다다

#마을다다

참여챌린지2

마을다다~ 춤을 춰요



[사진제공=경기도청]

■ 채리 : 참 노래가 신나네요. 저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손도 흔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 이실아 : 그렇죠? 춤은 제가 다 춘 거 같지만, 댄스 좋아하시나요?

■ 채리 : 아이 신나는 댄스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그런데 댄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실아 : 채리가 또 리믹스의 달인이잖아요! 다음에 채리가 기가 막히게 이 마을하자 노래를 신나게 리믹스 해줬으면 좋겠네요.

■ 채리 :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죠. 신나는 음악 맡겨주세요!

◇ 이실아 :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 맞춰 커뮤니티 댄스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 채리 : 커뮤니티 댄스가 뭐가요?

◇ 이실아 : 이번 커뮤니티 댄스는 일명 함께 모여 추는 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함께 본인들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댄스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마을하자 댄스’와 관련해서 용인 마을활동가분께 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연인선 용인시 마을활동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사회가 경직돼 있다 함은 몸도, 감정도 경직돼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도 경직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율동과 춤, 노래, 음악 이런 것들이 이런 경직된 것을 푸는 데 굉장히 좋은 기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유연해져야 생각도 유연해지고 관계도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재미더라고요. 즐거움 그리고 의미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뭐라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춤을 추다 보면 서로 소통할 기회도 생기고 재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마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그렇고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채리 : 노래, 춤이 그런 의미가 있죠. 경직된 우리를 풀어주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죠. 그러면 이 댄스는 다른 분들도 함께 추는 거예요?

◇ 이실아 : 아까 들려드린 ‘마을 다다다’ 노래 부분이 바로 챌린지 부분인데요. 율동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돼요! 손을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모양을 하고 너, 나, 우리를 표현하고 하트!

PART2

‘마을 다다다~’ 뒷부분은 챌린지 영상을 보고 몸짓을 따라하세요

너도 #마을하자 /우리가 주인 /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하자
다같이 마을 / 다모여 하자 /
우리 다함께 하는 가치가 기회로, 다다다
다할 수 있어, 다다다 / 다모여 여기로, 다다다 /
다함께 #말하자, 다다다 / 다다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채리 : 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청취자 여러분 있나요? 정말 춤이 아니라 율동이네요. 간단하고 귀엽습니다.

◇ 이실아 : 저도 몸치인데 몇 번 보고 금방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보시고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챌린지 영상 찍고 모두 #마을하자 태그 통해서 SNS에 올려주세요!

■ 채리 : 그러니까요. 할 맛이 나는데요?

◇ 이실아 : 참여한 분들도 같이하니깐 너무 흥이 났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은 물론이고 현암고 친구들과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이 마을하자 댄스를 같이 춘 이지영 마을활동가를 통해 들어볼까요?

[인터뷰 / 이지영 용인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저희가 처음에 댄스 이제 준비를 하자 미션이 왔을 때 내용이 조금 많기는 했었어요. 이제 어깨 그냥 단순하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제 동작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췄는데 일단 음악이 다다다 음악이 좀 좋았어 가지고 그걸 두세 번 보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준비 과정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손으로 찌르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레디 액션 하면서 같이 그런 이제 춤을 추는 과정 촬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예전에 느꼈던 그 공동체 감성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잠시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댄스를 통해서 좀 또 재미있는 한 꼭지가 된 것 같아요.”

■ 채리 : 재미있는 한 꼭지가 된 것 같다고 하시니 듣는 제가 뿌듯하네요. 계속 이 마을하자의 노래 멜로디 다다다~♪ 이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댄스에 맞춰 저도 추고 싶은데요!

◇ 이실아 : 경기마을주간 마지막 날에 마을 운동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 같이 이 커뮤니티 댄스를 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리도 신나면 한번 춰서 올려주세요!

■ 채리 : 제가 여력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볼게요. 추가로 이번 행사에 궁금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실아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경기마을주간은 물론 #마을하자 챌린지와 더불어서 마을하자 댄스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채리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주세요!

◇ 이실아 : 마지막으로 제가 #마을하자 태그를 따라 가다가 정말 예쁜 정원에서 마을 하자 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봤는데요. 이 분들의 후기 하나 더 들어보고 올게요.

챌린지 참여 방법

**‘마을 다다다~’ 참고 영상을 보고
리듬에 맞춰 우리 마을공동체 활동을 표현 해보세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우리만의
소품과 몸짓을 만들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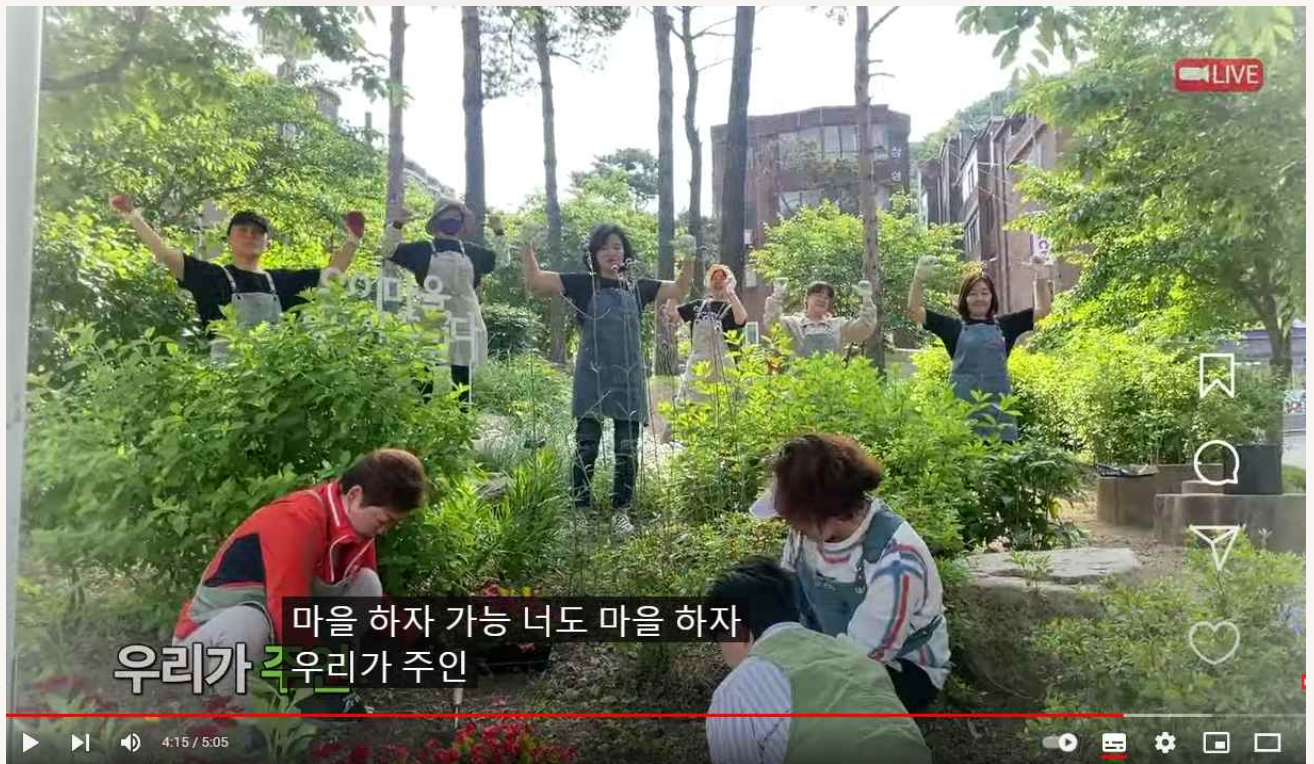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나 SNS에
#마을하자 태그 를 달아 올려주세요!**

[사진제공=경기도청]

[인터뷰 / 임현숙 성남 은행2동 마을정원사]

“경기도에 있는 모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은행2동에 마을정원사들이 함께해 주셔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지금 다섯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섯 곳이 모두가 황무지였고 쓰레기 밧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꽃밭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놀러 오시거나 그리고 이런 챌린지 같은 거 함께 해주시면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다 활동에서 혹시라도 장소가 필요하거나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시

면 저희가 언제든 열어드리겠습니다.”



■ 채리 : 쓰레기 가득했던 곳이 마을정원으로 바뀌었다니 춤을 춘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 이실아 : 이게 바로 공동체의 공감대이자 함께 했을 때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뿌듯함이 배가 될 것 같아요.

■ 채리 : 그러니까요. 온라인에 마을 소식을 올릴 때, 마을하자 태그를 달고 게시죠? 이 #마을하자의 챌린지의 일환으로 하는 커뮤니티 댄스! 가사도 신나고 함께 하면 더 즐겁거든요! 우리 모두 마을합시다!

◇ 이실아 : 좋습니다. 내친김에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모두 마을 해요”로 인사해볼까요? “우리 모두 마을 해요”

■ 채리 : 하하하 “우리 모두 마을 해요” 즐겁네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구성원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주시면 이번 2024 경기마을주간행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실아씨, 마을공동체를 위해 경기마을주간에 대해서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 이실아 :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채리 : 알겠습니다.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었습니다.(끝)

INTERVIEW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경인방송 라디오 이시아 아나운서 인터뷰(2024.6.13.)

단체명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신곡동, 씨티메디타운)
설립일		2015년 6월
구성원		24명(2024.5.21. 기준)
미션/비전		(미션)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 도민과 만드는 새로운 경기 (비전) 연대와 협력의 자치공동체, 마을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의 혁신
4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주체의 역량강화· 지원체계와 지원방식의 지속적인 혁신· 마을공동체 의제연구와 정책개발 활성화· 공감과 참여,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인터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태구 (기획팀장)· 곽현지 (마을정책팀장)

2024 경기마을주간 놀라운 마을이 궁금하다면? 놀러오세요!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6월 19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우리 마을공동체를 위한 좋은 소식들을 모아, 모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경기마을주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축제인 2024 경기마을주간이 벌써 1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 채리 : 시간 참 빠르네요, 저 아직도 그 다다다~ 멜로디가 맴돌아요. 맞죠?

◇ 이실아 : 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짹막하게라도 한 번 취 보는 거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이 마을 다다다 커뮤니티 댄스를 배워왔거든요. 거의 울동에 가까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2024 경기마을주간

마을은 노래가 주어

<http://week.ggmaeul.or.kr>

20240627~0629

경기도
안양시
일원

■ 채리 : 좋습니다. 제가 또 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서 알려주시죠!

◇ 이실아 : 그럼 끝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오른손을 번쩍 들어 검지를 펴주시고 하늘을 찌르면서 점프, 점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세로 양손을 들어서 손으로 모여라, 모여라 하면 되거든요.

■ 채리 : 이게 보면서 하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 이실아 : 참 쉽습니다. 이 오후 3시의 끝자락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찌뿌둥하잖아요. 또 한 번 일어나 주시면 좋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채리와 함께 이 마을 다다다 댄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다면 참여해주세요! 마을 다다다 노래 큐!

[노래 / 마을 다다다]

다다다 다 할 수 있어,

다다다 다 모여 여기로,

다다다 다 함께 #말하자, 다다다 다다


#마을하자 댄스 '다다다' 설명 영상

모두 함께 춤을 춰요

마을주간(6.27~6.29)에 모두 만나
'마을 다다다~' 춤으로 함께 함을 즐겨요.

장소 안양시 호계체육관

시간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진제공=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채리 : 시작부터 참 신나네요. 아 더 출 수 있는데 아쉬워요.

◇ 이실아 : 마을의 어원이 말을 섞을 수 있는 근거리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사에도 ‘다 함께 말하자’를 넣었다고 해요! 우리 서로 따듯한 말을 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운동으로 한번 해봤고요. 너무 짧아서 아쉽다면 2024 경기마을주간에 참여해보세요. 본격적으로 마음껏 실력을 뽐내실 수 있습니다.

■ 채리 : 그래요? 그러면 이번 경기마을주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소개해주세요. 소개를 해줘야 참여를 하죠!

◇ 이실아 :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24 경기마을주간은 ‘마을은 놀라워’라는 주제로 안양시에서 6월 27~29일 다음 주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열리는데요. 올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상한 마을>, 또 다른 하나는 <명랑운동회>예요.

■ 채리 : 오? <수상한 마을>과 <명랑운동회>라니 이름만으로도 흥미로운데 얼른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이실아 : 먼저 <수상한 마을>은 이제 모여서 떠드는 파트로 1, 2일 차에 안양예술공원과 김중업건축박물관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예요. 33개의 세션으로 토론회, 전시회, 공유회, 나눔의 토크쇼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랑운동회는 3일 차 행사인데요.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에서 저희가 앞서 춘 이 ‘마을 다다다’ 커뮤니티 댄스를 출 수 있고 마을공동체와 함께 뛰어노는 레트로 콘셉트의 체육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채리 : 수상하다 수상해, 이 수상한 마을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상을 탄 수상한 마을만 모인 거 아니에요?

◇ 이실아 : 하하 나름 예리하신데요? 이번 2024 경기마을주간 주최 기관으로 힘쓰고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곽현지 팀장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사진제공=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터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 팀장 곽현지]

“〈수상한 마을〉은 이제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을이라고 했을 때 마을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물음
 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마을 공동체들도 스스로 느끼
 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살고, 마을에서 생활하고, 마을 살이를 하고 있
 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거 거든요.

깊고 넓고 재미있고 다양하고 어떤 삶의 기쁨과 슬픔이 다 있는 곳이고 알면 알수록 놀라운 곳이거든요.

새롭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을 어떻게 정의해 볼까 하다가 ‘〈수상한 마을〉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수상한 마을〉로 가보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수상한 마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을까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까를 펼쳐내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33개의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 채리 : 오호라 ‘수상한’이 왜 붙었나 했는데 알면 알수록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곳이어서 그렇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모여서 떠들 수 있는 3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주민 자치, 네트워크, 마을공방, 정책, 기후위기, 미디어 정말 주제도, 나누는 형태도 토크쇼, 강연, 토론회, 포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참 다양합니다.

■ 채리 : 우와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은 주제에 맞는 세션에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진짜 웬만한 주제는 다 있으니까요. 너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도 식히고 다양한 이야기와 재미를 나눌 수 있는 경기마을주간에 오세요! 마을공동체를 위해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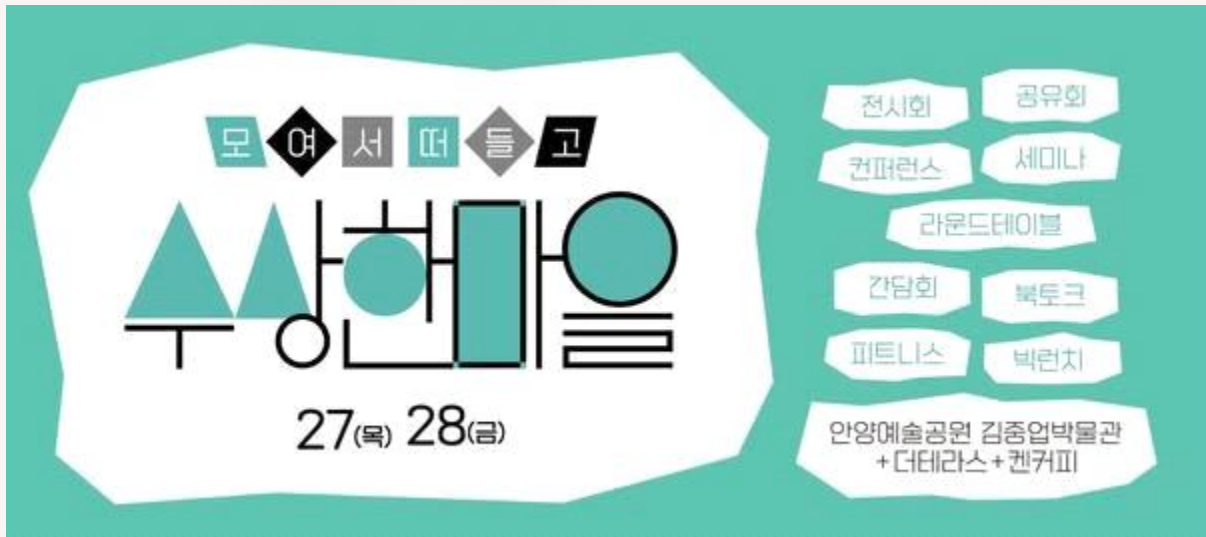
■ 채리 : 너무 좋네요.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 이실아 : 아 사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상한 마을>은 동시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2일차 금요일 행사에서는 오전엔 해외연사 강연도 있고, 타로, 사주 별자리로 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는 ‘공감테이블’, 트레이닝과 연관지어서 함께 해보는 민주주의 근육키우기 활동, ‘데모크라시 피트니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엔 이

야기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빅런치’가 있는데요.

■ 채리 : 아니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다 가능해요?

◇ 이실아 :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사진제공=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터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 팀장 곽현지]

“올해는 경기 마을공동체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을 했고, 또 참여 의지도 되게 높으세요.

이렇게 3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주도적으로 행사를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져서 올해는 저희 경기도와 이제 저희 경기센터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경기도 기관들을 비롯하여 마을공동체가 이제 33개 시군에 이제 22개의 이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들이 이제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한 마을>에는 ‘수상한 마을 기획단’이 따로 있고, <명랑한 마을>은 ‘명랑한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민공동체 마을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모든 세션과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 기획하고 그 날 진행하고 함께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 채리 : 그러니까 예전엔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전문가 위주로 행사가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엔 경기도 곳곳에 있는 마을 활동가분들도 운영과 기획에 참여한다는 소리일까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천여 명 규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33개 세션이 동시에 돌아간다는데 사실 이게 소수로는 진행되기가 어렵죠. 이제 마을 단위에서 각각의 세션들을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 채리 : 그렇네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규모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실아 :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더 기대되지 않나요? 많은 마을공동체가 기획에도 참여한 만큼 다채롭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 채리 : 올해 경기마을주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무턱대고 가도 될까요?

◇ 이실아 : 물론 그냥 가도 되지만요. 사전신청을 하시면 더 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션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신청하고 가시면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팀 팀장 김태구]

“저희 경기마을주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경기마을주간’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경기마을주간’ 사전신청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마을주간’이 사실 활동가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경기도에는 되게 많은 마을들도 있고 사실 많은 도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도민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니까, 사전신청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 대해 궁금하거나

한 번 볼까 수상한 마을 한번 볼까 수상한 마음이 들면 꼭 참석해 주셔서
사진 시청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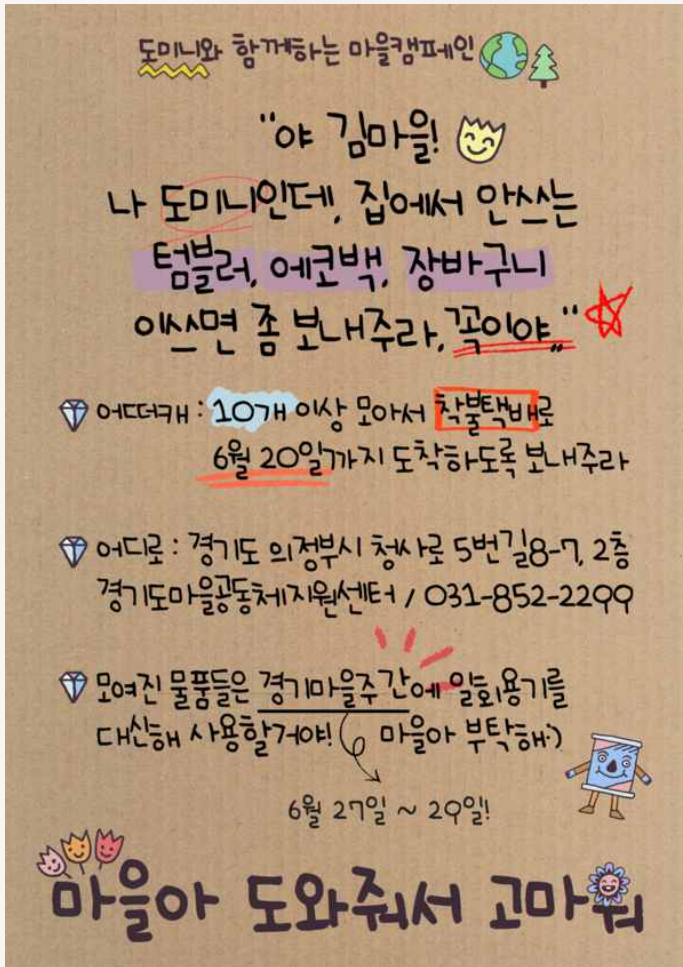


[사진제공=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채리 : 지금 듣고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마을공동체가 궁금하거나 수상한 마음이 들면 사전신청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 이실아 : 다음 주 토요일 딱히 일정이 없는데 만약 뭔가 활기찬 활동이 필요하다면

마지막 날 행사인 <명랑 운동회>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나 <명랑운동회>는 이제 마을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구, 지인분들도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남녀노소가 정말 다 모이고 개인전, 단체전 다 참여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세요! 다만 준비된 게 부족하면 아쉬울 수 있으니 행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 채리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꼭 해야겠네요.

◇ 이실아 : 그리고 혹여나 일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마음을 나누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경기마을주간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정책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에서 쓸 텀블러와 에코백을 기증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채리 : 집에 안 쓰는 텀블러랑 에코백 진짜 많은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 이실아 : 그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7, 2층, 경

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보내주시면 행사 기간 잘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 채리 :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뽁뽁이까지 잘 포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사진제공=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이실아 : 좋아요. 만약 행사 참가가 어렵다면 이렇게 마음이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 2024 경기마을주간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해요!

■ 채리 : 마을다다다 말고 또 있나요?

◇ 이실아 : 네! AI가 만들고 부른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주제는 AI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노래도 멜로디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한 마을' 노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노래 / 수상한 마을]

여기 수상한 마을이 있어

모두가 있고 모두가 어울려

여기 수상한 마을이 있어

모두가 다른데 모두가 같아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아보세

땀땀땀따라땀땀땀

수상한 마을에서

꿈꾸며 놀아봐

■ 채리 : 이게 AI가 만든 거라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 이실아 : 너무 좋죠? 가사는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쓴 건데요. 멜로디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것은 모두 AI가 했다고 합니다.

■ 채리 : 어딘가에서 이렇게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마을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AI가 활약하고 있다니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 이실아 :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마을공동체처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경기마을주간은 이렇게 마을공동체와 정말 신문물인 AI까지 총출동해서 알차게 준비한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이자 축제인데요. 이번에는 3일간 진행되어서 프로그램을 더 다채롭게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참여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채리 : 그러게요. 사람이 또 많아야 즐겁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번 2024 경기마을주간이 더 즐겁고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 이실아 : 2024 경기마을주간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담지 못한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 채리 :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축제이자 가장 큰 행사인 2024 경기마을주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실아씨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끝)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기삿글 보기)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91367>

(팟방 오디오 듣기)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1525/episodes/24942909>

INTERVIEW



▲경기도청 9층 사회적경제국 대회의실에서 경인방송 라디오 이실아 아나운서와 홍성호 공동체지원과장 인터뷰(2024.7.10.)

인 터 뷰 이 | 홍성호(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과장), 이채성(사업담당자)

질 문 지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홍보

1.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 전반적 소개 및 추진 배경)
- 2.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 2.2.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1회성인지 꾸준히 받는 것인지?
(현금인지 바우처인지, 또는 시설물인지 지급 방법)
3. 지원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공간 기준, 돌봄 대상, 소득제한 등
4.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은?
5.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6. 지원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7.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 공동육아 응원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모집!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7월 17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을 모아모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하반기의 시작인 7월도 어느새 절반이나 지났네요. 7월 들어서 매미 소리도 들리고 강렬한 더위 때문인지 진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 채리 :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한창 더울 땐 시원한 바다, 계곡으로 떠나야 하는데 말이죠!

◇ 이실아 : 어렸을 땐 그래서 여름을 좋아했던 거 같아요. 방학이 있어서 동네 친구랑 더 놀 수도 있었고 모처럼 휴가 낸 부모님과 여행을 갈 때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제는 어른이라 방학이 없네요. 아이였을 때가 참 그립네요.

■ 채리 : 생각해보니 이맘때 즈음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근데 방학이면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설렘에 기분이 날아갈 듯하지만, 또 엄마, 아빠 입장이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가 맡아줬던 애들이 오면 챙길 게 많아지거든요.

◇ 이실아 : 이러니까 제가 아직 어린 거 같네요. 요즘 그래서 돌봄센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봄센터도 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돌봄의 역할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아동 돌봄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 채리 : 뭐죠? 정말 궁금한데요?!

◇ 이실아 : 바로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 홍성호 공동체지원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모임 등의 공동체를 구성해 갖고 돌봄 활동을 통해서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과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아동 돌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요. 이에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을 지급해 갖고 공동체 구성원의 돌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또 여기에 활동을 장려를 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진제공=경기도]

■ 채리 :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참 어려운 세상이 잦아요. 일하느냐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어려우면 늦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선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데 이러면 또 돈이 드는 악순환이 되잖아요.

■ 채리 : 이 와중에 아이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요.

◇ 이실아 :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육아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공동육아를 하는 마을공동체가 곳곳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를 돕고자 부모의 양육을 도우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마을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해주는 거죠!

■ 채리 : 우와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한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니,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 이실아 : 그동안 아동 돌봄을 하면서 수고로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역사회가 나서서 공동 육아를 하는데 경기도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생기게 됐다고 해요.

■ 채리 :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좋은 공동체에게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조건만 된다면 모두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누가 신청할 수 있죠?

◇ 이실아 : 일단 사업 이름이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인 만큼 ‘아동돌봄’을 하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기도 마을공동체 중, 자발적인 활동으로 아동 돌봄을 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 채리 : 그러면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금인지 지역 상품권인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이실아 : 신청자 중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를 통해 한 번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참여 대상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아동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돌봄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동돌봄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 활동 참여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월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요. 또 소득 요건 제한은 없습니다. 또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서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 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마을 공동체*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립의 협동조합, 학원도서관 등 5명 이상의 공동체

지원내용
 -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 1인당 월 20만 원 현금 지급! (최대5인)
 ※소득요건 없음

신청방법
 - 7월 : 8일~12일
 - 8월~11월 : 매월 1일~10일
 - 경기민원24(gg24.gg.go.kr) 제출

조건1 전용면적 33㎡(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
조건2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

경기도가 마을 공동체의 공동육아를 응원합니다.

■ 채리 : 인당 20만 원이라니 그러면 어디 보자 공동체 구성원 최대 다섯 명까지면 한 공동체당 1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월 30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셨다면 인당 20만 원씩 따로 지원이긴 하지만, 크게 돌봄 공동체 하나로 본다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동 돌봄 활동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리 : 이 아동 돌봄활동에 대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실아 : 쉽게 등하교를 도와주는 것도, 직장에 출근한 부모님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돌봄 활동일 수 있겠네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요.

■ 채리 : 이 번호 키로 바뀐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 이실아 : 그때 키를 놓고 오면 엄마를 기다리면서 옆집 아주머니가 TV 보라고 틀어주시면서 간식이런걸 챙겨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네 어른들 모두가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 채리 :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냈던 간식비나 아이들 데려다주면서 썼던 유류비 같은 것을 지원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실아 :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긴급돌봄, 일시돌봄, 육아품앗이, 프로그램 운영까지 정말 다양한 돌봄 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공동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공동체 선정 조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제 돌봄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또 돌봄 전용면적이 33평 방 미터 이상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유번호증을 필수적으로 이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돌봄공동체 내부 규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활동과 또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1개월 이상 공동육아나 돌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일이다 보니 좀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공간

전국 최최!
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마을 공동체*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립의 법통조항, 학년도차관 등 5명 이상의 공동체

지원내용

-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 1인당 월 20만 원 현금 지급! (최대5인)
- ※소득요건 없음

조건1
전용면적 33㎡(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

조건2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

신청방법

- 7월 : 8일~12일
- 8월~11월 : 매월 1일~10일
- 경기민원24(gg24.gg.go.kr) 제출

경기도가 마을 공동체의 공동육아를 응원합니다.

[사진제공=경기도]

■ 채리 : 신청만해서는 안되고 이전부터 공동체 활동을 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증빙가능한 활동 내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채리 :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세심하게 선발하고 있군요.

◇ 이실아 : 아이들을 위해 여태까지 봉사했던 공동체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건데요. 공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해서 새로 생긴 공동체면 올해 지원비를 받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공동체가 받을 수 있거든요.

■ 채리 : 그렇다면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된 공동체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이미 접수를 받고 있는 건가요?

◇ 이실아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이미 하반기 들어 시작됐는데요.
오늘로써 벌써 7월에 반이 지났잖아요.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아쉽지만 7월은 이
미 모집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 채리 :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하나요?

◇ 이실아 : 맞습니다. 8월을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11월까지
매달 1일~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지원 자격에 맞는 공동체로 인
정받아 통과되면 연말까지 아이들을 위한 기회 소득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 채리 : 저는 돌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활
동 중이라면 당장 신청했을 거 같습니다.

◇ 이실아 : 저 역시도 그랬을 거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변화
를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사업 담당부서 관계자의 마지막 한 마디도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일단 올해 사업은 12월에 종료됩니다. 공동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서 잘 마무리하고 개선,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사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래 세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채리 : 12월까지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 이실아 : 11월까지 접수할 수 있고요, 일단 11월 신청자분들은 12월 활동분만 지급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그리고 얼른 신
청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많은 도민 분이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참여해주시는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많이 신청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채리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사업 정리 해주시죠.

◇ 이실아 :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자발적 마을주민 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7월은 아쉽게도 이미 신청이 끝나서 8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달 1일~10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고요. 신청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를 하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분들이 기회소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아동 돌봄 환경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실아씨 공동체를 위한 좋은 소식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찾아서>,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리 :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끝)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INTERVIEW



▲ 시흥시 흥부네책놀이터에서 경인방송 라디오 이시아 아나운서 인터뷰(2024.7.24.)

인 터 뷰 이		남은유(흥부네책놀이터 실무자) *박선영(시흥시청 주무관)
단 체 명		흥부네책놀이터 마을학교 (대표:이승희)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12번안길 14-4, 1층 (정왕동)
설 립 일		2007년 *2021년~2023년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구 성 원		자원봉사자 26명, 후원자 80여명
단 체 소 개		·선한 영향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 공동체활동 확산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기관으로 ·마을 안에서 체계적으로 아동들의 돌봄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아침 식사, 악기 배움 등 무료 제공
프 로 그 램		·아동급식지원 프로그램(아침식사/점심식사) ·아동 방과후 돌봄운영(오후 간식 제공) ·아동 기초 한글수교실, 북아트, 마인드맵, 생태교실, 특강 등 ·음악교육 프로그램 중점 운영(클래식기타, 놀이음악 등)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행복세
책놀이터

PULL

매달 1~10일 열리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어떻게?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7월 31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을 모아모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서 전해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 채리 : 근데 이렇게 늘 하나가 끝나면 또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 이실아 : 맞아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 채리 : 8월? 조금 있으면 입추(立秋)던데, 늦여름 장마가 오나요?

◇ 이실아 : 올해 입추는 8월 7일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서서 힌트를 좀 드렸습

니다.

■ 채리 : 아! 이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내일부터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내일 다시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궁금증도 해소해드리고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아동돌봄 기회소득’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경기도 신동호 공동체정책팀장의 목소리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들어볼까요?



사진제공=경기도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정책팀장 신동호]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

성원 개인이 30시간 돌봄을 할 경우,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돌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리 :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딱 10일 동안만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군요.

◇ 이실아 : 네, 맞습니다. 물론 1일이 되자마자 바로 접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전 9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10일 오후 6시까지예요.

■ 채리 : 오후 6시까지라니 꼭 기억해야겠네요.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 6시 퇴근하고 신청해야지 한다면 아차 하고 놓칠 수도 있겠네요.

◇ 이실아 : 그렇죠, 보통 10일까지라고 하면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6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채리 : 마감 시간이 중요해 보이네요! 경기도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 활동 중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실아 : 네,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맞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또 9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아동돌봄 기회 소득을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한 마을공동체를 만나봤습니다!

■ 채리 : 실제 신청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요?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왔나요?

◇ 이실아 : 네, 제가 이번에 만난 마을공동체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흥부네 책 놀이터’ 인데요. 어떤 마을공동체인지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 흥부네 책 놀이터 선생님 남은유]

“저희 <흥부네 책 놀이터>는 여기 지역 특성상 시흥에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야간 근무도 많고 3교대 근무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을 잘 굶고 가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이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걸 챙겨주질 못해서 그 학교 가는 것까지 챙겨주려고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흥부네 책 놀이터가 처음 생겼고요. 흥부네 아이들처럼 주렁주렁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쪽을 이용을 해서 좀 행복하고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만드셨어요.”



사진제공 = 흥부네 책 놀이터

■ 채리 : 아이들 아침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나서서 아이들을 키워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공동 육아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힘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 이실아 : 맞습니다. ‘흥부네 책 놀이터’는 시흥에서 다양한 국적과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곳은 부모님들이 맞벌이에 3교대 근무까지 해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흔한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 한창 필요한 시간에는 아이들이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채리 : 듣고보니까 아동 돌봄이 꼭 필요한 곳이었네요. 그러면 이곳에선 어떤 돌봄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나요?

◇ 이실아 : 공동체 활동의 첫 시작은 아침밥 함께 먹기입니다. 아이들의 아침밥과 등교까지 챙겨주는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침 무상급식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하교하고 오면 오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한 4~5개 정도 있는데, 책 놀이, 악기 연주, 전통 놀이, 북아트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 채리 : 우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짝 채워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아이들이 친구도 사귀고 이런 활동을 하면 좋죠!

◇ 이실아 : 그렇죠? 그리고 이 동네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이 몇몇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 소규모로 한글 기초 공부까지 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아이들한테 빠질 수 없는 간식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채리 : 간식 아주 중요하죠! ‘흥부네 책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함께해서 몸도 마음도 든든한 공간이 되겠네요.

◇ 이실아 :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도 함께 가고요. 안심하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자, 놀이 공간, 학습의 공간도 되어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터뷰 / 흥부네 책 놀이터 선생님 남은유]

“여기 오는 애들이 중도 입국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 돌봄도 잘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당장에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서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그런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를 돌봐주던 할아버지가 본국으로 갑자기 가야 해서 애가 혼자 있다.’ 해갖고 막 그런 사정에 한 둘 더 받다 보니까 지금은 18명이에요. 책 놀이 선생님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북아트 선생님 오시고 전통 놀이, 저희가 총 3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요번에 이제 이번 달부터 처음 시작한 게 한글 기초 교육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전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글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안 써지는 아이들 아니면 언어 자체가 다 안 되는 아이들 5명 정도만 한글 수업을 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 채리 : 중도입국한 아이들은 당장에 지역아동센터에 가기는 힘들군요. 이번에 또 하나 알아갑니다. 이렇게 아동 돌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마을공동체가 나서서 공동 육아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들을 위해 여태까지 돌봄 활동을 했던 공동체들의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 이실아 : 이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보상을 드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려고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경기도에서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흥부네 책 놀이터’에서 아침밥 봉사나 간식, 그리고 청소, 정리 등 여러 가지를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을공동체에서 월에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했다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리 : 월 3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 거의 8시간가량을 일해야 하는 거네요? 생각보다 채우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흥부네 책 놀이터>는 총 18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돌봄 아동 수가 16명을 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다섯 분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인당 20만 원씩 따로 지원이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 채리 : 그러면, 흥부네 책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 시간을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다만, 까다롭게 선정되었다고 해도 증빙 가능한 활동내역서를 잘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공동체정책팀장 신동호]

“아동돌봄 기회 소득은 어떤 자격을 보고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서류를 접수할 때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 달 후 활동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에 맞게 활동을 했는지 아이들 돌봄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정된 아동돌봄 공동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있을 예정입니다. 매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실아 : 올해 참여자분들이 피드백을 잘 주시면 내년엔 마을공동체 구성원 분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를 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데요. 수고로움이 매우 많으셨을 거예요. 돌봄 참여자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활동했다면,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얼른 이 기회소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그러게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예산이 소진되기 전엔 11월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달이 12월 한 달밖에 없으니까요. 8월의 기회 놓치지 말아주세요!

■ 채리 : 마지막으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 이실아 : 매달 1일~10일까지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마감 임박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10일 오후 6시까지니까 이때까진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도 경기민원24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시흥의 ‘흥부네 책 놀이터’ 돌봄 공동체를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을 하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니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아씨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 좋은 소식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경기도 마을공동체를 위한 유용한 소식을 모아모아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공동체를 찾아서>,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리 :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INTERVIEW



▲ 안성시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에서 ‘무지개코딱지 구성원과 경인방송 라디오 이실아 아나운서 인터뷰(2024.8.19.)

단체명		무지개코딱지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풍길
설립연도		2023년
구성원		성인 5명, 어린이 8명 *인터뷰이: 이윤정(대표), 유채은, 이은미
주요 활동		

- 2017. (원역사)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개인지원
- 2023. 안성시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오늘도 무지개꿈을 키워보자’에 참여하면서 ‘무지개코딱지’ 모임 구성
- 2024. 안성시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무지개 빛 꿈을 갖자’

프로그램

- 공동체 구성원 개인집에서 엄마들의 재능을 기부하여 프로그램 구성
2024년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아동돌봄 활동
- 노을이 지는 시간, 자연을 관찰하고 시쓰기
 - 숲길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
 - 정물을 그리는 방법을 익히고 관찰력과 묘사력 키우기
 - 길고양이 밥주기, 집 지어주기, 나만의 키팅만들기
 - 공기정화식물 심기, 업사이클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안성 '무지개코딱지', 함께 배우고 더 크게 자라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8월 28일 14:00-16:00)

■ 진행: 채리

■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을 모아모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한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실아 입니다. 채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더운 여름 잘 지내셨나요?

■ 채리: 어쩐지 오래간만이다 싶었는데 한 달 만에 왔군요. 8월의 끝자락인데도 여전히 덥네요. 느낌으로는 한 9월 말까지도 더울 거 같아요.

◇ 이실아 : 그래도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 채리 : 맞아요! 이제 곧 반갑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 이실아 :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바람처럼 반가운 마을공동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공동체를 찾아 경기도 안성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아동 돌봄을 하고 있는 ‘무지개 코딱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 채리 : 무지개코딱지? 공동체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어떤 공동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른 소개해주세요!

◇ 이실아 : 하하 그렇죠? 무지개코딱지는 또래 아이들이 함께 웃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동체인지 이윤정 대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대표]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친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부모들이 모인 동아리예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성격이 수줍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또래 친구, 마을 친구, 학교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용기를 내고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이는 데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모였어요.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활발하지만, 학원에 가지 않고 또 가까운 이웃과의 만남이 적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가까운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개면에 살면서 가까운 안성맞춤랜드에서 자연 체험, 신체 놀이, 시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 채리 : 무지개코딱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가져다가 붙인 이름 같네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친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이들이 정한 걸까요?

◇ 이실아 : 뭔가 ‘무지개코딱지’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의 장난기와 순수함이 묻어나와서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름은 ‘무지갯빛처럼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한다’에, ‘코바늘’의 코가 합쳐져서 ‘무지개코딱지’가 됐다고 해요. 공동체 대표님이 코바늘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채리 : 코딱지의 코가 코바늘의 코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 이실아 : 무지개코딱지는 보개초등학교 아이들의 엄마들이 모여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윤정 대표님께서 안성·평택지역에서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었대요.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 채리 : 원래도 재능이 참 많으셨네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가치를 느끼고 공감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본격적인 ‘무지개코딱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 채리 :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실아 : 잠깐 나왔지만, 보개면이 농촌 지역이다보니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멀리 나가야 하는데요. 무지개코딱지의 아이들은 가까운 안성맞춤랜드에 모여서 친구 엄마이자 이모라고도 부르는 선생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유채은 선생님을 통해 들어보시죠.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유채은 선생님]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 학원 시간에 맞춰서 차량으로 태워서 이제 수업하는 공간으로 와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미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꽃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서 그거를 직접 부채에다가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하였고요. 저희가 과학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름과 물이 섞이는 과정 그거를 또 이제 불빛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공동체 육아를 하는구나’라는 걸 저희도 깨닫고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채리 : 자연 체험을 비롯해서 미술, 과학까지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아이들을 픽업해서 수업 공간으로 데려다주고, 또 다른 분은 수업을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공동으로 육아를 하면서 서로에게도 힘이 되어 주고 있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육아 동료잖아요? 이렇게 육아 친구들 있다는 게 이 지역에 살면서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채리 : 아동 돌봄을 함께 했을 때 그 가치를 더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 이실아 : 이제 무지개코딱지는 3년 차가 됐는데요. 활동을 하면서도 손발이 정말 잘 맞았다고 해요.

■ 채리 : 구성원들끼리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잘 이어져 온 거 같네요! 한 아이들을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 이실아 : 그렇죠. 무지개코딱지에는 보개초등학교 다니는 1·2·3학년 아이들이 모이고 활동을 함께 하면서 건강한 사고를 하면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들끼리 호흡도 잘 맞고요. 서로 역할을 잘 해줘서 공동체와 함께 아이들도 더 잘 성장한 거 같다

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친구]

“친구들과 경험을 쌓은 게 가장 재밌었어요. 쑥스러움이 좀 더 줄은 것 같고 우정도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이은미 선생님]

“딸 둘은 미술 학원도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동생한테 저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유채은 선생님]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갈 수 없는 너무 쑥스럽고 엄마 껌딱지의 아이였는데, 일단 저희 아이가 거기에 한 구성원으로 참석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엄마 이거 무지개코딱지 언제 시작해?’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아이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 채리 : 예전엔 친척들도 많고 주변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자연스레 사회활동을 하며 자라났는데 요즘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걸 자연스레 배울 수 있으니 좋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이 무지개코딱지에 유달리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모임 안에서 무지갯빛처럼 다 아름답게 빛나고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활동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시다!

■ 채리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함께 모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것을 보니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마을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변화와 기회, 그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니깐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엄마들의 느낀 바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 공동육아는 저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 이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을 보면서 배우는 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잖아요. 엄마 역할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제가 재능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걸로 쓰면서 배우는 거죠.”



[사진제공 = 무지개코딱지 이윤정 대표]

[인터뷰 / 무지개코딱지 유채은 선생님]

“저 혼자 할 수 있는 육아인데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는 그 소심한 성격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진짜 이 모임이 너무 감사하고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채리 :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한 부분으로써 감동적입니다.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한뼘 더 자라나는 게 느껴지네요!

◇ 이실아 : 맞아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도 이렇게 기회를 얻고 변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러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또 9월이잖아요? 이제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 채리 : 조건이 된다면 다 신청하셔서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다 받아가셔야죠. 열정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주세요!

전국 최초! 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마을공동체*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도민
*비영리 목적의 지방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립의 협동조합, 학년도서관 등 5명 이상의 공동체

지원내용
 -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 1인당 월 20만 원 현금 지급! (최대5인)
 ※소득요건 없음

신청방법
 - 7월 : 8일~12일
 - 8월~11월 : 매월 1일~10일
 - 경기민원24(gg24.gg.go.kr) 제출

조건1
 전용면적 33㎡(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

조건2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

경기도가 마을공동체의 공동육아를 응원합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실아 : 다가올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 전용 공간의 면적, 인원과 같이 몇 가지 공동체 선정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경기민원24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니다!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의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무지개코딱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곧 9월 신청 기간이 다가오니까 아동 돌봄을 하는 경기도민 중에 조건에 맞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실아씨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고요.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공동체를 찾아서>,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리 :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끝)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기삿글 보기)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97207>

(팟방 오디오 듣기)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1525/episodes/24990124>

INTERVIEW



▲ 고양시 꿈자람터에서 경인방송 라디오 이시아 아나운서와 인터뷰 (2024. 9. 4.)

단 체 명
소 재 지
설 립 연 도
구 성 원
주 요 활 동

꿈자람터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luezys3u/3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3(일산 동양아파트 관리동)

2021년

20여명 (카페 회원 164명) *인터뷰이: 이선영(대표), 김혜영

- 2021.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 2022. 학부모 재능 기부(미술, 그리기, 요리) 수업 개발, 난타반 운영
- 2023. 입주민 돌봄 봉사자 및 시니어 자원봉사자 운영
- 2024.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우리동네온마을학교'

공 간 소 개

코로나 팬더믹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했다.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아파트 관리동 휘트니스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꿈자람터' 돌봄공간으로, 주민 만남 공간으로 바꾸었다. 아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는 곳이 되었다.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경력이 단절되었던 엄마들도 아이 돌봄 자원활동을 하며 재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꿈을 꾸고 함께 자라고 있다. 지역의 '꿈자람터'가 되었다.



고양 '꿈자람터', 마음이 모여 돌봄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 (24년 9월 25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소식을 모아모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연휴 후유증 없이 일상 복귀 잘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추석 연휴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꿀 같은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현실로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요. 이번 추석 명절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적응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채리: 이번에 멀리 여행 다녀온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배가 빵빵합니다. 추석 때 찐 살이 그대로 인 것 같지만, 그래도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좋았어요.

◇ 이실아 : 저도 오랜만에 친척들을 봤는데 같이 뛰어놀던 사촌들이 어느새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됐더라고요. 조카 대여섯 명이 모여서 뛰어노는 걸 보고 있자니 어렸을 때 생각났습니다. 옛날엔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가 많이 돌봐줬는데, 요즘은 그러기도 쉽지 않고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친척도 없는 거 같아요.

■ 채리 : 맞아요. 또래 아이가 없으면 친척 집이라도 내 아이 맡기기가 미안하잖아요. 예전엔 비슷한 시기에 낳아서 같이 육아 품앗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 이실아 : 대신 이젠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동 돌봄 공동체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 다녀왔습니다.

■ 채리 : 이번엔 공동체를 찾아서 고양시를 다녀왔군요! 어떤 공동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서 소개해주시죠.

◇ 이실아 : 마음이 모여 돌봄이 된 ‘꿈자람터’에 대해 구성원분들께 직접 소개를 들어볼까요?





[사진제공=경기도 고경아주무관]

[인터뷰 / 꿈자람터 대표 이선영]

“우리 꿈자람터는 이제 일단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꿈자람터는 낮 동안은 우리 엄마 같거든요. 낮 동안에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두 일을 나가셔서 아이들이 좀 돌봄 공백이 생기면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돌봐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돌봄입니다. 우리 한번 보내봐 주세요. 그렇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 학부모 김혜영]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참새방앗간이나 아니면 그냥 제2의 엄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 채리 : ‘꿈자람터’는 아동 돌봄 마을공동체군요. 엄마의 엄마 같은 공동체라니,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을공동체라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실아 : 요즘 같은 시대에 엄마만큼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딴겠어요. 꿈자람터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 자석 교구 같이 놓고 즐길 거리가 있고 심지어 간식도 챙겨준대요!

■ 채리 :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에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마을공동체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긴 하지만, 대기도 길고 추첨을 통해 뽑기도 해서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 채리 :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면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학원으로 하루 일정을 짝짝 채운다고도 하더라고요.

◇ 이실아 : 사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온종일 돌봐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학원을 보내도 좋으니 그 사이사이 뜨는 시간에만 누군가 봐줬으면 싶은 건데 꿈자람터는 아이가 학원 일정이 없어서 붓 뜨는 시간에 와도 아이가 편히 쉬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채리 : 그러면 꿈자람터는 아이들이 오고 가기 쉬운 곳에 있나요?

◇ 이실아 : 초등학교 바로 옆 아파트 안에 있어서 가기 편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입주민 피트니스 시설이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꿈자람터 대표 이선영]

“놀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비어 있던 공간인데 저희 아파트 특성상 바로 옆에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서 또 못 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좀 학교 바로 옆이기도 하고 아파트가 그래서 쉽게 어머님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저희 꿈자람터를. 그래서 하루에 한 프로그램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잖아요. 이제 1, 2학년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여기가 2시에 문을 열거든요.



[출처 = 꿈자람터]

■ 채리 : 아무리 아파트에서 놀고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 내어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꿈자람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부터 입주민 전체에게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고 외부인들도 오니까 주차문제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렸는데요. 당시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민과 소통하고 동대표들,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알리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 채리 :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을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나 했는데 초기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군요.

◇ 이실아 : 심지어 당시 돌봄공동체 구성원의 자녀들은 이미 커서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이 아니었는데요.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같은 학부모이자 맞벌이 부모가 가진 어려움을 이미 겪은 선배로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이 모여서 2021년 9월에 돌봄 공간이 완성됐고 어느새 꿈자람터는 4년 차 마을공동체가 됐답니다!

■ 채리 : 정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모여서 탄생하게 됐네요.

◇ 이실아 : 물론 지금도 자발적으로 마음이 모인 구성원들로 공동체는 운영되고 있어요. 단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하루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니다.

■ 채리 :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이실아 : 입주민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웃 동네 마카롱 사장님이 베이킹 프로그램을 해주고, 뉴질랜드에 20년 이상 살다 온 60대 입주민이 영어를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일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출처 = 꿈자람티]



[출처 = 꿈자람터]

[인터뷰 / 꿈자람터 대표 이선영]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경우는 미술 활동인데 아이들 다 데리고 선생님이 동네 숲을 다 돌아요. 이제 생태를 이용해서 우리 미술 수업을 연계해서 하는 수업도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아이들이 요즘 웹툰에 관심이 많잖아요. 패드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또 해서 웹툰 수업도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또 즐거워하는 쿠키 클래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격주로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랑 같이 쿠키 수업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학 선생님이 화요일 목요일은 상주해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 수학이나 논술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수업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전에는 다양한 미술 활동도 체육 수업도 있고”

■ 채리 : 이러면 학원 수업을 빼고 오고 싶을 거 같은데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 이실아 :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 수 있고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깐 좋아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원에 다녀오고 중간에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으니깐 안심도 할 수 있죠.

■ 채리 : 듣다 보니까 꿈자람터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경

기도 마을공동체 중에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을 하고 있고, 공간도 갖추고 있으니깐요!

◇ 이실아 : 맞아요. 이번 꿈 자람터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해서 선정된 공동체이기도 해요.

■ 채리 : 잘됐네요! 이렇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을 텐데요. 다들 노고를 인정받아서 아동 돌봄 환경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실아 : 그게 바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하는 취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도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꿈자람터의 아이들도 공동체 안에서 더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아이들의 변화도 들어보실까요?



[출처 = 꿈자람터]

[인터뷰 / 꿈자람터 친구]

꿈자람터 친구 "엄마가 꿈 자람터 간다고 말했을 땐 거기가 어디지 돌봄인가 생각했어. (지금은 무엇이 좋아?) 같이 있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 놀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 있고 집에 가려 하면 또 놀고 싶어."

[인터뷰 / 꿈자람터 대표 이선영]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아이거든요. 유치원도 이 근방을 다니지 않았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게 좀 힘들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꿈자람터에 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지만, 자기 본인보다 언니들 오빠들도 같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는 언니 오빠가 생겼다고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이제 학교 1학년 첫 입학하는 날 가는데 교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가야 되지?’ 막 애가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내가 데려다줄게.’ 꿈자람터 같이 다녔던 언니가 그러면서 그 언니가 손을 잡고 딱 가줬는데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 채리 : 얼마나 좋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할까요?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내 손 딱 잡아주는 언니가 생기고 오빠가 생기니까 아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실아 :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바뀐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 자람터에서 뭐 한대 그러면 ‘엄마! 나 거기 갈래’, ‘학원 가야돼’ 하니까 아이 스스로가 일정을 조절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첫 번째 친구는 매주 수요일은 웹툰 수업이 있는 날이라 학원도 하루 빼고 꿈자람터에 오고 있다고 해요.

■ 채리 : 불편했으면 저런 말도 못 꺼내잖아요.

◇ 이실아 : 꿈자람터를 통해서 아이들만 자라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실직했던 아이 엄마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진제공=경기도 고경아주무관]

[인터뷰 / 꿈자람터 대표 이선영]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면 엄마는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믿고 맡길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다 알기도 하니까 ‘이제 맡겨 놓고 나 일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이게 계속 우리 꿈자르부터가 계속 지속돼서 저 말고도 다른 이제 저와 같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일을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 이게 진행돼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속 가능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꿈자람터 같은 마을공동체들이 많아져서 아동 돌봄 환경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꿈자람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 이실아 : 꿈자람터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 돌봄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긍정적 변화로 아이 엄마에게 기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10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처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서 정리해주시죠.

◇ 이실아 :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도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 돌봄 활동 참여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또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서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니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10월 신청기한인 10월 1일~10일에 잘 준비해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gg24.gg.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재밌고 부모님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준 아동돌봄 공동체, 고양시 꿈자람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실아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아씨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찾아서>,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사진제공=경기도 고경아주무관]

INTERVIEW



▲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아파트에서 경연방송 라디오 아슬아 아니운서 인터뷰(2024.10.13.)

단 체 명
소 재 지
설 립 연 도
운 영 진
모 임 배 경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https://pf.kakao.com/_vdkLK)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27,상가동 107호

2021. 8. 11.

8명 ※인터뷰이: 박찬애(대표), 이연희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싶었던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부모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함께 돌봄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공적 돌봄에 수용되지 못한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공간을 마련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발족하여 법인의 꼴을 갖추면서 카페스개아* 공간을 마련하였다 *스스로깨치는아이들

주 요 연 혁

- 2017. 5. 별내 공동육아 부모모임으로 시작
- 2019. 12. 마을 공동육아 추진위원회 시작
- 2020. 8. 마을 공동체 돌봄 사업 추진
- 2021. 8.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23. 6. 카페형 돌봄교실 '카페스개아' 오픈
- 2024. 1. 마을방학급식 시범(맞벌이가정 방학점심 돌봄)

'카페스캐아로 와!', 돌봄이 모여 스스로 깨치는 아이들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 (24년 10월 23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다시듣기\(PLAY\)](#) [팟방](#)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이실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실아 :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 곳곳에 있는 공동체 소식을 모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실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 채리: 그렇게 말입니다. 아직 10월인데도 겨울이 곧 오겠구나 싶더라니까요.

◇ 이실아 : 전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걸 길거리 간식을 보고 느꼈는데요. 이젠 마트나 편의점 가면 호빵도 팔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군고구마 같은 겨울 간식도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옛그제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 채리 : 와 붕어빵 맛있죠! 들으니깐 먹고 싶어지네요. 가는 길에 보이면 꼭 사 먹을 거예요. 실아씨는 슈크림이랑 팔 붕어빵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해요?

◇ 이실아 : 어렸을 땐 달달하고 부드러운 슈크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달달하면서도 팔의 구수함이 있는 팔 붕어빵이 더 맛있더라고요.

■ 채리 : 통했다! 요즘 친구들은 슈크림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오리지널 팔 붕어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이 입맛은 슈크림, 어른 입맛은 팔인 것 같아요.

◇ 이실아 : 맞아요. 이렇게 간식 얘기하니까 참 즐거운데요. 근데 아이 간식 챙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건강한 거 먹이고 싶고 더 잘 챙겨주고 싶은데 결국 쥐여주는 것은 과자, 이러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 채리 : 맞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용돈만 주는 경우도 많은데,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거 같아요.

◇ 이실아 : 한창 자랄 때 잘 먹어야 하는데요. 함께 공동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엄마의 손길로 만든 간식을 챙겨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남양주시에 다녀왔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남양주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 찬님을 통해 들어볼까요?

[인터뷰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찬]

“저희는 이제 주민들이 엄마들이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체 내에서 ‘우리 돌봄 위원회 활동할 거야’라고 하면서 위원회를 만든 것도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카페 스깨아>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카페로 이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마치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먹는 게 너무 일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 공간에 와서 좀 조금 덜 나쁜 그래도 엄마들이 만들어준 간식 먹으면서 부모도 기다리고 책도 좀 읽고 친구도 좀 만나고 이런 공간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 제공=3로27 사회적협동조합]

■ 채리: 엄마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뭉친 공동체군요. 이렇게 마음 맞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 이실아 : 그럴 수 있었던 게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이 된 이 장소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 이름인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 채리: 오? 지금 보니 주소 같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카페 스깨아는 위스테이 별내의 아파트 상가에 있는데요. 이곳의 주소가 바로 3로27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가 분양될 때 전체 가구 수의 25%가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신 분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요. 이분들이 모여서 아파트가 지어 지기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렸다고 합니다.

■ 채리 : 그림 애초에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았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공간에 대한 기획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아파트다’라는 자부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여도 높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진 제공=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인터뷰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찬]

“아파트가 기획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입주 전부터 참여해서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고 아이들을 그때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돌봄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했던 일들이 여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이제 유치하는 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공적 돌봄으로 이 주민들 아이들을 다 수용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별도로 돌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3로27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 채리 : 처음엔 어린이집 유치부터, 나중엔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모여서 이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됐네요.

◇ 이실아 : 돌봄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이웃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이대를 넓혀서 더 많은 아이들을 챙기고자 어린이 카페인 '카

페 스깨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사진 제공=카페 스깨아]

■ 채리 : 근데 '카페 스깨아'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무슨 뜻인가요?

◇ 이실아 : 스깨아는 '스스로 깨치는 아이들'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길 바라면서 또 이곳에서 스스로 깨우쳐 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 채리 : 그럼 카페 스깨아는 놀이기구도 있고 간식도 제공하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인가요?

◇ 이실아 : 키즈카페라기보단 일반 카페 느낌인데요. 단지 주 고객층이 어린이, 초등학교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키즈존과 달리 웰컴키즈존이랄까요? 카페 스깨아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육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먹거리, 간식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챙겨 먹었으면 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카페 스깨아 메뉴에 담겨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사진 출처=카페 스깨아 인스타그램]

[인터뷰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찬과 회원 이랑]

”우리도 알아요. 아주 좋은 유기농 먹거리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애들이 좀 편의점 컵라면만으로 때우는 건 아닌 조금은 덜 나쁜 먹거리,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기름을 쓸 때는 그래도 논GMO으로 하자 뭐라든지 그런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떡꼬치나 물떡을 하더라도 그래도 방앗간 떡으로 하자 동네 방앗간 떡으로 하자라든지 그리고 육수를 내더라도 진짜 그런 하나의 맥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그러니까 정말 그 맛의 진심이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맛을 좀 지켜주고 싶은 워낙에 이제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음식에 되게 길들여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느리게 해주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죠.

■ 채리: 또 이 나이대엔 친구와 학교 끝나고 컵떡볶이 같은 거 먹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요즘 흔히 배고프면 다들 편의점에서 배를 많이 채우는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몸에 덜 나쁜 간식을 챙겨 먹고 다니면 부모님도 안심이겠어요!

◇ 이실아 : 예전보다야 편의점 음식 퀄리티가 좋아졌다지만 아이들이 건강 생각하면서 간식을 고르지 않잖아요.

■ 채리: 저도 바빠서 아이의 밥을 못 챙겨줄 때가 있었는데요. 용돈을 주는 그 미안함을 알거든요.

◇ 이실아 : 잘 못 챙겨줄 때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 곳 아이들은 카페 스캐아에서 엄마의 손길이 들어간 간식을 먹고요. 학원 가기 전에 붓 뜨는 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 채리: 이렇게 학교 마친 후에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 수 있고 학원 수업이 없어서 비는 시간엔 이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으니 제대로 된 돌봄 공간인 것 같습니다!

◇ 이실아 : 맞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도 어른도 함께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진제공=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사진제공=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인터뷰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찬]

저희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놀다가 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아이들이랑 운동하다가 들어와서 책 읽다가 학원 시간 되면 자기가 ‘나 갈게!’ 이려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는 것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고 엄마들도 여기에 모여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와서 본인이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다른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가 아대하고 이제 나오면은 엄마들도 서로 이렇게 (아기를) 안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애들도 서로 (아기를) 자기들 돌본다고 해요.”

■ 채리 : 요즘 어떻게 아이가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또 엄마들은 서로 보듬어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깨우치는 게 정말 좋아보입니다.

◇ 이실아 : 맞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 같아요.

■ 채리 : 이러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 이실아 :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채리 : 이렇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노고를 인정받아서 지원받고 있으니깐 좋네요!

◇ 이실아 : 실제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통해서 운영에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진제공=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인터뷰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 회원 찬]

“저희 맨날 회의하면은 빨리 결정해라 접을 건지 말 건지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가격도 올리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을 쪽 하는데 저는 저희처럼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이렇게 약간의 보상만 아주 큰 보상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이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같이 돌봐주는군요이라고 하면서 이 약간의 보상만 좀 줘도 이런 커뮤니티는 다른 아파트에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돌봄 체계가 아니라 작은 체계들이 만들어지는 데 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채리 :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처럼 경기도의 다른 아동 돌봄 공동체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 이실아 :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면 11월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 채리 : 11월에 신청하시면 12월 활동에 대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11월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죠?

◇ 이실아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 돌봄을 하고 있다면 도민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 민원24 누리집에서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면 현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돌봄 아동 수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니까 조건이 되는 아동 돌봄 공동체라면 이번 마지막 11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gg24.gg.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채리 :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남양주 3로2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실아 아나운서, 오늘이 2024년 '공동체를 찾아서' 마지막 회차라고 하던데, 지난 10개월의 소감을 안 물어볼 수 없네요.

◇ 이실아 :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공동체를 찾아서 경기도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니 어스새 경기도 마스터가 됐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나다 보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올해는 13회에 걸쳐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동공동체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있고 공동체에 활동에 고민이 있는 분은 도미니를 찾아가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끝났지만 마을공동체만의 축제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동안의 방송을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채리: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 함께 하는 내일은 더 잘 꾸릴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실아씨 덕분에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요. 실아씨와 함께하는 수요일은 더 따뜻하고 활기찼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 이실아 : 경기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찾아서', 이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INTERVIEW



인 터 뷰 이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박윤희, 석하엘,
인 터 뷰 어		이실아 아나운서
인 터 뷰 일 자		박윤희(3.14) / 석하엘 / 경기도 청년기회과 청년지원팀장(3.13), 담당 주무관
인 터 뷰 장 소 및 방 법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대면 / 전화통화 / 경기도청에서 대면
주 요 내 용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 소감 나눔 2024년 청년사다리 참가자 모집 안내

해외연수의 기회,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3월 27일 14:00-16:00)
- 진행: 채리
-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실아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공동체를 잠시 내려놓고 경기도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 채리 : ‘공동체를 찾아서’에서 공동체가 없다니 이거 팔소 없는 짬뽕 아닙니까? 뭣이 중하길래! 무엇이길래 이렇게 들고 오셨나요?

◇ 이실아 : 제가 경기도에서 공동체를 찾다가 셋길로 빠져서 만든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다.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시리즈인데요. 프로그램을 조사해볼수록 정말 경기도로 이사하고 싶더라고요.

■ 채리 : 실아씨를 경기도로 이사하고 싶게끔 만든 그 정체가 무엇인가요?

◇ 이실아 : DJ채리는 3~4주 동안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돈 한 푼 안 들고요!

■ 채리 : 그러니까 공짜로요? 공짜면 양젓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죠! 해외는 당연히 돈 내고 가는데 3~4주 동안이나 공짜로 갈 수 있다고요?

◇ 이실아 : 네! 바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인데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한마디 소개로 기대감을 높여볼까요?

[인터뷰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석하엘]

“저에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박윤희]

“경기도 사다리 프로그램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채리 : 인생의 터닝포인트! 자신감을 심어준 프로그램! 다 좋은 말들이네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해주세요!

◇ 이실아 : 알겠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3~4주의 연수 동안 해외에서 배움의 기회를 통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채리 : 굉장하네요. 그런데 무료라고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진작 주변에 많이 알렸을 것 같은데요.

청년도 더! 대학도 더! 나라도 더!

청년사다리가 더 커졌다



2024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기간 2024.3.11.(월) ~ 4.1.(월) 17시 모집대상 경기도 내 19~39세 청년 270명 ※ 주민등록상 1984년~2005년생

연수대학 5개국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9개 대학 연수 프로그램 지원

※ 미국 버팔로대, 샌디에이고대, 미시간대, 워싱턴대, 영국 예든버러대, 호주 시드니대, 만류랜드대,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 중국 북경대 (대학별 30명 내외)

접 수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검색해주세요.



잡아바 어플라이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 이실아 : 이번이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여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채리 : 그렇군요. 2회차면 몰랐을 수 있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래도 첫해에 참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성공적으로 마쳐서 올해도 진행하게 됐다고 해요.

■ 채리 : 저도 알았다면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3~4주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무턱대고 원하는 해외 어디든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 이실아 :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청 관계자를 통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할까요?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청년지원팀장 박유정]

“저희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19세에서 39세 도내 청년들 27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3개국 5개 대학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대학도 더 늘리고 국가도 늘려서 5개 국가, 27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어학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 체험이나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현장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채리 : 우와 270명이나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 이실아 : 청년들의 호응이 워낙 좋았고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인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00명 모집이었는데 무려 5천 명이 지원했다고 해요.

■ 채리 :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졌군요. 그러면 해외연수 국가로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이것도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죠?

◇ 이실아 : 네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국가도 미국, 호주, 중국 3개국에서 영국, 싱가포르가 추가돼서 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학도 5개에서

9개로 더 많아졌어요!

국 가	학 교 명	연수기간	선발예정인원
미 국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 8~8. 2.(4주)	30명
	버팔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7. 8~8. 2.(4주)	30명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7. 8~7. 26.(3주)	30명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7. 1~7. 26.(4주)	25명
호 주	시드니 대학교(The University of Sydney)	7. 15~8. 2.(3주)	30명
	퀸즐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7. 15~8. 9.(4주)	30명
영 국	에든버러 대학교(The University of Edinburgh)	7. 8~7. 26.(3주)	30명
중 국	북경 대학교(Peking University)	7. 8~8. 2.(4주)	35명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7. 1~ 7. 19.(3주)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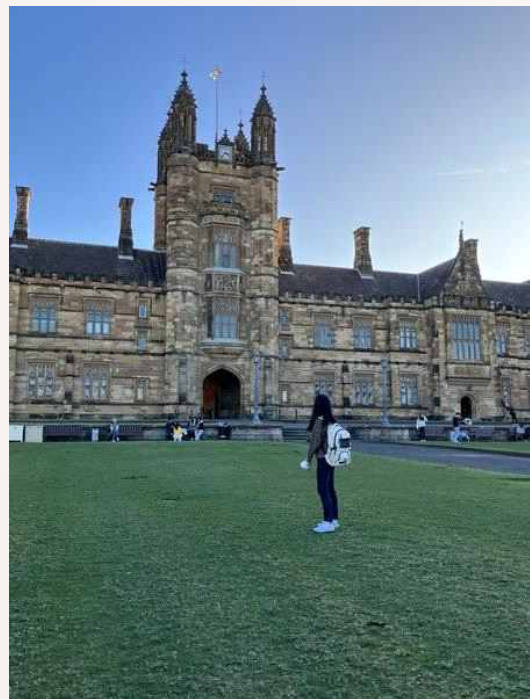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 채리 :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서 놀랍습니다. 근데 진짜 다 무료예요?

◇ 이실아 : 알아본 바로는 해외대학 연수를 위한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여권 발급이나 비자, 간식 같은 일부 식비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대부분 굶직한 비용은 해결이지 않습니까?

■ 채리 : 그렇죠! 저는 어차피 나이가 아쉽게 초과해서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어렸다면 당장 신청했을 거 같습니다.

◇ 이실아 : 저 역시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바로 지원했을 텐데요.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제공=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박윤희]

[인터뷰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석하엘]

“이제 스물 중반을 지나서 후반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취준생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오전에는 어학 연수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자유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나의 꿈과 저의 꿈과 비전을 보다 확고하게 정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박윤희]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좀 더 마음껏 행동해 보자 이렇게 하는 생각에 첫 번째로 제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도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임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영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지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채리 : 취준생이 진짜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겠어요?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있다고 합니다. 참여한 청년들이 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시간도 있고, 진로 컨설팅을 진행해서 취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원한다고 해요.

■ 채리 : 단지 다녀오고 끝인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군요. 참여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 이실아 : 우선 경기도 청년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데요.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저학력 청년, 해외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회를 더 부여하고 있다고 해요.

■ 채리 :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 이실아 :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참여자 모집-서류심사-인성검사-면접심사 이렇게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고 있고요.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통과하시면 이제 사전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7~8월 중에 해외 연수를 3~4주간 청년들이 가게 되는거죠!

참여자모집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사전교육	해외연수	성과공유회
3. 11.(월) ~ 4. 1.(월) 17:00	4. 2.(화) ~ 4. 8.(월)	4. 10.(수) 09:00 ~ 4. 12.(금) 17:00	4. 15.(월) ~ 4. 18.(목)	5월 중	7~8월 (3~4주간)	9월 중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	서류합격자 발표: 4. 9.(화)	온라인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4. 22.(월)	세부일정 별도 공지	출입국 일시 별도 공지	세부일정 별도 공지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 채리 : 합격하기 어렵겠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은데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이실아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또한 담당자 분께 물어보고 왔습니다!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청년지원팀장 박유정]

“전문 면접 위원님들을 섭외해서 면접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년들의 열정입니다. 네 정말 기회가 없어서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기회를 누리고 또 그 누리고 온 기회를 나중에 도민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채리 :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열정이다. 여러분 열정을 많이 뽐내보세요!

◇ 이실아 : 이 기회 흔치 않잖아요?

■ 채리 : 그렇습니다!

◇ 이실아 : 박진감 넘치는 해외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해외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져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엔 청년들이 그 기회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그러게요. 박진감, 재미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고, 민들레 홀씨처럼 훨훨 날아가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실아씨 다시 한번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4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이면 학생도 직장인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채리 : 해외연수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경기 청년들이 오늘 듣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경기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따금 이렇게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어지니 기대해주세요!

■ 채리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주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아씨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감사합니다.

진로 찾기 겁 내지마,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4월 10일 14:00-16:00)
- 진행: 채리
-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실아입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가다가 샛길로 빠져서 만든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 채리 : 또 샛길로 빠져버렸군요. 2탄까지 만들어왔으면 이제는 슬슬 이사를 올 만도 한데요?

◇ 이실아 : 안 그래도 이번에도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더라고요.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3탄을 하게 된다면 그땐 이사 올 것 같습니다.

■ 채리 :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이실아 : 바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갭이어(Gap year)라고 들어보셨을까요?

■ 채리 :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이 갭이어, 용어가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네 갭이어(Gap year)는 공간, 간격을 뜻하는 갭(Gap)과 해, 연을 뜻하는 이어(year)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원래는 대학입시와 대학 입학 전 공백기에 여행이나 일 또는 자기계발 등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봉사, 여행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돼서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기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 채리 : 아 그렇다면 갭이어 프로그램은 뭔가 적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실아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3년에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1기 갭이어 프로그램 참가자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기 참여자 진소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일단 제가 지금 20대 후반의 나이인데 이때 이제 꿈을 쫓는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난 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도 받고 역량을 개인적으로 쌓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채리 : 에너지라는 게 원래 주고받으면서 커지잖아요!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 같군요.

◇ 이실아 :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대 후반이 절대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엔 두려움이 더 커

지는 나이는 맞는 거 같아요. DJ채리는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한 적이 있나요?

■ 채리 :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 이실아 : 그러면 그때 왜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어서 못 했던 거 같다 이런 이유라도 있으세요?

■ 채리 : 아무래도 바로 말하려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흠... 돈? 뭐가 하고 싶긴 했는데 이게 도전하기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실아 : 공감 많이 가네요. 저도 돈이 아쉬워서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운 것도 있고, 실패하면 여태까지 들인 시간, 돈 다 잃는 거라는 생각에 겁먹고 하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갭이어 프로그램에서는 다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채리 : 그럼 돈도 주는 거예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를 통해서 갭이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청년정책팀장 윤정훈]

“갭이어 프로그램은 일단 한마디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고요. 청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저희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실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의 적성을 찾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진로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체험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 채리 : 와 정말 좋네요.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 프로젝트 지원금, 역량교육, 분야별 멘토링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고 해요.

■ 채리 :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납니다. 얼마를 지원해주는지도 궁금한데요.

◇ 이실아 :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팀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팀별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여러 참가자도 이 500만 원 지원이라는 글자에 끌려서 많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 채리 : 이야 개인별로도 큰데 정말 뜻맞는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다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하고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 이실아 :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기청년 깡이어 프로그램의 취지는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도전을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서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취미, 여가 활동,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할 순 없습니다!

■ 채리 : 중요한 사안이죠! 쉽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 이실아 : 결국 자신의 진로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겠죠! 그래서 참여자 선발도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가치와 의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뽑는다고 해요. 신청서에서도 진로시도, 어려운 점, 프로젝트 세부 내용, 얻고 싶은 성과를 대략적으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채리 : 그렇군요. 지난 참가자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요?

◇ 이실아 : 실제로 작년에 전통주를 제조한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막걸리 장인이 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이외에도 원하는 프로젝트가 확실하다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깡이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진제공=경기청년 깡이어 프로그램 1기 참가자 진소연]

[인터뷰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기 참여자 진소연]

“일단 제 프로젝트는 이제 고립 청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했던 거는 이제 편집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러스트, 인디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제 인터뷰들 제가 사진 촬영도 해서 잡지에 같이 실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진 촬영 기술도 배웠었고 문맥을 좀 예쁘게 한다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글쓰기 같은 교육도 받았습시다. 제가 고립 청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우울증이 깊어서 이제 무기력증 때문에 침대에만 이제 방 안에서만 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개체로 삼아서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11명 인터뷰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둘 다 이제 우울하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좀 웃기도 하고 서로 공감도 하면서 서로한테 많이 좀 힘이 돼주고 치유가 서로 되었던 것 같아요.”

■ 채리 : 본인도 도움을 받고 또 서로가 치유되고 정말 보기 좋네요.

◇ 이실아 : 이게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청년이었을 텐데 이렇게 기회를 얻고 변화한 것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이 청년은 관련 분야에 취업도 성공했대요!

■ 채리 : 와 취뽀했군요!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 이실아 : 그리고 앞선 참여자처럼 쪽 주제를 이어가면 좋지만, 막상 해보니 적성에 안맞을 수도 있잖아요.

■ 채리 : 그렇죠. 그러면 도중 프로그램 하차인 건가요? 그럼 좀 슬플 거 같은데

◇ 이실아 : 아닙니다! 갭이어 프로그램의 취지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이잖아요? 1차적으로 주제를 받을 거지만요. 한 3주 동안의 갭이어에 대한 필수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주제를 바꾸고 싶으면 바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실패가 두렵고 지원이 없어서 포기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보세요!

■ 채리 : 좋습니다. 올해가 횡수로는 2년 차인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 이실아 : 일단 인원수도 작년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작년엔 600명을 선발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0명씩 1, 2기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능력치를 확장해서 800명 선발할 예정이고 인원을 나누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청년정책팀장 윤정훈]

“작년에 비해서 저희 갭이어 프로그램은 일단은 지원금은 똑같은데 제일 이제 특이점으로는 기획 더하기라는 저희 별도의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갭이어 참여자 중에서 우수 참여자들이나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최대한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 재단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일자리 재단에서 특화된 취·창업 정보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채리 : 500만원에 별도의 지원금까지! 이번에 지원자가 더 많을 거 같은데요? 실아씨 한번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지원기간	2024-04-01 09:00 부터 2024-04-26 18:00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1982년생까지) * 1984년 ~ 2005년 출생자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 이실아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4월 26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채리 : 아 왜 이실아 아나운서가 이사오고 싶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진로탐색을 통해 꿈의 길이 펼쳐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경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2024년 참가자를 모집 중이니깐요. 도전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경기도 청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거의 면접까지 다 갈 수 있다고 해요! 면접에서 본인의 의지를 잘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 채리 : 오늘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게 지원하는 <경기청년 깎이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아씨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를 찾아서로 돌아올게요. (끝)

30만원까지 응시료·수강료 준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4년 5월 8일 14:00-16:00)

■진행: 채리

■출연: 이실아 아나운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 채리 : 경기도 구석구석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공동체를 찾아서’

■ 채리 : 우리 마을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마을의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마을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체를 찾아서~> 이실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 이실아 : 안녕하세요. 이실아 입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이고 오늘이 또 어버이날인데 준비한 게 있으실까요?

■ 채리 : 추천 선물 있나요? 실아씨는 이번엔 어떤 것을 준비했어요?

◇ 이실아 : 저는 지금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카네이션 들고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학생 땀 사고 안 치고 성적 잘 나오는 거, 취업 전에는 취업 소식이 가장 좋

은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취업 후에는 현금이나 얼굴 보러 갔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 채리 : 아 다 맞아요. 사실 건강하게만 잘 자라준다면 그리고 자주 보러 와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이죠.

◇ 이실아 : 그래도 양손 가득 무언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그럴 여력이 안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경기도에 취업 전인 청년과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찾다가 샛길로 빠져서 만든 코너 속의 코너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3탄입니다!

■ 채리 : 실아씨, 3탄째면 이제 경기도로 이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오겠네요.

◇ 이실아 : 그러게요. 이제 곧 이사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경기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한번 청년의 목소리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들어볼까요?

[인터뷰 / 경기도 하남시 김기태]

“자격증이랑 토익 점수를 취득하려면 일단 학원을 다녀야 되고 수강 시험 응시료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토익 응시료도 오른다는 소리고 있고 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토익을 한 네 번 정도 봤는데 아직 원하는 목표 점수에 이르려면 몇 번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비용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채리 : 이 청년의 말이 공감되네요. 요즘 취업하려면 기본 스펙으로 있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이실아 : 맞아요. 어학 성적표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요. 요즘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제2외국어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 채리 : 또 최근엔 물가도 많이 올라서 청년 혼자 학원 수강료에 시험 응시료까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이실아 :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뭔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 채리 : 네,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역량 강화?’라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경기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단순히 말하자면 미취업 청년들이 돈 부담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원 수강료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청 관계자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획과 청년일자리팀장 조새봄]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스펙 획득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부터 저희 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기획 시리즈로 세

가지 사업이 우리 도에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 몇 개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응시료 지원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30개 시군과 함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p>경기도 미취업 청년 (19~39세) ※ 시군별 상이 (클릭!)상세정보 확인</p>	 <p>어학·자격 909종 (클릭!)상세정보 확인</p>	 <p>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횟수 제한없음) (클릭!)상세정보 확인</p>	 <p>문의처 ※ 성남시 자체사업 (올패스) 별도 추진 (클릭!)상세정보 확인</p>
---	---	---	---

■ 채리 : 우와 너무 좋네요! 취업 준비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실아 : 맞습니다. 제가 준비해봐서 아는데 시험 볼 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한 번에 원하는 점수나 합격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거든요. 이것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하면서 병행하며 준비하기는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는 거죠.

■ 채리 : 아이고 이러면 또 부모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 이실아 : 네, 그렇죠. 작년 사업에서는 응시료만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호응이 워낙 좋았고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인터뷰한 청년도 사실 이 기회를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 채리 : 그렇군요. 저라도 심기일전해서 공부하며 응시료를 지원받기 위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소개해줬던 경기도 사다리 프로그램, 갭이어 프로그램과

같이 신청 대상도 같나요?

◇ 이실아 : 3탄 정도 되니까 DJ채리도 바로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채리 : 그러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 기준도 있는 거예요?

◇ 이실아 :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담당자분을 통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청년일자리팀장 조새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요. 출생연도 기준으로 2005년생부터 1984년생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시·군별로 조례로 정한 청년의 연령이 조금씩 다른데요. 신청하시는 청년분의 주소지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 당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미취업에 대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을 하고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해서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나 수강료 지원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2만 4천 명 정도를 예산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군별로 수립된 예산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군별로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채리 :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겠어요!

◇ 이실아 : 그렇죠? 저 역시도 미취업 상태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바로 응시료를 지원받을 것 같아요. 작년엔 1회 최대 10만 원, 총 3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30만 원 한도 안에서 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7월부터는 학원 수강료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서둘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기준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단 단기간노동자(1년미만) 지원 가능

(연령) 시군별 상이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연령) 시군별 상이

-19-34세 : 시흥시, 김포시, 연천군

-19-39세 :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부천시, 오산시

-18-39세 : 용인시, 고양시, 광명시, 양평군, 여주시

-15-39세 : 가평군

-19-49세 : 포천시

■ 채리 : 그러면 응시료 지원은 어떠한 시험도 가능한 것인가요?

◇ 이실아 : 일단 토익, 텡스를 포함한 어학 19종, 한국사 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 민간 자격 96종 이렇게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응시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 자격 범위를 넓혀달라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전 면허, 간호사, 법무사, 변호사같이 국가 전문 자격 248종도 추가해서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대요.

■ 채리 : 오 정말 웬만한 건이 다 되겠네요!

◇ 이실아 : 그래도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또는 시군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제2종 보통면허는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면허만 가능해요.

■ 채리 : 아하! 그래요? 유념해야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청년, 아니면 미취업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 시험 보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공고문을 반드시 살펴봐야겠네요!

◇ 이실아 : 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강료 지원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는 어학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을 수강해야 하고요.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 특수면허

는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에 한정해서 지원하는데요. 수강료 지원이 가능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공고문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채리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경찰청에 등록 지정된 학원! 말 그대로 검증된 학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요즘엔 온라인강의도 많은데 온라인강의도 가능한가요?

◇ 이실아 : 네!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했다면 온라인강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청년일자리팀장 조새봄]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 중앙정부나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 참여를 하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50%를 차감 신청 후에 나머지는 이제 본인 부담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강료만 지원이 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응시료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시료와 수강료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일시적으로 좀 비용 부담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지금 2년 차이로 지원 문턱도 좀 많이 낮춘 상태니까 경기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채리 : 정부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네요!

◇ 이실아 : 네 그리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일은 5월 2일이지만, 5월부터 시작한 것만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응시료는 2023.12.1. ~2024.11.30.까지, 수강료는 2024.1.1.~2024.11.30.까지 실시한 것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착순 지원이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 채리 : 오 그러면 올해 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 이실아 : 네 맞습니다. 지원 자격만 된다면 응시료는 5월 2일부터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상시로 신청받는다고 해요! 시군 담당자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적격 등의 검증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별도로 보안 요청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 주기는 시군별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접수된 건별로 순차적으로 신청하실 때 등록하셨던 그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요!

■ 채리 : 이야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웬만하면 통과가 된다고 하니 다들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지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후기를 통해서 다른 지원자분들도 들어보시죠!

[인터뷰 / 2023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자 서의림]

“이게 토익이든 다른 시험이든 준비하기 전에 그냥 한번 봐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 번 봐보기에는 이제 학생이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었고 시험장의 분위기와 시험의 형태 그리고 향후 공부 방법에 있어서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말 그대로 좀 지원해 준 사업이니까 마음 편하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이제 봤을 때 토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이나 영역에도 적용됐던 걸로 기억해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으면 그냥 한번 마음 편하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이 청년 훌륭하네요. 본인이 혜택을 본 만큼 다른 친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특합니다.

◇ 이실아 :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것들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경기 청년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채리 : 그러게요. 실아씨 다시 한번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이실아 :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30만 원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별로 예산 한도가 다 다르고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얼른 이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채리 : 여러분 이렇게 응시료랑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라고 하니, 경기 청년분들의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이실아 : 네. 생각보다 응시료랑 수강료가 비싸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둔 가족의 걱정과 부담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오늘만큼은 부모님께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 채리 : 저도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한 번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고물가시대에 청년들에게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

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실아 아나운서 좋은 사업 소개 고마워요!

◇ 이실아 : 네, 저는 이따금 이렇게 경기도 청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경기 청년이라면'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끝)